

Ephesians 1
Tape # C2600
By Chuck Smith

Let's turn in our Bibles to Ephesians.
자, 에베소서를 펴세요.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1:1)

Now, if you were writing this epistle, take out the name Paul, and insert your name and then, whatever it is that you are: Jim, a service station attendant by the will of God. John, a foundry worker by the will of God. You see, not all are called to be apostles. Not all are called to be pastors, and not all are called to be preachers. Also, it is a mistake to try to be something that God hasn't called you to be, something that God hasn't equipped you for.

여러분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바울이란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의 이름을 삽입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유소 점원이 된 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물공장의 노동자인 존. 보세요. 모두가 다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나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것 즉 준비시키지 않으신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I really do not like the phrase, "He is following the highest calling of God; he's gone into the ministry." The ministry is not the highest calling of God. "Oh, he's following the highest calling of God; he's a missionary." That is not the highest calling of God.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로 간다.” 는 표현을 나는 아주 싫어합니다. 목회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가 되었다” 라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Whatever God has called you to be and equipped you to be is God's highest calling for your life. And you don't need to feel like a second-rate heavenly citizen just because you have a job as a service station attendant, or you are a secretary, or if you are blessed of God with the privilege of being a housewife.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주유소 점원이 되었거나 비서가 되었거나 또는 가정 주부가 되는 특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늘 나라의 이등 국민이나 되는 것 처럼 느껴서는 안됩니다.

Whatever it is that God has called you to be is the highest calling of God for your life, and we should be enjoying rather than feeling guilty. “Oh my, I’m not in the ministry. I should be in the ministry. I have to work at this job and all.” Hey, be grateful that God has spared you a lot of the pain and deprivation and grief that ministers often have to go through.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든지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며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오, 나는 꼭 목회를 해야 하는데 목사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해야돼.” 보세요, 목사가 겪는 많은 고통과 손실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나 하세요.

So Paul is just declaring his own calling. What I am, I am by the will of God, and that is what is important. For many years I had a difficult problem, because I sought to be “Chuck, the evangelist by the will of God,” but I wasn’t.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선언합니다. “나의 나된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된 척” 이 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God never did call me to be an evangelist, and my endeavor to be an evangelist was totally futile, frustrating, defeating. It wasn’t until I decided to kick the mold of the denomination that I was in, which held up evangelist as the highest calling, and just be what God had equipped me to be and ordained me to be: Chuck, a pastor-teacher by the will of God, that I began to experience a real fulfillment in my ministry.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고, 전도자가 되려던 나의 노력은 완전히 허사 였고, 좌절과 패배감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소속되었던 교단은 전도자를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여겼고 내가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임명하신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와 교사된 척 스미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목회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Up until then, the ministry was hard. It was a grind. It was a push. I was trying to be something God didn't make me. And you know, that’s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try to be something that God didn't make you.

그 때까지의 나의 목회 생활은 힘들었고 짜증스러웠습니다. 마치 못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신것을 되어 보려고 애쓰는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것입니다.

The Bible says,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Know what you are by the will of God. Because if you are what you are by the will of God, then you have pleasure in what you are and what you are doing, and when your work becomes your pleasure, then you are a happy person.

성경은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라” 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현재의 나 된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것이라면 현재의 상태로 기뻐하고 내가 하는일에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일이 기쁨이 될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것입니다.

I always encourage young people to find something they really enjoy doing and learn how to make a living from it. Because when your work is your pleasure, then you are a happy person.

나는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는일이 즐거워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 입니다.

If your work is a grind, then you are going to be a miserable person, because you've got to figure that probably a third of your life is going to be spent on the job, and if it is just a grind and a push, and you think, "Oh, I have to go to work today. I'll be glad when five o'clock comes." Man, you're grinding at it constantly.

우리의 하는일이 힘이 들고 단조로운것이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것입니다. 거의 1/3 의 인생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한다면, “오, 오늘 일하러 가야하네. 빨리 5 시가 되었으면 좋겠네.” 딱한 사람아, 끊임 없이 불만에 차 있구먼.

Paul,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to the saints which are at Ephesus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1)

You may say, "Well, that lets me out." The only part that lets you out is the “of Ephesus.” It is a tragedy, really, that the church decided to "saint" certain people for special honors. We make him a saint.

The church never made anybody a saint. The Lord creates the saints, not the church. And as far as the Lord is concerned, you are all saints if you love Him and follow Him.

“에베소에 있는 ○○○” 를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바꾸면 그 편지는 우리 각자에게 쓴것이 됩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여 “성인” 으로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성도로 만들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도를 만드신 것이지 교회가 성도를 만든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It's not a special category for super Christians. It's a common title for those who love the Lord and believe in Him. "Saint Charles," I will accept the title. But if that bothers you, Paul goes ahead and includes you in the rest of it there.

그것은 특별한 부류의 그리스찬들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통칭입니다. 나는 “성도 찰리” 라는 명칭을 받아드립니다. 바울이 성도라고 부를때 우리 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 to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1:1):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1:1)

So this letter is to you.

In this first verse he introduces, really, the sort of the underlying tone of the whole epistle, and it is in the words “in Christ Jesus.” So as you go through this epistle, it will be helpful if you will take your pen and you will underline all of the things that you have that God has done for you in Christ, through Christ.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편지 전체에 깔려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1 장 1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어나갈때 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 you will find the phrases, “in Him,” “by whom,” “in whom,” “through whom,” “through Him,” and all of these things that you are and have through and in Jesus Christ.

“그의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이 모든것들이 우리의 현재 상태와 거처온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And you find this reoccurring throughout the entire epistle. And so this almost becomes the key word that will unlock the epistle as he tells you all that you are, all that God has done for you, all that God is going to do for you, all that God wants to do for you, in Christ Jesus. So do underline as you go through and it will help it to be drawn back to your memory.

서신 전체에 걸쳐서 이 구절들이 자주 나오는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바울 서신의 관건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가때 밑줄을 그으면 당신이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2)

Grace and peace, coupled together, over and over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Always in this order, for you cannot know the peace of God until you first experience the grace of God.

은혜와 평강은 함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For years I went in my Christian experience without really knowing the peace of God in my heart. Because I was under a work relationship with God, trying so hard, and I never had peace.

나는 여러해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노동자의 관계였으므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내게 평강은 없었습니다.

I really never had assurance of my salvation until I discovered the grace of God. And in the discovery of the grace of God, I then had assurance of my salvation, and I experienced the peace of God, and it was glorious.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때까지는 구원의 확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And that I think, probably, is one of the reasons why I emphasize the grace of God so much in my ministry, is that brought such a depth of peace and blessing to my own life to experience it after serving the Lord for years.

내가 여러해동안 주님을 섬긴 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깊이를 체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나의 목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From the Lord Jesus Christ.” Now a lot of people think that is first, middle, and last name. Not so. His name is Jesus. It is the Greek for the Hebrew Yeshua.

The Hebrew name is Yeshua, is a name which means, or is a contraction of “Jehovah is salvation.” One of the compound names of Jehovah, Yeshua. The Greek name is Jesus.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이름과 중간 이름과 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헬라어 이름이며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Yeshua) 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예슈아이며 “여호아는 구원이다” 라는 뜻을 가진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와의 복합으로 된 이름 중의 하나이며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And they were instructed to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e Lord is salvation, call Him Yeshua,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구원이시니 그를 예슈아라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The word *Christ* is the Hebrew word *Messiah*, and it tells His mission. He is God's promised Savior, the anointed one, the Messiah. And Lord is His title.

Now, our problem is that we use it as His name, rather than His title. And thus, we use it loosely and oftentimes in vain. Many people take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because they use the term Lord as a name, rather than a title. It signifies my relationship with Him. If He is Lord, then I am the doulos, I am the slave, I am the bond slave. And it is important that I establish this relationship with Him as Lord and servant.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며 그의 임무를 말해줍니다. 그는 약속된 하나님의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의 직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의 직위를 그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어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를 그의 직위로 사용하지 않고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과 나와서의 관계를 말해 줍니다. 만일 그가 주님이시라면 나는 둘로스 즉 종입니다. 나는 스스로 택한 종입니다. 내가 그분과 주종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Jesus said,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yet you don't do the things I command you?" That is inconsistency. And yet, how inconsistent people are calling him Lord, and yet not obeying His commands. And so it is important that we realize that this is a title, not a name. And that we come into that relationship with Him as Lord. "For if thou shalt confess with thy mouth that Jesus Christ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Romans 10:9-10).

예수께서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시키는 일은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것은 직위이지 이름이 아니며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Confessing what? Jesus is Lord. But it can't be an empty confession, because many people come in that day saying, "Lord, Lord open to us." And He will say, "I never knew you.

What do you mean, 'Lord, Lord'? You never served Me." "Oh, but I called You Lord all of my life." "Yes, but you never served Me." Title, relationship, don't take it lightly or loosely.

무엇을 시인 한단 말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고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라고 말하면 주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여, 주여' 라는 뜻이 무엇이뇨? 네가 결코 나를 섬기지 아니 하였느니라" 고 하실것입니다. "오, 그러나 내 평생 당신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다만 너는 나를 한번도 섬기지 않았어." 이 직위나 관계를 가볍게 영성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Now Paul gets immediately into the issues that he wants to talk to them about.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1:3)

바울은 즉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1:3)

And there you have it: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in Christ (1:3):

그리스도 안에서 (1:3)

Notice, first of all, that he is thanking God for the spiritual blessings. There is an awful lot, in fact, too much talk today about material blessings. And those that are going around advocating how that every saint of God should experience all kinds of material blessings and the testimonies are of the material blessings.

제일 먼저 바울은 영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있는것에 주목 하십시오. 오늘날 지나칠 정도로 물질 축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가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말하면서 두루 다니고 간증들은 물질의 축복에 관련된것들입니다.

Sometimes I don't know if I am in an Amway meeting or a church service as people testify of the material blessings. Paul is thanking God for the spiritual blessings. And when you hear a person giving thanks to God, note what he is thanking God for, because it can surely indicate the person's place spiritually.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 간증할 때 내가 혹시 AMWAY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If a person is really walking after the Spirit and is interested in things of the Spirit, he is going to be thanking God for the spiritual blessings. But if a person is a materialist and is very interested in the material things, he is going to be talking always about the material blessings. "But beware of those," the Bible says, "who declared that godliness is a way to material prosperity, from such turn away." He is thanking God for the spiritual blessings.

만일 참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질주의자 라면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을것이고 항상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이 물질적인 번영으로 가는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부터 돌아 서라" 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바울은 영적 축복을 위해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And he is going to spend the first three chapters of Ephesians sort of enumerating these spiritual blessings that we have in and through Jesus Christ. He is going to tell you for three chapters now what God has done for you.

바울은 에베소 첫 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받게된 우리의 이 영적 축복들을 하나씩 열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세 장에 걸쳐 말하려고 합니다.

I think that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in the church today arises from the fact that in the church we are always hearing what we ought to be doing for God. I grew up on that kind of a diet. Every service that I attended, it seems, I was being told what I ought to be doing for God, and I wasn't doing what I ought to be doing for God.

나는 오늘 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듣는데서 일어납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내가 참석했던 예배때 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And I was very miserable and I felt convicted constantly, because I was failing. I ought to be doing more for God, I ought to be doing this for God, and the other thing for God, all I ought to be doing for God.

나는 줄곧 실패하는 죄책감으로 비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해야했고 저것도 해야 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마땅히 해야 되었습니다.

There were many things I wanted to do, but I just was weak. I ought to be praying more, and so I go down on Sunday night, and I'd pray, "God, I am going to pray more this week." But I didn't. Then I would feel guilty, and next Sunday night I would go back and repent for not praying more last week, and, "This next week I will do it, Lord."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싶었으나 오직 나의 육신은 약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내려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주에는 더 많이 기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나선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지난주에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 위해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다음주에는 꼭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But every Sunday night there was repentance for my failures this last week. I ought to be reading the Bible more, “God, I am going to read the Bible more,” but I didn't. I wanted to. 그러나 매 일요일 저녁이면 지난 주의 행하지 못한것들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더 읽어야 지, “하나님,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I ought to be witnessing more. But I didn't.” Always feeling guilty because I was failing to be or to do all that I ought to be doing for God. Half of the problem was that I didn't know how. For years in my ministry I followed the pattern that I knew by growing up. I was telling the people constantly what they ought to be doing for God.

나는 더 많이 증거해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한것과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의 절반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의 목회 생활에서 내가 자랄때 배웠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First many years of my ministry I was always half mad with the people. Because I wanted to be an evangelist, because that is what the denomination recognized. I wanted to see souls saved, because the first thing I had to report on my report every month was how many people were saved this month.

내 목회 생활의 처음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반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교단에서도 전도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혼들이 구원 받는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매월 제출하는 보고서의 첫번째 항목이 이달에 구원 받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Terrible to put zeros in there. The hierarchy, the bishops will never recognize you unless you have converts. And so I had prepared some of the most fantastic evangelistic sermons. I mean, they could convince the hardest sinner that he ought to commit his life to Jesus Christ.

하나도 없다고 쓰기가 두려웠습니다. 정치체제상 가장 높은 감독은 교회에서 개신자가 없으면 인정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만 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도용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And I would go to church all supercharged with this powerful dynamic message, I mean no sinner can reject this message. And I would get to church and I would look around, and there wouldn't be a sinner in the house.

I knew everybody by first name. What are you going to do? No sinners to preach this powerful message to. Can't change my message now.

나는 죄인이 이 메시지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기발한 설교를 준비하고 가서 교회 주위를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모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얼 할려고 하는거야? 이 기발한 설교를 들을 만한 죄인이 없잖아! 지금 와서 설교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preach. I will have to preach this powerful salvation message to all of these saints. That is frustrating. And I let my frustration be known by laying it on the saints. I put a little addendums to my message, of how they had so failed God, that if they were doing what they should be doing this church would be full of people tonight.

그것 밖에는 설교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해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여서 내 좌절감을 그들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었다면 오늘 밤 이 교회가 가득 차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가를 내 메시지에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Sinners to hear the gospel message. "You should have your neighbors with you this evening." And I would really lay it on the poor saints, and their heads would go down, down, down.

I was laying the lash across their backs, beating them, total failures in their Christian walk. I have got to preach this powerful salvation to saints, that is not fair.

죄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웃들을 함께 데려왔어야 합니다." 라고 형편없는 성도들이라고 하자 그들의 머리는 점점 아래로 숙여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신앙이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등에 마구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해야 한다는것은 불공평합니다.

So I developed a congregation of frustrated, guilt-ridden saints. And I would make my appeal to reconsecrate your life to Jesus, at least I could get people forward.

Oh, God bless. You notice I dedicated my last book to those people way back when. Those blessed saints that endured my whippings every Sunday, and came back for more--that is the surprising thing.

그래서 나는 좌절하고 죄의 가책으로 가득찬 성도들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재 헌신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하면 적어도 그들이 앞으로 나올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신대로 언젠가 나의 지난번에 낸 책을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매 일요일 나의 채찍을 참고 견디어 온 축복 받은 성도들이 더 많이 채찍을 맞으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As their head would go down and they'd feel guilty, "Yes, I have failed God. Oh, I am so sorry, Lord. I should be doing more for You. I know I should. But, God, I don't know how. This dumb pastor isn't teaching me anything besides salvation." It was really my fault. I never took

them beyond salvation. I never brought them into the walk in the Spirit, in the life of the Spirit, into growth and maturity in the Word.

죄책감으로 머리가 더욱더 수그러지면서,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요. 해야 하는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멍청한 목사는 구원 외에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넘어서는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그들을 성령 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지 않았고 또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니다.

One day God changed my ministry. I became a pastor-teacher, got rid of my evangelistic sermons and started to feed His sheep, to make them strong, and there was a dramatic change in my own ministry.

어느날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를 바꾸셨습니다. 나는 목사와 교사가 되었으며 전도 설교는 없애 버리고, 양을 먹이고, 튼튼하게 만들기 시작했더니 내 목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 났습니니다.

As I quit beating the sheep and started feeding the sheep, the sheep started getting strong. They started getting healthy, and you know what happened? As they got strong and healthy, they started to reproduce. They now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their neighbors.

양을 때리는 것을 중단하고 양을 먹이기 시작했더니 그들은 튼튼해지기 시작 했습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재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웃과 나눌수 있는것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Christ became their life. Witnessing wasn't something they were doing anymore but it was something that they were. Their lives changed by the Word of God and the power of the Spirit.

예수가 그들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하던 방법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보여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됐습니니다.

They became witnesses, and the effect of it was that their witness began to go out throughout the neighborhood, and their neighbors began to come and be saved. And the church began to be blessed and grow.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의 증거가 온 이웃에 전해졌으며 이웃 사람들이 와서 구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축복 받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The church has been emphasizing much too long what you ought to be doing for God, the Bible doesn't emphasize that.

The Bible emphasizes what God has done for you. “Thanks be unto God who has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and he takes three chapters now to tell you all that God has done for you.

성경에서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말합니다.

And it is not until he has told you for three chapters what God has done for you that he turns around then and says, “Now walk worthy of this glorious calling.” He doesn't tell you what you ought to be doing for God until, first of all, establishing for you what God has done for you. And that is the proper order, because you can't be what you ought to be without that which God has already done for us. In other words, God's work has to be first in my life.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세 장에 걸쳐 말한 다음, 돌아서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행하기에 합당하다” 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확고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없이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첫째라야 합니다.

And in the New Testament, the order is always that way. You will never find the reversed order. Before what you should be doing for God is always what God has done for you.

신약성경 에서는 항상 순서가 그러합니다. 뒤바뀌는 순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항상 내가 해야 할 일 보다 앞서야 합니다.

“Thank God,” Peter said, “that we have been born again in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incorruptible, undefiled, that fades not away, that is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I Peter 1:3-4).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3-4)

All of this is what God has done for you. Thanks be unto God, we have been born again to this living hope because Jesus rose from the dead. We have an inheritance, incorruptible, undefiled, fades not away. That is all what God has done for you.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it is God that is keeping you.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으로 우리도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신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Well, you say, "Don't I have anything to do?" Yea, through faith just believe it, that's all He requires. For you to believe that work that He has done for you. And so, we sought to follow the New Testament pattern, declaring the glorious works of God in our behalf.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물으시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할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본을 받아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것입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these heavenlies in Christ Jesus. Starting off now,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According as he hath chosen us in him (1:4)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4)

God chose me. That thrills me. It used to scare me. I used to argue against that. That isn't fair that God should choose. I didn't like the doctrine of divine election. I don't know why I didn't, inasmuch as He elected me. But somehow my rational mind was wrestling with that. I am glad that God gave me the choice.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놀래게 하곤 했으며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 합리적인 마음이 그것과 씨름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택권을 주셔서 기쁩니다.

I appreciate this capacity of choice. I recognize the awesome responsibility that goes with it. But I am glad that God gave me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 one that I was going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I would have just hated to have someone dumped on me. I appreciate that choice. But I would deny God that same right. God, You don't have a right to choose who You want to spend eternity with.

나는 이 선택할수 있는 능력을 감사합니다. 그 선택권에 따르는 놀라운 책임감이 따른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인생을 보낼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도 기쁩니다. 나는 누가 억지로 떠맡겼다면 그것을 싫어했을것이지만 선택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같은 군리로 하나님을 부인할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영생을 같이 보낼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According as He has chosen us.” It is interesting that Paul has that at the top of his list. And I think that it is appropriate. The top of our list should be the fact that God chose us. What a blessing, what a glorious blessing that God should choose me to spend eternity with Him. Now the amazing thing is, when God chose me, and this gives us a little clue in the whole thing,

“그가 우리를 택하사.” 바울은 그것을 목록 맨 위에 올려놓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또 그것이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목록의 제일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그와 같이 보낼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 안에서 작은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1:4),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4)

Now God didn't choose me after I decided to clean up my act and live for Him. God didn't say, "Oh, all right, I will chose him." God chose me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Now, that gives you the key into God's choices.

하나님은 내 행실을 정결케 하여 그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 좋다, 내가 그를 선택하리라” 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들어오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Having chosen m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ndicates that He chose me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Because God knows all things, He will never learn anything new.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의 예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것을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새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f He can learn anything new, then He doesn't know all things. James said, "Known unto Him are all things from the beginning." So it is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because He knew in advance. He chose me on the basis of His foreknowledge.

만약 그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수 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예지에 따른것 입니다. 그는 그의 예지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Now, this is where we have difficulty with the concept of the foreknowledge of God and predestination, and election, and chosen in Him. We have problems because we can't think with that capacity, or with that advantage. It must be...I don't even know if you have to think when you have that advantage. You know everything. And on the basis of what God knew, from the beginning He made His choices.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선택,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은것에 대한 개념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 수용력이나 이점에 대하여 생각할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틀림은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때 여러분이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시는것을 기반으로해서 그의 선택을 하신것입니다.

Now imagine if you had that kind of capacity that you knew everything in advance before it ever happened. You knew exactly how it was going to turn out. You could sure go back and improve your lot, couldn't you?

만약 당신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가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되돌아 가서 당신의 운명을 개선하지 않겠습니까?

I have made some choices in my life that I was sorry that I made afterwards. I have made some poor decisions in my life. I sold too quickly. I bought at the wrong time.

나는 내 인생에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 몇 가지 선택을 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팔았고 제 때가 아닌 때에 샀습니다.

Oh, if I only had foreknowledge when I made my decisions I wouldn't have chosen the losers. That would be sort of stupid to choose losers, wouldn't it? If you knew in advance. If you knew who was going to win the ball game.

내가 결정을 내릴 때에 나에게 예지가 있었다면 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것 입니다. 패자를 선택하는 멍청한 짓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볼 게임에서 이길것인가를 미리 알았다더라면 패자를 선택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Or better yet, you could go to the racetracks with this kind of knowledge. Imagine what you could do, having foreknowledge, knowing every horse what he was going to do in that race, and you would go to the racetrack with this kind of knowledge.

더 나은것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경마장에 갈수있다는것입니다. 말들이 각각 경기에서 어떻게 할것을 아는 예지를 가지고 당신이 경마장에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경마장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Now, if you could, do you think you would go there and pick out a ticket of losers? I don't know what you do at racetracks. Would you pick out a bunch of losers? You would be stupid if you did. Of course, you wouldn't.

그렇다면 당신은 가서 패자의 표를 사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패자의 표를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멍청이가 되며 물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You would pick the winners, because you know in advance who is going to win the race. What the outcome is going to be. And so you make your choices predicated on what the outcome is, because you already know in advance what it is going to be. That is just using your head.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승자를 선택하겠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단정해 선택합니다. 그런 것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Now that is what thrills me about God choosing me. Because He don't choose no losers. God has only chosen winners. And by virtue of the fact that I have been chosen, that ensures that I am going to win.

하나님이 패자들은 택하지 않고 승자들만 선택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전율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나는 선택된 덕분에 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Chosen in Him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I derive tremendous comfort from that. You may say, "Well, that isn't fair that God can choose, because if He chooses who is going to be saved, then He has also chosen who is going to be lost." It doesn't say that, does it? You are adding to the scripture. Well, that is a natural assumption. Not necessarily.

창세전부터 그 안에 선택된 나는 그 사실로부터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구원 받을 자, 구원 받지 못할 자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도 하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말씀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추측이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The fact that God foreknows those that are going to be saved and chooses them does not preclude any man from coming, because the scripture says, "Whosoever will, may come and drink of the water of life freely" (Revelation 22:17).

하나님이 구원 받을자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이 아무나 오지 못하게 막는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오라,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로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17).

And not one person has ever come to God and been turned back by God. God says, "Well, let Me see. I'm sorry, your name is not on the list. Too bad, you seem like a very nice fellow. I would like to save you, but there was a slip up in the records someplace. I guess you just can't make it."

하나님께 온 자를 하나님이 한 사람도 돌려 보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자. 미안하지만 너의 이름은 책에 없어. 안됐다. 너는 좋은 사람 같은데. 내가 당신을 구원하고 싶지만, 목록 어디엔가 실수가 있는거 같아. 너는 안되겠어”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Predestination, divine election never precludes any man. You say, “But I don't think that I like that God can make these choices. Because, what if He didn't choose me?”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그 누구 하나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Well, how do you know He didn't choose you? "Well, I am not a Christian." Well, why aren't you a Christian? "Well, I don't want to be." Well then, maybe He didn't choose you and sort of sad.

그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 인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 인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나 봅니다. 슬픈 일입니다.

But you can find out whether or not He chose you by just accepting Jesus Christ. And you will discover He chose you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You see, if there is any question in it, you can answer the question tonight. You can just say, "Lord, come into my life. I am going to be a Christian. I am going to follow Jesus Christ."

그가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아닌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창세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당장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나는 그리스도 인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초청할 수 있습니다.

And you will discover the minute that you do, that God chose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He says, "I've been waiting for this. Great to have you on board; come on in." And then He'll show you, "I chose you, here you are. I knew exactly the time, and the whole situation. Here it is, you were chos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한다. 어서 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여기 있구나. 정확한 시간과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다는 것이 여기 있어."

"Yea, but what if I don't want to come?" Well then again I say, it's tough, but you can't blame God. Because God has opened the door to you. And God has given you the opportunity, and God has called you to come. So though God has chosen those, still He has left the door open so that it becomes your choice also.

‘예, 그렇지만, 내가 오기 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안됐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셔서 당신에게 오도록 부르셨으니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아직도 문을 열어 놓고 그것이 또한 당신의 선택이 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Though God already knows the choice you are going to make. But you are the one that makes the choice, but God in all of His wisdom knows the choices each person is going to make. But He doesn't make the choice for you. He only knows in advance that which you are going to choose.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택할 선택도 알고 계시지만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선택할것을 그의 모든 지혜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선택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We were chos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여졌고,

that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 (1:4):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4)

*Oh God, help me...we have got two chapters to go and I am just plotting.
But every verse just opens up such a new, rich dimension. It is hard to just pass over it.*

오 하나님, 도와 주소서... 두장을 더 공부해야하는데, 계획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절절마다 새롭고 부요한 차원을 열어줍니다. 그냥 지나치기는 힘이 듭니다.

What has God chosen for you? That you should stand before Him holy and without blame. In Jude we read, "Now un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Jude 24). One of these days my name is going to be called, and I am going to stand out, and God is going to look at me, and Jesus is going to step up and say, "Father, one of mine." In Christ, holy, without blame. "He is innocent Father. He is without blame. He is faultless."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신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는것입니다. 유다서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에게" (유다서 24). 언젠가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나가서 설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서서 "아버지, 내것중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는 순수한 아버지이시며 나무랄데 없고 흠이 없으십니다."

He is going to present me faultless. How? Because He is going to present me in Him. It is in Christ that I have this standing before God of faultless, without blame, holy. That isn't me, that isn't my works, that isn't my efforts; that is the way God is going to receive me in Christ Jesus.

그가 나를 흠이 없이 바칠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안에 있는 나를 드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서는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며 내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That is the way Jesus is going to present me to the Father, for He has taken all of my blame. He has taken all of my sin, and He has paid the price and the penalty, and He is going to present me in His righteousness. For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Him.

예수께서 나의 모든 흠을 없게하셨으므로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에게 바치는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셨고 값을 치루셨으며 이제 나를 그의 의로 나를 감싸서 드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Having predestinated us (1:5),

God's predestined plan for our lives.

that we should be adopted as His children (1:5),

우리를 예정하사 (1:5)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5)

Now, as we were going through Romans, we pointed out the fact that we have been adopted as the sons of God.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but God has predestined that we should become the adopted children by Christ Jesus.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의 양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1:5),

그의 기쁘신 뜻으로 (1:5)

Now, this is a phrase you are going to find repeated, and it is an important phrase to understand.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그의 기쁘신 뜻" 이라는 문구가 반복되는것을 문구가 반복되는것을 보게 될텐데 그것이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In Revelation 4:11 the elders declare to God, "Thou art worthy to receive glory and honor: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Your good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God has chosen you.

요한 계시록 4 장 11 절에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기쁘신)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God has predestined you to be His children that He might receive pleasure from your willful obedience to His will. That you might be faithful, obedient children in which the Father can take pride.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의 뜻에 기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받으시려고 당신을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것입니다.

You remember when Job was there accusing before God, the saints. Remember in the book of Job? The sons of God were presenting themselves to God. Satan also came with them and said, "Hey, where have you been, man? I have been cruising around the world." "Oh, hey did you notice that one fellow Job? Good man, isn't he? Perfect, upright, he loves good, and hates evil.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했을때 그가 거기에 있었던것을 기억하실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앞에 섰습니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너희들은 어디갔다 왔니? 나는 세상을 두루 다녔지.” “오, 욥이라는 친구를 주목해 보았느냐? 그는 좋은 사람이지? 완전하고 정직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Yea, I have noticed that guy, but You put a hedge around him. I can't get close to him. And you have so blessed that guy, he is so wealthy. Who wouldn't serve You if You give them all of that kind of stuff? Anybody would serve You. He doesn't really love You; he just loves the perks he is receiving. You let me at that guy and I can make him curse You to Your face.”

나도 그를 주목해 봤지만 그에게 울타리를 치셨으니 내가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나이다.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부하게 해주시니 누군들 모든 것을 주는 자를 받들지 않겠나이까? 그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받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그가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저주하게 할수 있습니다.

God said, "Well, have a go at it, but don't touch his life." And then Job went through the stripping process, family, possessions, friends. And it came another time when the sons of God were presenting themselves before God, Satan also came with them, and God said, "Where have you been?" And Satan said, "Going up and down the earth, to and fro through it." "Well, have you seen my servant Job?" After Satan has stripped him of everything, he lay on the ground naked, destitute, and he said, "Naked I came into the world, naked I am going out. The Lord gives, the Lord takes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나 다른것들은 네 손에 붙이노라” 고 하셨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과 친구들을 잃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사탄도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묻자 사탄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후에, 그는 벌거 벗고 빈곤한 채로 땅에 누워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And in all of these things he didn't curse God, or charge God foolishly. Now God is rubbing it in, “Have you noticed my servant Job? The man loves good; hates evil. My boy.” God was proud, taking pleasure, and that is what God desires to do in your life--to take pleasure for your love and your obedience to Him.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면서 “내 종 읍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것입니다 ---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를 순종함으로 기쁨을 가지시는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그의 뜻의 참 기쁨에 의하면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1:6),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1:6)

That God might receive praise and glory because of His grace.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는것입니다.

wherein he hath made us (1:6)

And the next blessing:

accepted in the beloved (1:6):
이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1:6)

그 다음 축복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1:6)

God has accepted me in Christ. Now, I have no acceptance before God in myself. I can't go up and say, "Hey, God. I am Chuck Smith, here is my card. I want in. I want you to accept me, God, because I really tried." I have no acceptance in myself. I am only accepted in Christ, accepted in the beloved.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받아 드려질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여보세요, 하나님, 나는 척 스미스이고 내 명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나를 받아주세요.” 내 자신으로선 받아드려 질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 받는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드려집니다.

When I stand before God, I will stand before Him in Christ, and as such, will be accepted in the beloved.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앞에 서게 되고, 사랑 받는자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1:7),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1:7)

So the next blessing. In whom, in Christ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다음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1:7);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으니 (1:7)

I almost spoke on this subject this morning. I am just going to bypass the temptation to speak on it tonight.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idea of redemption is that of purchasing something back.

나는 오늘 아침 이 주제로 설교할 뻔 했지만 오늘 저녁에 하려고 꼭 참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속되었다는 구속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도로 샀다는 뜻입니다.

The idea here is to purchase a slave off the market who cannot pay his debts. He has been sold into slavery, because of his inability to pay his debts. And someone now has come along and paid his debt for him, has redeemed him.

여기서 말하는것은 빚을 갚을수 없는 노예를 시장에서 산다는 개념입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의 빚을 갚고 그를 구속한 것입니다.

I owed a debt I could not pay. I was sold into the slavery of sin. But Jesus paid the debt that I owed. He redeemed me from the slavery to the life of the flesh that I might become a child of God, forgiven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Oh, how glorious, the forgiveness of my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나는 갚을 수 없을 빚을 졌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팔렸으나 예수께서 나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적인 삶에 얽매인 노예생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Wherein he has abounded [that is, His grace has abounded] toward us in all wisdom and prudence; having made known un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himself (1:8-9):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1:8-9);

Again, the good pleasure of God, the purposes of God. And in this He has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What is it? That Christ in you is your hope of glory.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 (1:10)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9)

That is, when the whole cycle is complete and the history of man has concluded,
다시 말하면, 전체 주기가 끝날 때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that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 even in him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0)

God's intention of bringing the whole universe together again into obedience and in subjection to Jesus Chris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re was only one government in the universe.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는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나라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It was the government of God, the government of light and life, and every creature within the universe that was created by God was in harmony with God, in subjection to God, and it was a beautiful, glorious universe of light and life.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빛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과 생명의 우주였습니다.

But one day, one of God's glorious creatures that was perfect in beauty and perfect in wisdom and perfect in all of his ways,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be equal with God. He was going to exalt himself above the other angels.

그러나 어느날 하나님의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혜롭고, 그의 모든일에 완벽한 영광스러운 창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 위에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And was going to be as God. And with that rebellion against the will of God there came a second government in the universe. Satan as its head, the government of death and darkness. A government that is in antagonism to the first government, in rebellion against the first government, and thus, the beginning of this struggle within the universe of the good against the evil.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여 우주 안에 제 2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사단은 죽음과 어둠의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첫 나라에 적개심을 품고 반항함으로써 우주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And we have come into time, born on this planet Earth, which happens to be sort of the center of the conflict. And we are born into a spiritual conflict, and even within us we experience the conflict of the good that I would, I often do not do, and that which I would not do, I find myself doing. And I find myself in this conflict of good and evil.

우리는 투쟁의 중심지인 이 지구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행하여야 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지않아야 할 악을 행하는 내적 투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러한 선과 악의 투쟁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And I look around at this weary world, and I see it in this conflict, and I see the tragic byproducts of the conflict. I see the suffering. I see the wars. I see the struggles. All resulting because of the initial rebellion against God.

나는 이 피곤하게 하는 이 세상을 둘러볼때 세상이 투쟁속에 있고 그 투쟁의 비극적인 부산물이 있습니다. 고통과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And man caught up in that rebellion. And not living as God would have him to live upon the world. For as we sang “Love, love, this is your c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is is God's command, God's call to us. But men aren't living by that standard, and thus, the conflict. And thus, the miseries of the world around us. It could all be solved if we would just start living as God asks us to live.

인간은 그 반항심에 사로 잡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사랑, 이것은 당신의 부르심,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노래 하는것 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규칙대로 살지 않아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것입니다.

But one day, thank God, one day Satan is to be cast into Gehenna, and all of those that have chosen to rebel with him, they will be cast into outer darkness, beyond the farthest galaxy, out into the abysmal darkness beyond the light of any of the universe. Loving darkness rather than light, God accommodates them into the eternal darkness forever.

And within this universe of God, once more there will be just one government. And God will gather together in the fullness of times all things into Christ, and all now in subject to His authority, living in a world, in a universe of peace and glory. All in harmony now with Him, all in sync with Him once more. What a glorious universe that is going to be.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느 날 사탄은 게헨나에 던져질것이며 그와 함께 반역했던 모두가 바깥 어두운곳,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계를 지나 우주의 빛이 비취지 않는

끝없는 어둠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영원한 어둠 속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속에 다시 한번 더 오직 한 나라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만물을 그리스도안으로 모으실 것이며 모든것이 그의 권세에 복종하여 평강과 영광의 우주안에 있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다시 한번 그와 하나가 될것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세계가 될것입니다.

You know, this world wouldn't be a bad place if it weren't for sin. I have seen some really beautiful places. If it weren't for man's corrupting of this planet, it has really some gloriously, beautiful places to see.

세상에 죄만 없다면 이 세상은 그리 나쁜 곳은 아닙니다. 나도 아주 아름다운 곳들을 봤습니다. 이 지구에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보고싶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I have been skin-diving in some fabulously, beautiful places. Just enchanted by the corals, by the various fish and all, and then I see some beer can, and I think, "What a tragedy out here in the Pacific. Some inconsiderate person just polluting, trashing." Man has the capacity of trashing everything, it seems. How glorious to live in a world that will all be in subjection to Jesus Christ. When the fullness of time, the cycle is complete, and God brings it all back together in one in Christ.

난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에서 스킨 다이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호들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로 매혹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맥주 병이 보이자 나는 생각하기를 "태평양에 맥주 병이라니 슬픈 일이다. 어떤 몰지각한 인간이 저렇게 쓰레기를 버려 공해를 일으킨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세계에 살게될테니 얼마나 영광 스럽겠습니까. 때가 차면, 즉 주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든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것입니다.

"Even in Him."

In whom also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1:11),

그 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셨으니 (1:11)

Incorruptible, undefiled, fades not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If we are children of God, then we are heirs of God and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And it is through Jesus Christ that I have become an heir to the glorious, eternal kingdom of God and to the riches of that kingdom. They are mine, and I shall enjoy them, world without end.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당신을 위해 천국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의 후사가 되었고 그 나라의 재산에 대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내것이고 끝없이 즐길수 있는 세상입니다.

“In whom also we have this glorious inheritance,”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으니,

*being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own will (1:11):*

모든 일이 그 마음의 원래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1:11)

God doesn't have to ask counselor advice of anybody. He does it all according to His own will. His purposes which He has purposed, they shall come to pass. They shall stand. God's purposes cannot be defeated.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상담할 필요가 없고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의 예정에 따라 결정하십니다. 그의 예정은 확고하며 실패할수가 없습니다.

That which God has purposed shall be. Thank God He has purposed that I should share with Him in that glorious kingdom. Oh thank God for His purposes. The eternal purposes of God which He has purposed in Himself after the counsel of His own will.

하나님의 예정대로 될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갖도록 그가 예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그의 목적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그의 뜻에 따라 주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들입니다.

*That we should be to the praise of his glory, because of our trust in Jesus
Christ (1: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2)

When you trust in His Son Jesus, God just says, "Oh, look at them, look at the trust they have." Now, many times this trust is tested.

Am I going to trust in Jesus when things go bad? Do I only trust in Him when things are rosy and things are going great? I say, “Oh, man, life is sweet. Life is wonderful. Lord, I trust You for everything.”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때 하나님께서 “오, 저들을 보라,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라” 고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시험이 자주 있을것입니다.

일이 잘 안될 때도 예수를 믿을것인가? 모든것이 평화롭고 일이 잘 되어갈때만
그를 믿을 것인가? 나는 말합니다, “오, 인생은 아름다워라. 주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모든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But do I trust Him when it gets tough? Do I trust Him only when I can understand what He is doing? Can I trust Him when I don't understand? Now, many times God places me in situations that I don't understand to see if my trust is really genuine.

그러나 일이 어렵게 될 때도 내가 그분을 믿는가? 그가 하시는 일을 이해할때만 그분을 신뢰하는가? 알수 없을 때도 그분을 신뢰할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 보시려고 내가 이해할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하시는때도 많이 있습니다.

And as I trust in Him in those dark places, in the places of suffering, in the places of questions, when I trust Him in those places, actually, it brings greater praise to His grace than when I only trust Him in the good times. My trust in Jesus.

내가 어둠에 있을 때나 고통 받을 때나 의심스러울 때 그분을 믿는것 처럼 그러할때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모든일이 잘되어갈때 그분을 믿는것보다 그의 은혜를 더 크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In whom you also trusted, after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in whom also, after that you believed, you wer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of promise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하심을 받았으니 (1:13)

Now, Ephesus was a major seaport in which the goods were coming from the eastern part of the world. And the merchants from Rome would go to Ephesus to the large markets, the wholesale markets, and they would purchase these goods coming from the east. And then they would crate them, and then they would put their seal on the crate.

에베소는 동방세계에서 오는 물건들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상인들이 큰 시장에 가서 물건을 도매값으로 사고 또 동방의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상품을 상자에 포장하고 그 포장한 상자위에 인장을 찍습니다.

The wax. And each one had their ring, their signet ring, and they would press their ring into the wax. It was the sealing of the merchandise. They would put it on the ships, and then the ships would sail to Puteoli, which was the port for Rome in those days.

And when the merchandise would arrive in Puteoli, the merchants' servants that were there would go through the goods as they were unloading them and say, "There, there." And they would pick out their merchandise that was sealed with their master's seal. It was the sign of ownership; that is mine, that belongs to me, that is mine, it has my seal. It was the sign of ownership.

포장한 상자위에 밀랍(왁스) 을 바릅니다. 사람마다 그들의 인장이 있고, 인장을 밀랍에 눌러 찍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물건에 보증하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배에 싣고, 그 때의 로마 항구였던 푸테올리 항구로 보냅니다. 도착하자 상인들의 종들이 물건을 내리면서 확인을 할때 “저기, 저기”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의 도장이

찍힌 상품을 골라냅니다. 인장은 주인의 표시이며 그것은 내것, 나에게 속한 것, 내 인장이 찍힌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표시입니다.

God has purchased you. After you believed in Jesus, after you have trusted Him. And He went one step further, He put on me His seal of ownership. I'll tell you, that makes you feel secure. That God has sealed me.

I am His; I belong to God. I have got the seal of God upon my life, His Holy Spirit which He has given to me is God's seal of ownership.

In whom we have been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당신이 예수를 믿은후, 그분을 신뢰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그의 소유물로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당신을 안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에게 속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인치셨고 하나님이 소유의 보증으로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Which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1: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1:14)

Or, it is the down payment.
이것이 보증금입니다.

I put an ad in the paper. I am going to sell my car, and you come along and say, "I like that car. I want to buy it. I have to go to the bank and get the money." And I say, "Do you really want to buy it?" "Yes, I want to buy it, but I have to go to the bank and get the money." "Well, then give me a deposit." "Oh no, no, I will buy it. Just take my word for it."

내가 차를 팔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차 좋으네요. 사고 싶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 차를 사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사겠습니다만 은행에 돈을 가지러 가야 합니다." "그럼, 난 예치금을 주세요." "아닙니다, 아니, 꼭 사겠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No, no. I want a deposit, because someone might come along in five minutes and offer me cash and have the cash on hand, and I don't want to be holding the car for you, because you may change your mind on the way to the bank, or the bank may not give you the money, you see. And here I might turn away a valid buyer, trying to hold the thing for you. So I want a deposit. If you want me to hold this car for you, I want a deposit. You give me the deposit and the car is yours."

“아닙니다,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5분 후에 어떤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면 당신을 위해 이 차를 붙들어 둘수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당신이 은행에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돈을 안 내줄 수도 있고 당신에게 차를 팔려다가 살만한 사람을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이 차를 보관하기를 원하면 예치금을 주십시오. 당신이 예치금을 주면 이 차는 당신의 것이 될것입니다.”

The deposit is what they call earnest money, which means I am really earnest to buy it. I am earnest in my intent to buy your car, or you are showing that you're earnest in your intent to buy my car, as this case happened to turn out. The deposit--it indicates that you are intending to go ahead and complete the purchase.

예치금은 당신이 꼭 사겠다는 보증금입니다. 즉 내가 당신의 차를 꼭 사겠다는 보증 또는 당신이 내 차를 꼭 사겠다는 뜻을 보여 주는것입니다. 예치금은 먼저 당신이 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후에 마무리 짓겠다는 표시입니다.

Now, God has placed His deposit on me. He has purchased me. I have been redeemed through Jesus Christ. He has sealed me, put His mark of ownership upon me, and He has paid the down payment, the deposit, until that day when He takes me into His glorious kingdom and the redemption is complete. You see, this body is not yet redeemed.

하나님은 나에게 예치금을 지불하고 나를 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되었습니다. 나를 그의 소유물이라 표시하셨고 예치금을 내셨으며 구속이 완성되어 그가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인치셨습니다. 보세요. 이 육체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I have a redeemed spirit living in a corrupted body. This body is decaying; it is going to pieces, but I have a redeemed spirit, and I am waiting for the redemption of the body. That is, the new body that I have, 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and therein, when I enter into that new body and am in the presence of the Lord, my redemption at that point will be complete. So in the meantime, that God might show to you that He is earnest and sincere about His purpose in redeeming you, He gives to you the deposit, the down payment of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나의 구원 받은 영이 타락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쇠퇴하고 부서지겠지만 내 영은 구원받았으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 새 몸을 입고 주님앞에 설때 그 시점에서 나의 구속은 완성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하실 그의 예정에 대하여 간절하고 진실하심을 당신에게 보여 주시며 구입하신 소유의 구속이 이루어질때까지의 보증인 성령을 당신에게 예치금 으로 주십니다.

unto the praise of his glory (1:14).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1:14)

One day God is going to complete this transaction of my salvation, when I am there with Him in His glorious kingdom.

그 언젠가 내가 그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속의 절차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Wherefore I also, after I heard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unto all the saints, cease not to give thanks for you, making mention of you in my prayers (1:15-16);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15-16)

This is the first of the two prayers that Paul has prayed for the Ephesians. And the one thing that I like about Paul's prayers is the directness of his prayers. And the thing that I think is a weakness in prayer, many times, is the lack of directness in prayer.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교인들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중 첫번째 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기도를 좋아하는 것중의 하나는 그의 기도가 아주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so often we are praying for things that are actually symptoms rather than getting to the heart of the matter. Here is John; he is having a terrible drinking problem. He has become an alcoholic. "Oh God, help John not to drink anymore. It is destroying his life. He is going down the tubes. He is drinking. God, help him not to drink anymore."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때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증세에 대하여서만 기도합니다. 여기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지독한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존이 술을 끊게 도와 주세요. 술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인생이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마십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 주셔서 술을 끊게 해주세요."

So John becomes a sober sinner, rather than a drunk sinner. What does he gain outside of sobriety? His real need is salvation. But you see, we are praying for the symptoms.

If you went to a doctor who only treated your symptoms, he would be a quack. "Doctor, I have this dizziness and these reoccurring headaches. The pressure seems to build up." "Well, here, take some aspirin." Two months later, "Doctor, the aspirin just isn't doing it. The pressure seems to be greater and I am having these dizzy spells and I am blacking out."

존은 술 취한 죄인이 아니라 술 취하지 않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존이 술을 끊은 것 외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우리는 증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상만 치료하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지럽고 계속해서 머리가 아픉니다. 긴장이 쌓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스피린을 드세요.” 이 개월 후, “선생님, 아스피린으로는 듣지 않는데요. 긴장이 더 해지나 봅니다. 현기증도 있고 기억도 없어요.”

“Well, I will give you some Demerol. You need something more powerful.” And if he only went ahead treating the symptoms while you have a tumor developing in the brain and creating pressure, he is a quack.

“그래요, 내가 데메롤을 드릴게요. 그건 좀더 강합니다.” 만일 뇌 안에서 종양이 생겨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의사는 증상만 치료한다면 그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But so often, as we are praying in situations, we are praying only for the symptoms. We are not getting at the heart. I think it is important in prayer to come directly to the real heart, because as we pray for symptoms, we're so often are just praying that God will correct the symptom, without really getting at the cause.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도하듯 빈번히 증상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쫓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인은 손도 안대고 증상만을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서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ike this fellow that at the Saturday night testimony meeting was talking about how he became entangled in the web of sin this week. “And oh, I was determined to live for Jesus, but sin began to weave its web and I got all tangled in the web of sin and I fell again. Oh, I come tonight and repent.”

토요일 저녁 간증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번 주 자기가 죄악의 거미줄에 말려들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한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는데 죄는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고 나는 죄의 거미줄에 휘말려들어 다시 타락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And every Saturday night say his testimony, caught in this web, and it entangled me and I fell again and all. And so finally, one time the guy was giving his testimony, and another fellow sitting by him, said, "Oh God, kill the spider." That is getting to the heart of the issue.

매 토요일 저녁 그는 죄에 말려 다시 죄를 지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느날 그가 간증하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오 하나님, 그 거미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We deal so often in just the peripheral issues rather than coming to the heart of the problem. Paul in his prayers comes to the heart of the issue. And that is why I love Paul's prayers. What is he praying for them? First of all,

우리는 가끔 문제의 원인을 찾기 보다는 문제의 주변만 다룹니다. 바울은 문제의 중심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unto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17)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any of us can possess is the true knowledge of God. There are so much false concepts concerning God. You cannot know God by searching. That is what the friend of Eliphaz said to Job.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중의 한 가지는 하나님에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서 알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Who by searching can find out God?” You can't. God has revealed Himself, and it is only by revelation that you can really know God, and it is only as the Spirit opens your heart to the revelation that you can really understand God. You cannot in your intellectual quest come to an understanding of God.

“누가 수색하여 하나님을 찾아 낼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시고, 오직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계시에 당신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 탐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t takes a revelation by the Spirit of God.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e Spirit draws him. No man can even understand the Father, the natural man can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God is a Spirit,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truth. That is an impossibility for the natural man.

하나님의 영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이해조차 할 수 없나니 자연인은 신령한일을 이해도 못하고 알수도 없으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것으로만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그것이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It takes the Spirit working in my heart, the Spirit of revelation in the wisdom and in the knowledge, the understanding of God. And Paul is praying that God might reveal Himself to them by the Holy Spirit. That is the only help and the only hope that I have of ever knowing God, is through revelation of the Spirit.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령으로 그들에게 계시해주시기를 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수있는 유일한 도움이요 소망이며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That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once I have come to understand God] being enlightened; that then I might know what is the hope of his calling (1: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18)

Remember the first thing that Paul was excited about, he was chosen in Him. Oh, if you only knew what the hope is for those that God has called to be His children, you would never, never, never have a problem with death again. You would never have a fear of death. You would never grieve for a child of God who died, if you only knew what is the hope of our calling.

바울이 감격했던 첫번째 사실은 그가 주안에서 선택 받았다는 것이었음을 기억 하십시오. 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하신 소망을 알았다면, 당신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다시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면 죽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have such peculiar concepts of death. "Oh, what a shame, he was so young. He had everything going for him, his whole life in front of him. What a tragedy his life was snuffed out so early." That is because you don't know the whole calling of the believer.

우리는 죽음에 묘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거 안됐군, 그 사람 아직 젊은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장래가 창창한데 그렇게 일찍 떠나다니 참 비극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Tragedy for us maybe, because we are going to miss him, but not a tragedy for him. He is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He doesn't have to go through all of the hell and suffering on this earth. Your life on this earth is all of the hell you are ever going to know. For those that aren't saved, their life on this earth is all of the heaven they're ever going to know.

그를 그리워할 우리들에게는 비극이겠지만 그에게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것은 지옥입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더 할데없는 천국입니다.

If you only knew what was the hope of your calling, If you only knew what God has in store for His children. If you only knew the glory that awaits us as children of God. You see, it would correct the false attitude that we have towards the world and the things of the world.

Now, rather than Paul saying, "Oh God, they are getting so embroiled in the world with things, help them to begin to have a distaste and all for those things and all." No, he just prays at the heart of the issue.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것을 예비해 두셨는지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알고만 있다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르게 할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그들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매혹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보다는 그는 문제의 중심에서 기도했습니다.

They don't know what God is preparing for them; they are discouraged because they have lost sight of the glory that God is going to reveal in them. And so he gets right to the heart of the issue, "God, enlighten them as to the hope of their calling. Let them know God, what You have got in store for them. They won't become discouraged anymore, Lord. They only know the glorious things that await them when they get to the end of the road."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실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곧바로 문제의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은 모든것이 끝난 후에야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Alexander the Great was going over the Himalayas as he was moving to conquer India, having conquered the Persian Empire and all of its wealth. And he saw this one young fellow whose horse was heavy laden, and the horse was weakening under the load and beginning to sort of stumble along. And he was doing his best to help the horse, and finally the horse just collapsed.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과 그들의 부를 정복한 후에 인도를 치려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의 말에 무거운 짐이 지어진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약해졌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말을 도우려고 했으나 결국 말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And so this young boy took the load that was on the horse and put it on his shoulders, and he began to strain and struggle with that load. Alexander the Great became curious, what in the world does he have in those sacks that he is trying so hard to carry them on. Why doesn't he just leave them along the path?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은 말에 실었던 짐을 자기의 양 어깨에 메고 힘을 다하여 애쓰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애써서 옮길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그것을 길에 버려 두지 않는가?

And he went up to him and he said, "Young man, what in the world do you have in those sacks that you are trying so hard to get to camp with them?" And he looked at him and he said, "Sir, I bear in these sacks the treasures of Alexander the Great." Alexander shook his head and said, "When we make camp, take them to your tent, they now belong to you." Don't you know, they got a lot lighter. All of a sudden it wasn't nearly as heavy, "Great, now it's mine, wow."

그래서 그는 저에게로 다가가서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그렇게 힘들게 캠프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부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를 바라보며 “각하, 제가 운반하고 있는 부대속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가 야영을 하게 되거든 그것들을 자네의 천막에 가져가게. 그것들이 이젠 자네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훨씬 가벼워 진것을 모르세요? 갑자기 그것들은 그렇게 무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그건 내꺼야.”

The Lord says, "When we make camp it is all yours." The hope of your calling, the glorious, eternal riches of God's kingdom. When I realize what God has waiting for me. I tell you, it gives me the strength, the energy, the courage, all that I need to go on. If you only knew the hope of your calling. If you knew,

“우리가 천막을 칠때 그건 다 네꺼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시는것을 깨달을때 그것은 내가 계속 전진하는데 필요한 힘과 정력과 용기와 모든것을 줍니다. 만일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다더라면, 당신이 아셨더라면,

what we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1:18),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18)

Now this is interesting. Watch out now. He is not talking about your inheritance here. He is talking about His inheritance, and this to me is a mystery.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당신의 이 땅에서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며 이것이 나에게서는 신비한 것입니다.

If you only knew how much God treasured you. I have never thought much of that. I have thought a lot about my treasures in God. But God treasures me? Do you remember Jesus said,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n unto a man going through a field and discovering a treasure." (Matthew 13:44).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배로 삼으신것을 알았다더라면.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 만큼은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보배에 대하여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삼으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것을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14).

Now when you attribute that parable, the treasure turns out to be you. And the person who gave everything to buy the field, the world, in order to obtain the treasure is Jesus. He values you so highly that He gave His life to redeem you, to purchase you. You are His treasure.

당신이 그 비유를 돌려보면, 보물은 당신이 됩니다. 보물을 얻으려고 세상인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서 구속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실 만큼 당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보물입니다.

Peter said, "We are His peculiar treasure," God's treasure. If you only knew how much God treasured you, you would never treat yourself cheaply again. You would never look down at yourself again.

빠드로는 “우리는 그의 특별한 보배” 곧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셨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천하게 다루지는 않을것입니다. 다시는 당신 자신을 경멸하지 않을것입니다.

“Hey, I am God's treasure. I am God's inheritance. God values me. God treasures me, glory.” Personally, I don't think He is getting much of a deal, but I like it that He likes it.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And then if you only knew the tremendous power that God has made available to you, in your life.

“여보게,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와 영광으로 삼으셨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에게 이익이 없는 장사겠지만 그가 좋아하시니 기쁩니다. 그것이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좋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What is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to us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 of that might power (1: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19)

If you only knew the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to you as a child of God. The resources of God are now yours. The strength of God, the peace of God. They all become yours, these glorious resources. “Oh God, help them to realize the resources they have if they will just call upon You.” That power that is available to them.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원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화, 이 영광스러운 자원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당신에게 구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가지게 되는 자원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똑 같은 능력이라는것을 알게 하옵소서.

Which he wrought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t him at his own right hand (1:20),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20)

That same power of the Spirit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the power of the Spirit that dwells in you and is going to make alive our mortal bodies, by His dwelling in us. If you only knew what the exceeding greatness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God. Power available. It has set Christ,

죽은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같은것이며 우리 안에 그가 거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 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것인지를 알았다라면 그 능력을 당신이 활용할수 있을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것입니다.

in the heavenly places, far above all principality, and power, and might, and dominion (1:20-21),

하늘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하는 자와 (1:20-21)

These are rankings of the spirit beings in the universe. Christ is far above all of these spiritual beings, far above every principality and power and might and dominion.

이것들은 우주 안에는 영적 존재의 계급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영적 존재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자들 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world, but in the one to come (1:21):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1:21)

That place and position that God has given to Jesus Christ. As we come into Philippians, we will find that God has also highly exalted Him, given Him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He has seated Him there in the heavenly places, far above, a name above every name that is named.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위치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And he has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1: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1:22)

The authority, the power that He has given to Jesus to reign.

and gave him to be the head over all [power that He has given to Jesus to reign. And He gave Him to be th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1:22),

하나님이 그를 만물 곧 교회에 속한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을 예수에게 주셨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22).

Christ, the head of the body of the church,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Christ,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Every month at our church board meeting we begin the meeting with an acknowledgement that Jesus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We are not there to conduct the business as we see fit, we are there to get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ight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church. We are not there to govern the church, we are there to listen to Him, to find out what He wants done. And we seek His counsel and we seek His advice, for He is the head of all things to the church.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의 머리시며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가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곳에 있으면 주님께서 활동을 지시하실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치하려고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원하시는것을 찾아 내기위하여 거기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모든일의 머리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뜻을 구하고 그에게 충고를 구합니다.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that fills all in all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23)

I am not going to try chapter 2. I am just going to go home and have spiritual indigestion all week. I hope you do. I hope you burp in these scriptures all week long.

2 장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영적 소화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이 구절들을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That God will just bring back to your heart and your mind what you are to Him, how valuable you are to Him, how important you are to Him, how much He loves you, how much He has made available to you, how much He has done for you, just because He loves you with such exceeding great love. And that you might just trust in Him, so completely and so fully that God will just take pleasure and glory in your trust in Him and receive praise and glory because of your total trust in His wisdom as you commit your life into His hands.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당신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에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면 당신의 그의지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과 당신의 삶을 그의 손에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I pray that this will be one of the richest weeks that you have ever had in your walk with Jesus Christ. That you will come to a new appreciation the Holy Spirit and His work within your life, that sealing you, God owns you. That awareness: I am His property.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풍성한 한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성령과 그의 역사하심과 당신을 인치시고 당신의 주인이심을 새로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소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I'm not my own to do with me what I want to do with me. I have been bought with the price; there has been a deposit paid, and I am waiting for Him to redeem that which He purchased. Oh how rich and blessed you are to be a child of God. Nothing in the world can compare with it, the riches of loving Christ Jesus, far greater than gold or wealth, those riches that are yours in Him.

나는 내 자신에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값을 주고 사신바 되었습니다. 나를 사신 분이 예치금을 치르셨고, 나는 그가 구속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일인지, 세상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금보다, 재산보다 훨씬 좋은 그런 소유들이 그의 안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I feel like David when he said, "Lord, what shall I say to these things? I am speechless, God." How can I respond to God when I see all that God has done for me? How do you respond to something like this?

How do you say thank you for these kind of things? Just, "Thanks, God. Appreciate that." Sounds really too trite. How can I do less than give Him my best and live for Him completely after all He has done for me?

내 기분은 다윗이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들은 형용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던 것같이 하나님,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흔해 빠진 인사입니다. 나의 제일 좋은 것은 그에게 드리고 완전하게 그를 위해 살지만 결국은 그는 나를 위해 하십니다.

The natural response is just that total, “Here it is, Lord. Just take it. I give it to You.” In the hope of the calling, riches of the eternal kingdom of God that are mine when You have completed Your redemptive process.

God bless you and anoint you with His Spirit and fill you with His love, crown you with His glory. In Jesus’ name. Amen.

당연한 반응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으세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당신이 당신의 구원의 과정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 왕국의 소유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으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랑을 당신에게 부어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Ephesians 2(Part 1)

Shall we turn in our Bibles now to Ephesians, the second chapter.

Paul is going to talk about someone tonight...very interesting. You! Well, at least you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 For many of you it is your favorite subject. If we were able to take a wide angle lens picture of the service this evening and posted it on the bulletin board, and you went up to look at that picture, who is the first one you would look for? Of course.

이제, 에베소서 2 장으로 넘어갑시다. 바울은 오늘 밤에 어떤 사람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적어도 주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신들 중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오늘 저녁 예배를 넓은 각도의 카메라 렌즈로 찍어서 그것을 게시판에 붙인후에 그 사진을 보러 간다면, 당신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겠습니까? 물론 당신 자신이겠죠.

Paul said. Now notice the words,

hath he quickened (2:1),

Are in italics. What it means is that these words were added by the translators. That they do not appear in the original Greek text in this place. Now, they do appear in the original Greek text down in verse 5, but it does not appear here at the beginning of this text. And so they wrote "hath he quickened" in italics in order to indicate the fact that they themselves added those words. They are not a part of the original text.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유의 하십시오.

살리셨도다 (2:1),

이 말이 *이탤릭* 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들 이 번역가들에 의해 추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말들이 그리스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 이 그리스 성경 원본 5 절에 나오지만, 이 본문의 앞부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 단어들 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살리셨도다"를 *이탤릭* 체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 은 원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Evidently it was just a little bit too heavy. The things that Paul has to say about you, so that they tried to sort of cushion the whole blow by giving you a

peak ahead at what he is going to say about you. But at this point, Paul is just saying, and you

결국 그것은 분명히 비중이 너무 컸던것입니다. 바울이 당신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말에 앞서 정점에 다달아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울은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who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God said to Adam, "In the day that you eat thereof you will surely die." Talking about that forbidden fruit in the Garden of Eden. God was talking about spiritual death. That awareness of God, that communion with God, or that fellowship and oneness that God intended that man should have with God. That would cease, for God is a Spirit, they that worship Him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The relationship with God would cease the moment that man disobeyed the commandment of God, the moment man transgressed. And so "and you who were dead" really as the result of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주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금지된 실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는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워지기를 시도하신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 즉 죄를 짓는 순간에 중단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희의 허물과 죄의 결과로 "죽었던 너희" 가 되었습니다.

The Greek word for sin, *hamartia*, is a word that means "to miss." Our English word *sin* comes from a root "to miss." In fact, it comes from a game in archery that the British used to have. They would put a hoop on a pole, and each man would take his quiver of arrows and shoot his arrows through the hoop one at a time. And so maybe you would have five men in the contest. Each of them with ten arrows, and one after another they would shoot their arrow through the hoop there at the top of the pole. Now, if a man should miss the hoop, then he was called a sinner, you have missed. And he would have to treat the rest of the fellows to the drinks. He was a sinner. He had missed the mark.

그리스 말로 죄 즉 '하말티아'는 '과녁에 빗 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죄' 라는 영어라는 단어는 '과녁에 빗 나가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 이 단어는

영국에서 있었던 궁술대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대에 굴렁쇠를 달고 각 남자 선수들이 전통을 메고 화살을 쏘 굴렁쇠안으로 하나씩 통과하게 합니다. 대회에서 한 팀이 다섯명으로 구성합니다. 한 사람에 열 개의 화살을 가지고 한 사람씩 화살을 쏘 장대 꼭대기에 붙어있는 굴렁쇠를 통과하게 하는 대회입니다. 만일 한 사람의 쏜 화살이 굴렁쇠를 빗나가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리우고, 그사람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술을 사야 합니다. 그는 과녁을 빗나가게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Now, by the very root of the word, it does indicate, which is also true, that it is possible to be a sinner without wanting to be. It is possible that you would be trying very hard to hit the mark. But no matter how hard we may try to hit the mark, none of us have really hit the mark that God has required for man. All have sinned, or missed the mark,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Now, some may have come closer than others.

이렇게 단어의 근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과녁을 맞추려고 대단히 열심히 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녁을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할찌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그 과녁을 맞추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지만 정말 과녁을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기 위한 노력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한 타겟을 아무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고, 타겟에 빗나갔고, 주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가까이 왔을수도 있습니다.

If we decided to go sailing out here in the channel and maybe sail to Catalina, but half way across the channel we sprang a leak in the boat and it starts to go down, and some of you who can't swim go down with the boat. Others who are novices at swimming may swim a few feet and then go down. Some who are strong swimmers may swim for a mile or two before they go under. And there may be a marathoner in the group that will get within a mile of the shore before he goes under. Someone may even make it almost to the pier, a hundred feet off of the pier and gulp, gulp, gulp, you know.

만일 우리가 이 해협에서 항해하러 나가서 카타리나까지 항해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간쯤 갔을 때 배에서 물이 새고 가라 앉기 시작했을때. 그 중 몇 명은 수영을 못하고 배와 함께 가라 앉습니다. 수영에 초보인 몇몇 다른 사람들은 몇 피트 정도 수영해가지만 결국 가라 앉습니다. 그 중 또 몇 명 수영을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은 1 또는 2 마일 정도 헤엄치지만 결국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해안가 1 마일 내까지 다다라서 가라앉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두에서 약 100 피트 떨어진곳까지 와서 물을 꿀꺽 꿀꺽 마시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Now, you have all come short, no one made it. That is what God says about us, you may come closer than others, but we have all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We have all sinned; we have all missed the mark.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That means that we all need help. None of us can make it on our own.

결국, 당신들 모두가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왔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고 모두 목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The mark that God has established for you is perfection. "Be y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Matthew 5:48). Then the scripture says none of you are perfect. Now do you agree with that or not? If you don't, your wife does. All of us have sinned, all of us have missed the mark. Even though we may be trying our best to hit the mark, we've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s the result, the soul that sins shall surely die.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 loss of fellowship with a holy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든 목표는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성경은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인은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모두 목표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죄를 지은 영혼은 정녕 죽을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So, and you who were dead because of your trespasses and sins;

Wherein times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2:2),

당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2:2)

The word *walked* here in Greek is a word that should be translated *meandered*. That is, when you see a person walking you make an assumption he is going someplace and he has a purpose in mind. When you see a person meandering you get the impression he is not really going anywhere and he doesn't have any purpose. He's just sort of wandering, meandering. So this

Greek word *meander* is the word that Paul uses here. It is translated *walk*. But in times past you were just meandering through life. That is, you really didn't have any real eternal purpose. You were really not going anywhere, you were just existing. But there was no real purpose to your life. In times past you meander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The word *course* has its root meaning in Greek *weathervane*. That is, whatever way the wind is flowing, that is the way you turn, that is the way you go. So the flow of the world, you just flowed with it. Whatever was the current fashion. Whatever was the current fad, here I am, flowing with it, you know. Everybody is doing it, get on board.

여기서 단어 “�다”는 “정처없이 거닐었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어디에 가고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처 없이 거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목적이 없이 아무데도 가지않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정처 없이 방황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 단어 “정처없이 다니다”를 여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즉, 우리는 진실로 아무런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아무런 곳으로도 가지않고 그냥 존재하고 있긴하나 거기에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세상 풍속을 따라서 정처없이 다녔습니다. “풍속”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바람개비”라는 근원의 뜻을 가졌습니다. 즉, 바람부는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대로 흘러가는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지 세상의 현대유행이 무엇이든지 그와 함께 흘러갑니다. 모두가 그렇게하니 너도 함께 어울려라.

When I was a small fellow I used to often ask my mother if I could go a certain place. Do a certain thing. And if she would say, "No, son, you can't." I would say, "Why, Mom? Everybody is going. Everybody is doing it." And she used to say, "Son,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f everybody is doing it or not. If everybody is jumping in the fire, are you going to jump in the fire? As a Christian you're going to have to learn to go against the current. Any dead fish can float down the stream, it takes a live fish to swim against the current." I thank God for that good godly advice from my mother.

내가 어렸을 때, 어디에 가서 무얼하려고 하면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곤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아 그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왜요, 엄마? 모두가 다 가고. 모두가 다 한단 말이예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들아, 모두가 다 하든지 말든지 너는 못해. 만약 모두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면, 너도 불 속으로 뛰어들거니? 크리스찬으로서 너는 요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것을 배워야 한다. 죽은 물고기들은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 흐름에 거슬러 오라간단다.’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좋은 충고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n times past we just flowed with the current, the weathervane. As it moved as it meandered. Following the crowd, following the course of the world. Following the fads.

But then Paul gives us an awesome insight, and that is that these fads and fashions of the world are really being directed by none other than Satan.

이전에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람개비처럼 흘러갔었습니다. 군중을 따라, 세상의 풍속대로 유행을 따라 정처 없이 옮겨갔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이러한 유행이나 흐름은 바로 사탄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훌륭한 통찰력을 줍니다.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at even now works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2:2):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Now, there may have been a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at a person would challenge the fact that Satan is behind the course or the flow of the world. I don't think that that would be challenged much anymore. As we look at the course of this world, as we look at the way things are going, as we look at the latest rock stars, the latest idols, they have become quite obvious of the bondage and the chains, and of the cruelty, and of the evil by which they are inspired.

세상의 역사에서 과거에는 사탄이 이 세상의 흐름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에 도전할 사람이 역사적으로 과거에는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사람이 없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최근의 락 스타들이나 아이돌 스타를 보면, 그들은 사슬에 얽매여 있고 잔인하며 사탄의 감동을 받은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In Copenhagen we saw these posters all over town. In fact, I ripped one off and brought it home. I figured it was all right because there were so many around town. I didn't think anybody would miss the one. I really thought it was worthwhile having. I asked the Lord to forgive me. But I ripped off this poster that was there because it was so intriguing. The poster has the picture of a young man, blood all around him, tied with chains, and in big letters, it said, "No escape." That is the message of the young people of Europe today. There is no escape. There is bondage. The world is going down the tube. And there is no escape; that is the world's message to the world.

코펜하겐에서 우리는 이러한 포스터들을 그 도시의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중 하나를 떼어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 전체에는 너무나 많은 포스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 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의 포스터를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정도는 가질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 있던 포스터 중 호기심을 돋우는것을 하나 떼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피가 몸 전체에 묻어있고 체인으로 묶인 젊은 남자의 사진과 큰 글씨로 “탈출구 없음”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의 메시지입니다. 탈출구가 없이 속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헤어날 길이 없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Paul said, "How sha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They should thank God there is an escape, it has been provided by Jesus Christ. The glorious salvation that He has given to us. But outside of Christ the message is true. To those who want to reject Christ, the message is true; there is no escape. Satan is behind the world's fashions, the trends, directing, orchestrating those destructive, damning forces that we see pervading our society. The increase of immorality, the increase of pornography, the acceptance of abortion, and homosexuality, and these other trends that we see, Satan is behind them orchestrating as he is leading the world to hell. And we at one time were following that course,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s, living an aimless life without purpose as we follow the trends that were being set by Satan. What a sad and tragic picture of man apart from Jesus Christ.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할 길이 있는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할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할길이 없다는 메시지가 진실한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세상의 유행이나 추세나 방향이나 파괴적이며 저주하는 능력을 조종합니다. 부도덕과 음란한 잡지는 증가하고 낙태와 동성애의 허용하는 이와 같은 추세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조절하는것입니다. 우리도 한 때는 허물과 죄로죽었고 세상을 따랐으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추세를 따라갈때 우리는 목적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슬픈 비극인지 모릅니다.

It is interesting to me how that so often people fear the will of God. Having walked in the will of God, I cannot understand why any man would fear it. But Satan has so lied to people about God, about the nature of God, that it has caused people to oftentimes fear submitting their lives to God.

나는 사람들이 빈번히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것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것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고 그것이 그들로 빈번히 하나님께 복종하는삶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Now,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in church, so many times I would hear people say, "You be careful what you say you are not going to do, because that is exactly what God is going to make you do. The boogiemán will get you, you know." And God was almost a boogiemán to us. Just waiting to prove us wrong. You say you are not going to do something, well, you just wait, you know, the moment you yield your life to God, that is exactly what He is going to make you do. And I was fearful of yielding my life to God. There was a lot of things I didn't want to do. And I was fearful that God was going to suddenly start making me do all of these distasteful things that I said I would never do.

내가 어려서 교회 에서 자랄 때, 나는 사람들이 “너는 네가 하지 않을 행동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네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말한것을 그대로 하도록 만드실테니까. 너도 알다시피, 부기 맨이너를 찾아 올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거의 부기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틀렸다는것을 증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삶을 그에게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정확히 그 일을 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싫어하고 결코 하지 않겠다던 모든일을 다 하도록 하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What if my son should come to me, and say, "Dad, I have been thinking, I really had a good life, you have always provided a roof over my head, you have always provided food on the table, I always had clothes to wear. And I really appreciate all that you have given to me, Dad, and all that you have done for me. And to show my appreciation, Dad, I just thought that today I would come over and just do whatever you would like me to do for you. Any task that you may have around here, I just would like to spend a day with you, Dad, doing whatever you'd like for me to do." Now, as a dad, do you think that suddenly I would think, "All right, I have got this kid now where I want him. Boy, I had the worst time with him trying to get him to hoe weeds in the backyard." I would say, "Okay, start out in the back yard, that weed patch back there. When you are through with that, wash out the garbage cans." And you think that I would think of every dirty, miserable task around the house and send him to do them? Well, if you think I would think that, you don't know me. I tell you, I would be so shocked if I had one of my sons come and say something like that to me. But

pleasantly shocked, that I would want to make that one of the greatest days of his life. A day he wants to share with his dad. Well, why don't we head on down to Huntington and let's spend a little while surfing. And then maybe we can do a little water skiing in the afternoon, and I would be looking for those things that we could really enjoy together. I would be so pleased that he is wanting to do something to please me. I would want to make it a great day.

만약 내 아들이 와서 “아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난 행복한 삶을 살았고, 언제나 살 집을 마련해 주셨고, 먹을 음식을 마련해 주셨으며, 항상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내게 주신 모든 것과 저를 위해 해 주신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빠,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아빠에게 와서 제게 원하시는 어떠한 일든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아빠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단지 아빠랑 하루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빠로서 갑자기 생각하기를 “좋아, 내가 하고 싶은대로 이 아이에게 시킬수 있어. 내가 이 아들에게 뒷마당에서 잡초를 캐 내는일을 시키는게 내게 최악의 시간이었어.” 하고 생각할수있습니다. 나는 “좋다, 뒷 마당에 있는 잡초 받부터 시작해라. 일이 다 끝나거든 쓰레기 통도 씻어 놓아라.” 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 있는 모든 더럽고 구질구질한 일을 모두 아들에게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글썄,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당신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말하건데, 만약 내 아들 중 하나라도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아주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을 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 중 하나로 만들어 주고 싶으며 그것은 기쁜 충격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 하루는 아들이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날입니다. 헌팅턴 비치에 가서 파도를 타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오후에 수상 스키를 좀 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참으로 즐길수 있는것을 찾아 볼것입니다. 그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무엇하기를 원하는것이 나를 한없이 기쁘게 할것입니다. 나는 그 하루가 정말 훌륭한 하루가 되기를 원할것입니다.

Now, do you think that our Father is any different? Do you think that when you finally come and say, "Father, I do realize You have been good to me, You have done so much for me. You have blessed me so much, I just want to do whatever You like me to do today, Father. I would like to just commit to You." Somehow we have an impression that God is going to just get all of these dirty, nasty things that we have said we would never do and say, "All right, start here." And God is going to lay some heavy, heavy trip on us just because we submitted ourselves to His will. Not so. You don't know the heavenly Father. You have got a wrong and blasphemous concept of God. Who just delights to spend pleasant days together with you. Who is delighted when He sees you happy and joyful. Who wants to see you enriched in all things in Christ.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당신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당신이 내게 너무 잘 대하여 주셨고 많은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복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신이 제게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단순히 말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인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 여기서 시작해라” 하고 말씀하실분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겼으니 그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것이라는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되고 불경한 개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좋은 날들을 같이 보내기를 즐겨하시고 당신이 행복하고 기뻐하는것을 볼때 기뻐 하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안에서 모든것에 부요해지는것을 보고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Now on the other hand, Jesus said concerning Satan, "That he is come to rob and to kill and to destroy." Satan's purpose for you is your destruction, and so as he is guiding the course of the world, it is a destruction derby. It is a course that is leading to destruction. And yet, people so blindly flow along with it. No worries, no concerns, no consideration, "Talk to me later, man, I'm having too great a time." No time to worry about where the path, the flow is leading. And they seem to have no qualms yielding and flowing with the will of Satan, which will lead to their ultimate destruction. Whereas you talk about so many who say, "When I get to my death bed, maybe, you know, I will consider turning my life over to Him. Now I am too busy. I am having fun. I don't want to commit myself to God." And what a wrong concept people have of what it means to surrender your life to the will of God.

반면에, 예수께서는 사탄에 관하여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탄의 목적은 당신을 파괴하는것이며 그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인도할때 그것은 멸망으로 이끄는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길이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장님처럼 함께 따라갑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생각하지말고 “이 사람아, 나중에 얘기해, 나는 너무 즐거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걱정할 겨를도 없이 흐름이 이끄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최후의 파괴로 이끄는 사탄의 뜻대로 따라가는 듯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임종에 가까우면 아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무슨뜻인지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once a person does, they find as Jesus said, "I delight to do thy will, O Lord." It becomes the pleasure, the delight, and the thrill of our lives. Now, the other people looking at us can't understand that, because they don't know what is going on inside. "You mean you go to church on Sunday evening and you listen to a Bible study? Man." And they don't know the joy that we hav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s we worship Him and as we sing unto Him our love and our praises and our thanksgiving. And then, as He begins to minister His truth to our heart, and He begins to really speak to us, they don't understand that thrill of God's Word really ministering to our lives and to the things of our lives. And so, looking from the outside in, they can't understand, but once we are on the inside walking in fellowship with God, experiencing His presence and His joy, we understand what it is all about. And it is just a joy and a pleasant delight, to gather with God's people and to just experience God's love and the love within the family of God. And the warmth of God's truth as it just bears witness to our spirits.

But Paul said that we were all once in that boat where Satan was guiding, leading to a shipwreck.

그 뜻을 알기만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주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며 삶에 스릴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찬양과 감사를 노래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목전에서 갖는 기쁨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스릴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단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임재와 기쁨을 체험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사탄이 인도하여 파선으로 이끄는 배를 탔었다고 말합니다.

Among whom also we all had our conversation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2:3)

Now the word *conversation* is an old English word, and we have a new definition for that word today. Conversation, we are talking with each other. This old English word *conversation* doesn't really give you the true meaning of

the Greek word, which is our manner of living. It isn't just our talking, it is our whole manner of life. "Among whom we all had our manner of living, or our lifestyles in times past." What was our lifestyle? Or, what was the manner of life that we lived? What kind of a life were we living? We were living

여기서 우리의 생활방식을 말합니다. 말하는것이 생활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어의 진정한 의미는단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혹은 과거의 우리 생활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방식은 어떠했습니까? 혹은 우리가 살아온 생활의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in the lust of our flesh, as we were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s we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the others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었더니

That is, we were living by the lower nature, the animal nature, living after the lust of our flesh, and the lust of our minds. These are the things that were the motivation behind our lives. These are the things that governed our lives in the past. My life was ruled and dominated by the lust of my flesh and by the lust of my mind. I spent my life trying to satisfy my fleshly desires.

즉,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을 좇아서 동물적 본능 즉 천한 본성에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의 배후에서 동기를 주는것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에 의해 다스려 졌고 지배되었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욕망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We read concerning Solomon the king, as he was trying to find meaning in life how that he pursued so many different directions. First of all, he thought that it must lie in riches, which often many people feel. And so he began to amass to himself wealth until he wa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and silver was as common as rocks in Israel. And if you've ever been to Jerusalem, you know how common rocks are around that city. It is the rockiest city in the world.

Imagine in Solomon's day when silver was as common as rocks. And he said, "I looked at all of the wealth and I said, 'How dies the rich man like the fool, this is emptiness.' And so I gave myself to understanding and to wisdom, I said, 'The answer must lie in knowing,' and so I applied myself to wisdom until I was the smartest man in the world. How dies the wise man as a fool, this too is empty, it doesn't satisfy. And so I said, 'It must lie in leaving great monuments,' and so I applied myself to building, and I built all of these great monuments around Jerusalem, and when I looked at all of these great buildings and all I said, 'This too is empty; it doesn't satisfy.'" Until he finally concluded that life was empty and frustrating, there was nothing worthwhile under the sun, that is, after it says, "and all that I did not withhold from myself anything that my heart desired." You see, after the total indulgence of the lust of his flesh, not withholding anything from himself, he came to the conclusion life is empty and frustrating; there is nothing worthwhile under the sun. Sort of concluding, you might as well bomb out and stay drunk, there is nothing else, too much pain to try to face reality.

우리는 솔로몬 왕이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추구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의미는 재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때까지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서 은은 돌처럼 흔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 본적이 있다면 그 도시에 돌이 얼마나 흔한 가를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돌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은이 돌처럼 흔했던 솔로몬 왕의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내가 모든 재물을 바라보았고 말하기를 '부자도 우매한자 같이 죽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고 했다. 그래서 나는 명철과 지혜를 전념하였으며 '해답은 지식에 있다' 고 하였노라. 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때까지 지혜를 몰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우매자 같이 죽으니 이것도 헛되며 만족을 못준다고 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그것은 틀림없이 훌륭한 기념비를 남기는데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주변에 건물을 짓고 이 모든 거대한 기념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들을 볼때 나는 '이것도 헛되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생은 허무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마지막 결론을 맺기까지 해 아래는 가치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그후에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원하는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다음에 인생은 허무하고 좌절케 만드는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 아래는 아무것도 가치있는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탈진하여 주정뱅이가 될수도 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현실을 직면하기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Sort of the philosophy that a lot of people have taken today. They have tried everything. They have jaded themselves. They have run the full ten yards, it is still empty. You might as well just, you know, get into a fuzz of drugs or into

the folly of liquor, because there is no sense in trying to be sober. Reality is hopeless. Isn't that what existential philosophy pretty much declares? That reality will lead to despair, therefore you cannot face reality. You have got to take the leap of faith into the second story and hope that you land on something.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자신들을 매우 지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할수있는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도 헛된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차라리 마약을 해서 몽롱해지거나 술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존철학이 외치는것 아닙니까? 그 현실은 절망으로 이끌어 가고 그러므로 현실을 직면할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믿음의 도약을 해서 한층 더 높은곳으로 가야하며 어딘가에 도달하리라는 소망을 가져야합니다.

You have got to just hope that you can have some kind of satisfying experience of truth. Because if you face reality, truth doesn't exist, and thus you will only end in despair. There we were, tripping right along with the crowd, as they were trying to satisfy the lust of their flesh, and the lust of their mind. For we were by nature, that is, we were doing what comes naturally to the fallen man. "We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The fallen nature of man, which is dominated by his flesh, and thus is ruled by his fleshly desires. That is the natural man, apart from Jesus Christ, and you, black is this picture that Paul paints of you and of me.

당신은 만족스러운 진리의 체험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현실을 직면했는데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망으로 끝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으로 꽂 차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할때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자연적스럽게 행하는것이 타락한 인간의 행실입니다. "우리는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그의 육체의 지배를 받아 육체의 욕망에 지배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자연인이며 바울이 그린 당신과 나의 모습은 검정 색깔입니다.

Now he takes this canvas in which he has painted all of this charcoal slate black, and he begins to splash on it some brilliant colors.

But God (2:4),

바울은 이 캔버스를 취하여 숯같이 검은 색깔로 전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약간의 찬란한 색깔들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But god (2:4),

그러나 하나님이 (2:4)

In contrast to the blackness of my own past, now God

나의 어두웠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하나님은

who is rich in mercy (2:4),

금홍에 풍성하신

Brilliant colors flashed across this black background.

찬란한 색깔들이 어두운 바탕에 번쩍거렸습니다.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sins (2:4-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God commended His love towards us eve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God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does not perish but has everlasting life. "But God, rich in His mercy, in His love wherewit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s." When did God start loving you? So many times we think that God started loving us when we started being loving. When we started being sweet and kind, and you know, generous and good, and when we started just living such a perfect life, God said, "My, isn't that lovely? Aren't they perfect? My, I love them." When did God start loving you? When we were still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s God loved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금홍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관대하며 선하게 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 사랑스럽지 않은가? 그들이 완벽하지 않은가? 오, 참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언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에 죽어 있었을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God has loved you from eternity,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God didn't love you. There will never be a time when God doesn't love you. But God who is rich in His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has made us alive. Now it is here in the Greek text, finally we have got it.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성경 원본에 있으며 드디어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he ha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for by grace you are saved;) (2:5)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것이라)

So I was once dead because of the trespasses and sins, but through Jesus Christ God has provided the forgiveness of my trespasses and sins. So with the psalmist in Psalm 32, I can say, "Oh how happy is the man,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Oh how happy is the man whose sins are covered. When I tried to hide my guilt I was miserable. The hand of God was heavy on my life.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But then I confessed my sin and God forgave me my sin completely. Oh how good it is to have God's forgiveness. Oh how happy is the man."

이전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 편에서 시편 기자는, "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운을 받은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죄를 감추려고 했을 때 나는 비참했도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나는 죽음이 닥쳤다고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God provided the way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having forgiven us our sins we became alive in the spirit, or were born again. Our first birth, the natural life was of the flesh. I was born in a body of flesh, and from the

beginning my fleshly appetites were dominating me. I was a pretty good little kid until my fleshly appetites took over, and then I began to yell until they took care of feeding me. And sometimes if they didn't feed me when I wanted to be fed, I would flail and kick and scream and holler. I was a natural man, dominated by my fleshly needs. Some people never grow beyond that stage. They are still natural men, dominated by their fleshly needs, and if they don't find satisfaction they scream and holler and yell and flail and kick.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중생하여 영적으로 살게되었습니다. 우리의 첫출생은 육신의 삶인 자연인의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육체로 태어났고 처음부터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였습니다. 내 육체적인 욕망이 지배하기 전에는 나는 착한 아이였으나 그 이후에는 배고프면 나는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할 때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 나는 때리고 차고 소리치며 투덜댔습니다. 나는 육신의 필요에 지배되었던 본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이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육체적 욕망의 필요에 지배를 받는 본능적인 사람이며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들은 소리지르고 때리고 투덜대고 차곤합니다.

But I was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a spiritual birth. A new life, I no longer relate back to Adam, my father after the flesh. But I now relate back to Jesus Christ, my Father after the Spirit. I have been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now this spiritual birth, my spirit is now alive, and with my spirit alive I now have fellowship with God. I have been joined back together with God through the Spirit. And His Spirit is bearing witness with my spirit that I am His child, and because of His Spirit bearing witness with my spirit I cry Abba, I cry Father. Very naturally. And I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육체의 욕망을 쫓았던 나의 조상 아담과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난것입니다. 이제 내가 영으로 탄생했으므로 내 영이 살았고 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영은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아주 당연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And so He has made us alive, alive spiritually, for by grace are we saved. That is, we don't deserve it. That is, we can't earn it. There is no work that you can do that can make you alive spiritually. That is not the result of some great

effort on my part. That is not the result of killing the seven-headed dragon and grabbing the three golden apples. But it is by grace, God's glorious gift of love to me. By grace are you saved.

Now, not only has He made me alive,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벌어 드릴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이룬 훌륭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곱개의 머리가 달린 용을 죽이고 세 개의 금 사과를 얻은것에 대한 댓가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은혜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But he has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Or in the heavenlies. You notice *places* is italicized.

So it's far more than just saving me from my sins, it is making me alive unto God and then raising me up into the heavenly levels. Where God now seats me together in Christ in these heavenly places, or in the heavenlies. This new walk and life that I have in the Spirit, this resurrected life of Jesus Christ. The purpose:

혹은 하늘에.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는 장소를 나타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능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이러한 하늘에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리를 같이하실 하늘 나라의 수준까지 나를 올리시는것입니다. 성령안에서 가지는 행함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삶과 같습니다. 그 목적은:

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show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and his kindness toward us, through Christ Jesus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Now, notice verse 5, "with Christ," verse 6, "in Christ Jesus," verse 7, "through Christ Jesus." All of these things that God has done, He has done for us, in, and through, and by Jesus Christ.

이제 주목 하십시오, 5 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6 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신 것입니다.

Now the glorious future that awaits us, as Paul prayed in chapter 1, and we studied last week. He prayed that they might know what is the hope of their calling. God has called you to be His child. You know what that means? That means throughout the endless ages to come you are going to be dwelling with God in His eternal kingdom as God is revealing unto you the exceeding richness of His mercy and of His kindness towards you through Christ Jesus.

일장에서 바울이 기도할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장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공훈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면서 그의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세세토록 살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The psalmist said, "As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so high is God's mercies towards those who fear Him." And God throughout eternity is going to be revealing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mercy and of His kindness, these things that He has given and provided and done for you through Jesus Christ. You will never discover it all. Eternity isn't long enough. Throughout all eternity, God's grace and love and mercy being revealed.

시편기자는 말했습니다, “땅 위에 하늘이 높은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높으시도다.” 그리고 영원을 걸쳐서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그의 공훈과 인자하심을 나타낼것이며 이러한것들을 당신에게 주셨고 공급하셨으며 또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것 전부를 발견하지 못할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하면 영원도 부족할것입니다. 영원을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훈을 나타내실것입니다.

For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3:8):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것이 아니요*

What not of yourselves? Faith. You say, "Well, I believe God. Look at me, I believe." No, no. That not of yourself, the faith didn't come from you. Even the faith

무엇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좀 봐. 나는 믿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오는게 아닙니다. 믿음이 당신에게서 나온것이 아닙니다. 믿음 조차도

was the gift of God (2:8):

하나님의 선물이라

Do you remember when the Midianites had covered the land like grasshoppers? Were ripping off the crops from the children of Israel, they were hiding their food in caves and all. And Gideon was in a cave as he was threshing the wheat to hide from the Midianites, and the angel of the Lord came to him and said, "Gideon, go and deliver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oppression of the Midianites." And he said, "Who are you? And you have got the wrong address. My father is a nobody and I am the least in my father's household. You can't be meaning me." And the Lord said, "Yes, I do mean you." "Well, I would like to know that for sure. Let me put out a fleece of wool. And in the morning if it is wet and the ground is dry, then I will know that it is you." And so in the morning when the fleece was wet and the ground was dry, he said, "Now I want to make sure about this. Tomorrow morning let the ground be wet and the fleece dry." I might be stumbling onto a phenomena of nature that I don't understand. But the morning when it was reversed, then he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it was God.

당신은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육지를 덮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농작물을 빼앗아 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동굴에 모두 숨겼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로 부터 숨어 동굴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기드온,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박에서 구원하라"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무 명망도 없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것이 진실일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렇다, 바로 너를 말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놓겠나이다. 만일 아침에 양털은 젖었고 땅이 마르게하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참인줄 알겠나이다." 그래서 아침에 양털은 젖었고 땅이 말랐는것을 보고 그는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땅은 젖고 양털이 마르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그것이 뒤 바뀐것을 보고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 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d he blew the trumpet in Israel and gathered together 32,000 men to face the 135,000 Midianites. And God said Gideon, "The men that are with you are too many, because I know the heart of this people. And if I would deliver the Midianites into the hands of the 32,000, they would go around glorying in themselves. So go out and tell all of the men who are afraid to go to war to go home." Gideon went out and faced his troops and said, "All right, all of you that are afraid to go to battle, you can go on home." Twenty-two thousand of them turned on their heel and left. Left him with 10,000 men to face the 135,000 Midianites. And the Lord said, "Gideon." "Yes, Lord." "The men that are with you are too many. I know the heart of this people. If I would deliver the Midianites in the hands of the 10,000, they would go around boasting in themselves and glorying in themselves. Take them down to the stream and let them get a drink of water. And all of those that get down and put their face in the water, send them home. Those that pick it up in their hands and drink out of the hands, then with these will I deliver the Midianites into the hands of Israel." And Gideon took them down to the stream and 9,700 of them got down on their knees and put their face in the water and began to drink and 300 of them picked it up in their hands. And so Gideon took the 300. Now, what was the purpose of God? To keep the men from glorying or boasting in what God was going to do.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었고, 32,000 명을 135,000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만약 미디안 사람들을 32,000 명의 손에 붙인다면, 그들은 그 자신들을 자랑하며 두루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전쟁에 가기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말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나가서 군대를 향하여 "자, 이제, 이 중 전쟁에 나가기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2 만 2 천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135,000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 위한 만 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드온"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 주님" "너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안다. 내가 만약 미디안 사람들을 만 명의 손에 붙인다면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뽐내면서 자신들을 자랑할 것이다. 그들은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해라. 그 중 몸을 굽혀 얼굴을 물 속에 담그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러나 그 중 그들의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내가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부치겠노라."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에 데려갔는데 그 중 9,700 명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얼굴을 물 속에 넣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중 300 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 명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을 구하고 뽐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Ephesians 2 (Part 2)

God has done a wonderful thing for us. He has brought us salvation and eternal life and He doesn't want us boasting in what we have done. In fact, He doesn't want any flesh to glory in His sight. So even the faith by which we are saved God gives to us as a gift. So I can't even boast about my believing the truth of God. "Well, the truth came to me and I examined the truth, and I decided I am going to believe it." Nope,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f. It is a gift of God."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 그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그는 어느 누구도 그의 앞에서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조차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내게 다가왔고, 그것을 시험해 본 다음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It is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2:9).

행위에서 난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You see, God knows the tendency of our old nature to want to receive glory. That's a part of that sinful nature, that is the very thing that tripped up Satan. "I'm going to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heaven. I'm going to sit in the congregation in the sides of the north. I'm going to ascend into the heights.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I want people to recognize and worship and glory in me."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Isaiah 14:12) Who did exalt thyself," looking for glory.

보다시피,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을 잘 알십니다. 그것은 죄성이며 그것은 사탄이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못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는 북극 집회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자와 비기리라. 못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경배하며 영광돌리기를 원하노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12)

God knows that is a part of our nature, and therefore He placed salvation outside of our capacity, outside of our ability. He made our salvation on the basis of His grace, His work, His work through Jesus Christ and my believing that work. And then He gave me the faith to believe it. He drew me unto Himself, placed the faith in my heart to believe His truth, and granted unto me through His grace this glorious gift of eternal life. "For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That faith by which you were saved. "It is not of works, [your salvation,] lest any man should boast."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본성의 한 부분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의 한계 밖에 구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과 그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게 그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으며 그의 은혜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신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당신의 구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For we are his workmanship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The Greek word translated *workmanship* is *poiema*, from which we get our English word *poem*. You are His work. You are His poem. A poem is a thing of grace, a thing of beauty. God wants your life to be a thing of grace and a thing of beauty. And as God works in your life, it will become a thing of grace and of beauty; you are His poem.

"만드신 바"란 말은 그리스 단어 포이마(*poiema*)에서 번역된 말로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시(*poem*)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그의 시입니다. 시는 은혜와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인생은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시입니다.

The poet seeks to express Himself in beautiful terms. He seeks to express beauty in attractive terms. God is seeking to express Himself, and your life becomes that expression as God works in you. You are His work, as God works in your life conforming you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you then become the revelation of God to the world around you--the expression of God.

시인은 아름다운 말로서 그 자신을 표현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단어들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은 주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실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Jesus, it says, was the express image of His glory. He said one day to His disciples, "If you have seen the Father you have seen Me," or...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rather. Philip said, "Show us the Father and we will be satisfied."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How sayest thou then, 'Show us the Father'? Don't you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And the works that I do, I do not of Myself, but of the Father that dwells in Me, He doeth the works. Believeest thou then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for the very works' sake" (John 14:8-11).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형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보았느니라." 또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것을 믿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 14:8-11)

So God wants you to be the expression of Himself to this world. And that is the purpose of God's work in your life, to conform you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Now, as we get to the fourth chapter of Ephesians, Paul will tell us that God has appointed in the church pastor-teachers, evangelists, prophets, apostles, and not in that order. He put pastor-teachers last, but I like to reverse the order since I am a pastor-teacher.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 장에 들어 갈때 바울은 하나님이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교회에 목사-교사, 전도자, 선지자, 사도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제일 마지막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목사님-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꺼꾸로 바꾸고 싶습니다.

But their purpose was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until we all came into the unity of the faith,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unto the complete or fully

mature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the image of Christ. You see, this is God's work in you: conform you into the image of Christ.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시다시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안에서 하시는 일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것입니다.

Paul, writing to the Corinthians, said, "We all, with open face as we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changed from glory to glory even into that same image" (II Corinthians 3:18). God expressing Himself through you as God knocks off the rough edges and as God smoothes out those rough spots. His whole purpose of His work in my life is to conform me into the image of Christ, that He might reveal Himself through me to the world. His love through me, His grace through me, His kindness through me.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하나님은 당신의 거친 언저리를 깎고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내 삶에서 그가 역사하시는 전체적인 목적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보여주는것입니다.

Now, a lot of the times as God is doing His work in me and He begins to chip off some of those clumsy edges, I begin to scream. I don't always like that work of God. But it is important that I submit to that work of God. I don't always understand it, "Lord, why did You chip that one off? I thought that it looked pretty good." I don't always understand why certain hard places have come into my life, but God is working. It is important that I know this. Because as I know this, then I can yield to these things, and I don't fight them. I say, "Lord, my life is Yours." If any man suffer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let him commit the keeping of his soul unto Him as a wise Creator. "God, my life is in Your hands. You do what You know best and what You see best. Lord, I accept these things that are coming my way. You work, Lord, Your work in me, that You might reveal Yourself through me."

You are His poiema.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맏시 없는 가장자리를 깎아 내리기 시작할때 많은경우에 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맡기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언제나 이해하는것은 아닙니다. “주님, 왜 그 부분을 짊어지십니까? 저는 그것이 참 보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지 힘든 입장이 항상 알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아는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실을 알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양보할 수도 있고 그것들과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제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에 의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의 영혼을 지혜로운 창조자인 주님께 맡기게 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에 가장 좋고 가장 좋은것을 아시는 주님이 역사하여 줍소서.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낼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 하시옵소서.”

당신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created in Christ Jesus unto good works, which God hath before ordaine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2:10).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선한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자니 이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하심이나라

God has already determined, foreordained, that work that you are to accomplish for His glory. God has a plan and a purpose for your life.

하나님은 당신이 그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벌써 결정하셨고 그것을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You remember when Mordecai sent the message into Esther after she had said, "I can't just go in and see my husband any time I want. We have got laws here in Persia, and unless he calls me, I really can't go into see him. And if I would presume to go in and see him, if he doesn't hold the golden scepter, they will take my head off." And her cousin Mordecai sent back a message and said, "How do you know but what God hasn't brought you into the kingdom for such a time as this?" The whole background, the beauty contest where she was chosen to be the new queen, the deposing of the old queen Vashti and all of these circumstances. "How do you know that God isn't working and hasn't been working all of the way through up to this point to prepare you for this precise moment in history to bring deliverance for God's people? Now don't think within yourself that if this edict goes through you are going to escape, or that the edict can actually go through, for deliverance will arise from another quarter, God is going to do His work." But you will be the loser if God has chosen to use you to do that work and you fail.

당신은 에스더가 “나는 아무때나 내가 하고싶다고 들어가서 내 남편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페르시아있어 그가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보러 들어간다면 그가 금홀을 들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일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들여보낸 때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너로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전체적인 배경은 미녀 대회에서 그녀가 새 왕후로 뽑힌것과 늙은 왕후 바스다가 폐위된것과 이러한 모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역사의 정확한 순간을 위하여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지 않았음을 어떻게 압니까? 만일 이 조서가 나가면 당신이 도망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조서가 나가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그들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마음속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당신을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당신은 패자가 될것입니다.

So God has been preparing you. How do you know but this isn't what God has been preparing you for? As God works in our life, we can know that God has a purpose and a plan. He doesn't just work happenstance in us. It isn't just some kind of a capricious act of God that I have been through these severe testings or trials. It is a part of God's plan in preparing me to do the work that God has already decided that I should do for the glory of His kingdom.

주님은 당신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때 우리는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연한 일을 하시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겪어온 혹독한 시험이나 시련들이 주님의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해놓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So I can look back in my life and I can see how God was preparing me and working in me to prepare me for this place that I am today. I can go back, all the way back, actually, to my birth and even before my birth, to see how God had His hand upon my life even in the prenatal state. As He was preparing me for the work that He wanted me to accomplish for His glory some day. I can see that preparation in my early childhood as God gave me such a godly mother, who before I was born, when my sister, for all practical purposes, had died, made a covenant with God and said, "God, if You will spare my little daughter's life, if You will give me my little girl back to me, I will serve You and minister for You the rest of my life." And how God miraculously healed my sister instantly and brought her back to life, she started breathing again. And two months later when I was born, my mother said, "Father, I will fulfill my vow to You through my son. I will dedicate him to serve You."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아주 멀리, 내가 태어날 때와 심지어 태어나기 전까지 주님이 어떻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올 그의 영광을 내가 성취하기를 바라시기에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나는 그 준비를 내가 어릴 적 주님이 내게 참으로 경건한 어머니를 보내주셨을 때부터 볼 수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누나가 그 참 목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제 딸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제 딸을 돌려 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섬기며 제 평생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누나를 기적으로 단번에 낮게 하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녀는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제가 한 서약을 이행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도록 그를 바치겠습니다.”

Thus, from my earliest memories my mother was teaching me to memorize the scriptures. Following me around when I played, she let me be a normal boy. Play ball and everything else, but as I was a child she would follow me around having me recite scriptures. Bedtime I never heard of Goldilocks or Red Riding Hood until I grew up. But I knew all about David, and Moses, and Joshua and Paul. These were my bedtime stories. God was preparing.

그래서 나의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성서를 외우도록 가르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놀 때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내가 보통 아이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공놀이도 하고 다른 모든 것도 했지만 내가 어릴때 어머니는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성서를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잠잘 때도 나는 **goldilocks** 나 **red riding hood** 를 잠들기 전까지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는 다윗, 모세, 요셉과 바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잠잘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Our early years of ministry, those times of great frustration, those times of failure, those times of hardship, those times of learning to trust God for the evening meal. When we would be absolutely, that is an overstatement, when we would be almost broke, because one night when we came right down to it, we were almost broke. We went through Kay's purses and my pants pockets and our dresser drawers, and we did find thirty-seven cents. And we headed out to the store with thirty-seven cents to buy our evening meal.

많은 좌절과 실패와 고난과 배움의 시기인 목회의 초기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 주님을 의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무일푼 상태였고 어느날 저녁엔 정말 무일푼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제 아내(**kay**)의 지갑과 내 바지 주머니와 옷장을 뒤져 37 센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37 센트를 가지고 시장으로 저녁 식사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Challenged by how nutritious a meal that we could purchase for thirty-seven cents. How balanced and nutritious, it was a real challenge, and we made it. We had a bunch of carrots and a can of pork and beans. And when we laid them on the counter the guy totaled them up he said, "Thirty-seven cents." I had it figured out. I laid the cash on the counter and we started out the door. And he called us back, and he said, "I am sorry. I have been intending for a long time to do something for you kids, and here, I want you to take this," and he reached under the counter and gave us a ten dollar grocery certificate. I told Kay, "Let's go over to the meat counter." And I said to Kay to pick out two of the best t-bones, God is treating tonight. We are going to eat steak.

37 센트로 얼마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살 수 있을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균형도 맛도 영양가도 있는 음식을 사는것은 진정한 도전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근 한 묶음과 돼지고기와 콩이든 한 깡통을 샀습니다. 우리가 계산대에 그것들을 올려 놓았을 때, 계산하는 남자 직원이 계산하면서 "37 센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 계산을 다 했기때문에 카운터에 돈을 놓고 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우리를 다시 부르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여기 이걸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카운터 밑에서 10 불짜리 식품권을 꺼내 주었습니다. 나는 케이(kay) 에게 "고기 판매대로 가자." 고 말하고, 가장 좋은 티본 스테이크를 2 개를 골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위해 스테이크를 사주시니 우리가 먹겠습니다.

God was in it. God was preparing us to trust Him for the evening meal. Preparing us to just believe in Him and to know that He would supply the needs. Teaching us to be careful and frugal with His funds. Teaching us to be wise and careful as we spent His funds. All of it was important and necessary preparation, for God had in mind the whole while the ministry that we are experiencing today. I didn't have any idea what God had in mind. I had ambitions; hopefully one day I would have a church of 250 people, that was my great ambition in life. I was tired of little churches of under a hundred, because they could never support the needs of the family. So I worked as Paul, laboring with my own hands so that we would not be chargeable to the churches.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분만을 믿으면 그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것을 알도록 우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가 주시는 자금을 가지고 소박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의 자금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사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시키시는 중요하고도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250 명의 교인의 교회를 가지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내 생애에 큰 야망이었습니다. 나는 100 명 이하의 교인인 작은 교회 생활에 지쳤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의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교회에 신세를 질 수 없어서 내 손으로 직접 일을 했습니다.

When we first began Calvary Chapel we worked, laboring with our own hands. And I was prepared to continue to work, but God had other things in mind--far and above anything we had ever dreamed. The work that God has in mind for you to do for Him.

우리가 처음으로 갈보리채플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않았던 다른 놀라운 일을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당신이 그 분을 위해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Now, I do believe that we can check out of God's program if we desire. I think that we can say, "Okay Lord, that is it. I have had it. I don't want to go through this anymore. I am going to take another path." I think that we can actually miss out on that plan of God that He has ordained for our future. Not that we are going to miss salvation, don't misunderstand me now. That is not the issue at all. The issue is God's perfect plan for your life, the work that God has before ordained that you should accomplish for His glory. I think that you can miss that. If you rebel against the work that God is seeking to do in your life today to prepare you for the work. I do believe that God does prepare the instrument before He uses the instrument.

이제,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점검할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 주님. 저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 더 이상 거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해놓으신 계획을 놓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놓치려는 것이 아니니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취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일, 즉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당신이 할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당신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일을 놓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 도구를 준비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It is the days of preparation we often despise, though the Bible tells us, "Do not despise the days of preparation." The days of the small things, "Lord, I want to get on to the big things, the big work You have got." No, no. It is necessary that God first work in me before God can work through me. That is why we are told in the scriptures to count it all joy when we go through some real hard testings. That is why we are told to rejoice in tribulation for God is working in you, because God wants to work through you. He has got a plan for you, the work that He wants you to accomplish. Now, I don't think that I have arrived, I think that God has yet to do greater work for me to accomplish for His glory. It is exciting to me each day to see the new opportunities that God brings into our path, in the expanding of the ministry as we seek to do His work. So God still prepares man. I haven't arrived by a long shot, but I am on the way. One day when I do arrive, I will look around and I will see Paul and John, and I will be in glory. When I have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have been apprehended. Paul was very conscious of the fact that when the Lord called him, God had a plan in mind and he said, "I am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Still on the road.

성경은 "준비하는 날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날들을 종종 없신여깁니다.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 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큰 것, 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하셔야 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나도 아직 다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성취 해야 할 더 큰 일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더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하시니 매일이 내게는 벅찬 나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내가 아직까지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도착하게 되면 내가 주변을 둘러보고 바울과 요한도 만나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을 때 영광 가운데 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 여전히 쫓아 가는 중에 있습니다.

There is still something to be done, God still has a purpose and a work for me yet to fulfill. When I have completed, when I have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do you think God is going to leave me in this sin-

cursed world any longer? No, He loves me too much. He is going to take me to be with Him in the eternal glories of His kingdom.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하나님은 아직까지 목적과 내가 이행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완성을 할 때, 내가 잡힌바를 잡을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저주 받은 세상에 그냥 버려두실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영원항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실것입니다.

Wherefore remember, that you in time past as a Gentile in the flesh, were called the Uncircumcision by that which is called the Circumcision in the flesh made by hands (2: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자들이라

So remember as a Gentile you were totally excluded by the Jews. Excluded to salvation.

이방인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했고. 구원에서 제외 되었었습니다.

That at that time you were without Christ, being aliens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from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2:12):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12)

Now he is going back again. You, before the coming of Jesus Christ into your life--a real separation, a real wall between you and God, you and the people of God. You were without Christ, you were an alien and strangers from the covenants of promise and you had no hope, for you were without God in the world. That is one of the saddest, most tragic pictures of mankind. No hope, without God in the world, without Christ, without hope, without God.

이제 그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 또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라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있었으며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It is a tragic thing to try to exist in a hopeless state. One of the greatest things the Bible does for us, it gives us hope, even in a world that is deteriorating around us, there is hope. In fact, the more the world deteriorates the greater the hope becomes.

Do you know what is the latest conclusion of the most brilliant economists in the world? Do you know that they declare to be the only hope for the world at this point? They are now declaring that the only hope for the world is a unified monetary system. In their latest writings, publications, they are beginning to espouse this as the only salvation for the world. The only hope for the world is a unified monetary system, worldwide. That is the only thing that will cause mankind to lay down their arms, because we will all realize that we are having the economic problems in trying to build these tremendous armaments and we'll all be joined together in an economic endeavor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So we have got to have a unified monetary worldwide monetary system.

희망 없는 나라에 존재하려고 애쓰는것은 비극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위대한 일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더 많이 타락하면 할수록 그 소망은 더욱 커 집니다.

당신은 이세상의 가장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것이라고 선포한 것을 아는가? 그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금융의 통합제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근에 쓴 글이나 간행물에서 이것으로 이세상을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길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인류가 무기를 내려 놓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모두가 엄청난 군사력을 쌓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통합 금융제도를 가져야한다는것입니다.

Interesting that they would come upon that as the only hope of the world. And when that is established they will be hailing that as the salvation of the world. It is interesting for us as children of God to realize that the Bible says, that is exactly what we will be established by the antichrist and will cause him to be hailed as the savior of the world, is when he brings to pass a unified, monetary system worldwide. And so the world is talking about these things and, "This is our only hope, and we can't do this. And we've had it and all." And they are

without hope, really, because whoever could put together a worldwide unified monetary system and while they are talking about the doom and gloom we are saying, "All right it is getting close. As soon as they get that thing integrated, I am going to be gone." We have this glorious hope in Christ. For the world is without Christ, it is without hope. Where it is without God, it is without hope.

그들이 그것을 이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립되면 그들이 세상을 구원한것으로 환영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의 구원자로 환영을 받게되리라는 성경말씀을 깨닫게 되는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통합 금융제도를 만들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해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계적으로 연합 금융체제를 만들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가 가깝다. 그들이 그 일을 이루자마자 나는 떠나고 없을것이다" 라고 말할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소망의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곳엔 소망도 없습니다.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were once far off you've been brought nigh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2:13).

이제는 진네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2:13).

You were once an alien; now you have been made a part of the family of God. You were once a stranger; now you are at home in the kingdom.

당신이 한때는 외국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때는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집에 들어 왔습니다.

For he is our peace (2:14),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2:14),

Not, "He will bring us peace." He is our pe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것이다" 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who has made both one (2:14),

둘로 하나를 만드사 (2:14),

That is, both the Jew and the Greek, or the Jew and the Gentile, He has made us both one.

유대인과 헤라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and broke down that wall of partition that used to separate us; having abolished in his flesh that enmity that once existed, even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the ordinances; in order that he may make in himself of the two one new man, so making peace (2:14-15);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것 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2:14-15);

So Jesus took the two diverse and divergent systems, the Jew who was trying to under the law to be righteous before God, and failing; the Gentile who was totally alienated because he wasn't even close by way of the law. And this tremendous difference that existed between the Jew under the law, and the Gentile without a law, both of them failing to please God or to come into fellowship with God. And Jesus broke down this barrier, this wall that existed between man and mankind and He has made it all one in Him. So Jesus the common denominator, and He is one way by which man can come to God. The Gentile apart from the law, the Jew within the law system, all have to come this new route that Jesus has established. So that as we all come by the same path through Jesus Christ, we become one. And no longer does this great difference exist between the Jew and the Gentile. So in making from the two, one new man and thus, He has made peace.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다른 체계를 취하셨습,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으나 실패한 유대인과 율법과는 아주 먼 완전히 외입이었던 이방인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율법 밖에 있었던 양인들의 차이는 굉장한 것이었지만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일과 하나님과 교제에 실패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과 인류 사이에 있던 장벽을 무너 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 분모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을 떠난 이방인이나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예수께서 이루신 이 새 길로 와야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며 새로운 살프오 만들어 화평케 하셨습니다.

That he might reconcile both unto God in the one body by the cross, having slain the enmity thereby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2:16);

Or, in the cross He fulfilled the law. The righteous demands of the law were fulfill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The law righteously demanded that the sinning soul should die. Now, under the ordinances they had the provision that they could take an animal as a substitute and thus cover their sins. Bu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had to be satisfied. It was satisfi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and so there He brought an end to the law and its authority over man, because the law has now been totally satisfied through His death. And now through His death He has reconciled both--that is, the Jew who could not keep the law, or the Gentile who had no relationship to the law. We have both been reconciled to God in one body of Christ by the cross, and there He put an end to this enmity that existed between the two.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공정한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은 정당하게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을것을 요구합니다. 의식에 따라 동물을 대속물로 취하여 그들의 죄를 가릴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공의는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족되었고 그것으로 율법과 그것의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종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지킬수 없었던 유대인과 율법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이방인을 그가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둘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원수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And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off, and to them which were close (2:17).

또 오셔서 먼데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2:17).

The same message He preaches to all men. Whether you were far, or near.

너희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는 모든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by one Spirit unto the Father (2: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18).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I Timothy 2:5). And you have no access to God apart from Jesus Christ. And I don't care how I am accused of being narrow in that statement. I am only stating to you what the scriptures declare.

You can only have access to God through Jesus Christ. Yes, it is a straight gate and it is a narrow path, but it leads to eternal life. Broad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path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go in. There is the flow, the flow of the world. But straigh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life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So Christ has made the way by which man can come to God, it is a road that is marked by blood, but it brings us into fellowship and in communion with the Father.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진술에서 속이 좁다고 책망을 받는다 할찌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선언하는것을 말할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 가는자들이 많습니다. 흐름이 있고 또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들어 가는 문은 좁고 길도 좁아 찾는 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피로 물든 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So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foreigners, but you have been made a fellow citizen with the saints, and of the household of God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2:19);

So it is not only Christ settling down and making Himself at home in your hearts, but you just being a part of the household of God, at home with God.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느님이 그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가족의 한 일부분으로서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And you are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자라 (2:20)

Now, these are not the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but the prophets in the New Testament church. We are not really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They are not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are built, but we are built upon the message of the apostles. That is the foundation. Paul said, "No other foundation have we then this which is all ready laid, which is Jesus Christ."

Peter sai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Jesus said, "That is good Peter. God revealed that to you, and upon this rock I am going to build my church."

He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are built, the message of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that God has provided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nd that He is the way by which we might come to God. That is the foundation, laid by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in their teaching and in their ministry.

이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초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메시지위에 세워졌습니니다. 그것이 기반입니다. 바울은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고 말했습니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메시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좋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이를 네게 알게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워지는 기초이시며 그 기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놓은 기초입니다.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 stone (2:20);

예수께서 친히 모퉁돌이 되셨느니라 (2:20);

God is building a habitation for Himself. A body in which to dwell, the body of Christ. The body of believers. I become a part of that building of God. You remember Jesus said,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We are the building of God. We have been built upon that foundation laid by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Jesus Christ the chief cornerstone upon which this building is built. You remember that Peter, standing before the Sanhedrin, quoted that particular Psalm 118 referring to Jesus Christ. He said, "This is the stone which was set of nought by you builders but the sam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this is the work of Go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Psalm 118. Christ the chief cornerstone. He was the stone that was set of nought by the builders. They rejected Him.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received Him not. Those leaders of the Jewish religion rejected the chief cornerstone.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거할곳을 지으십니다. 그 안에 거할수 있는 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믿는 사람들의 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건물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신것을 기억 하시겠죠,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한 기초위에 세워졌습니다. 공회 앞에서 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정한 시편 118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는 건축자의 버린바 되었던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받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퉁이 돌을 거절하고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There is an interesting story that in the building of the temple of Solomon, you remember not the sound of an axe or a hammer was heard, no sound of iron, but all of the stones quarried away from the building, carried to the building perfectly carved out and then just set in without even the use of mortar. Perfectly carved and fit together. So they had the architect and he drew the blueprints for each stone, and they would mark them and put them in their position within the temple as they were building it. And the story goes that there came from the quarry a stone that did not have its mark, and so the builders could not figure where the stone went. So they finally just cast it aside, figured it was a mistake from the quarry. When the temple was complete, they sent to the quarry and they said, "Where is the chief cornerstone?" The quarry sent back and said, "We already sent it along time ago." They sent back and said, "We have not received it. It is not here." They said, "We have got our invoice and you signed it. It is there." Finally, over in the bushes that had grown over the thing, someone dug it out and said, "There is a stone over here, could this be it?" Sure enough, it was the chief cornerstone of the building that the builders had neglected and cast aside. And they found out this is the one it fits; it is the chief cornerstone.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때 있었던 일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 하실것입니다. 도끼나 망치의 또는 쇠부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돌은 건축장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채석을 하였으며 완벽하게 다듬은 돌을 공사장으로 옮겨

갔으며 어떤 반죽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각 돌마다 설계사가 있었고 청 사진까지 그려서 돌에 표시를 했으며 성전을 지을때 각 돌을 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채석장에서 표시가 없는 돌이 왔습니다. 건축자들은 그것을 어디에 놓아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던져 두고 그것은 채석장의 실수로 온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완성 되었을때 사람을 채석장에 보내어 “모퉁이 돌이 어디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돌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것을 벌써 보냈노라”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다시 돌려 보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았고 여기에 없노라”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석장에서 “우리는 계산서가 여기 있고 당신들이 서명했으니 그것이 거기에 있을거요.” 드디어 그 돌주변에 수풀이 자라서 덮여 있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파헤쳐서 하는 말이 “여기에 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건축자들이 무시하고 옆에 던져 두었던 그 건물에 들어갈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돌이 맞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So Jesus Christ, set of nought by the religious leaders, by the builders, but God has made Him to be the chief cornerstone. This is the work of Go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and neither is there salvation, Peter said, in any other, because there is no other name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The chief cornerstone upon which the whole thing is built.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건축업자들에 의해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누에 기이한 바이며 베드로가 말한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것은 모퉁이 돌 위에 건축됩니다.

In whom all of the building is fitly framed and grows unto the holy temple in the Lord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1):

So when you have Christ, building on Him, the whole building goes together fitly framed together the holy temple in the Lord.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셨을때 그 위에 건축하며 그 건물은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잘 맞추어져 갑니다.

In whom ye also are built together as the house of God through the Spirit (2:22).

너희도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2).

Again,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The house of God where He comes to dwell among His people. How glorious it is to be able to gather together with the family of God and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and the power of God's Spirit as He is working to build this habitation, not a physical building, but our lives that are being knit together, fit together in this whole plan of God, this glorious building where God will reveal Himself to His people, and through His people to the world.

다시 한번,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집은 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지으실때 그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엮어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잘 맞는 건물을 세우실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수 있게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건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곳이며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나타 내실것입니다.

Thank you, Father, for that wonderful work of your Holy Spirit in our hearts and lives. For that grace whereby we were saved. For Your work in us as You prepare us to do Your work, for Your Spirit drawing us near when we were without hope and was without Christ, and was without God in this world. For making us a part of the family of God. Fitting us together as we are built upon Christ. Oh Lord, You are beautiful, and we love Your work. Amen.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활에 성령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 시키실때 를 구원하는 당신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하시면서 역사하심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당신 곁으로 끌어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지어 질때 함께 잘 맞춰집니다. 오 주님!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랑합니다. 아멘.

You are His workmanship created together in Christ Jesus unto the good works that God has foreordained that you should walk in them.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this week. God is working in you. God wants to work through you. As you yield yourself, your lives to God, you will begin to discover that which

God intended and purposed for you to do for His glory. But you can only discover it by yielding to Him.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한일을 행하시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번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뜻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복종할 때 즉 당신의 삶을 그에게 맡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이 복종함으로 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As a potter works with the clay, and as he begins his work with the clay, in his mind he has a vessel that he intends to make out of that lump of clay. To take that shapeless bit of mud and to carefully work with it until he forms a vessel that he has in his mind to form from this bit of clay. So God takes your life as a bit of clay and has in His mind a vessel that He wishes to form in order that it might perform a specific work or function. God knows exactly what function He wants you to fulfill within the body.

토기 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의 일을 하듯이, 그의 맘속엔 그날 진흙 덩어리로 만들기를 바라는 그릇이 맘속에 있습니다. 그는 이 진흙 한덩어리로 그 마음 속에 생각했던 그릇의 형상을 만들때 까지 모양 없는 흙을 한점 뜯어서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덩어리의 흙인 당신을 취하여 특정한 일이나 기능을 하도록 그가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몸 안에서 무슨 기능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Now that clay has really no choice of its destiny. Nor does it have necessarily any knowledge of its destiny until, as the potter begins to form it, it can begin to understand what its destiny is going to be as you begin to look at its shape. I begin to realize that God is preparing me for this, or is preparing me for that, and I begin to understand what God is preparing me for as I see the thing take form and take shape. But the only way I can really discover what God has in mind for me is to remain completely yielded to His touch. The moment I resist and stiffen, the work will be marred in the hands of the potter, and many times He has to start all over again. Take that piece of clay, and here I go again back to zero. I hope I listen this time. The wheel starts turning, "Oh Lord, what are you doing now?" Boy, how many times I was back to zero. Just a blob again. But in time we learn that the potter knows best. Just to yield our lives to the touch of

God. To let God work in us, that we might do the work that He has planned for us.

So God bless you as He works in your life this week. Making of you an instrument that He might use to bring glory to His name.

그 진흙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없습니다. 또한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 때까지 결과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점점 형태를 갖추갈때 비로소 그의 결과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나를 이것을 혹은 저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형태가 어떠한 모양인가를 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참으로 발견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어루 만지심에 완전히 복종하여 그에게 나머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하고 고집부리는 순간 토기장이의 손에서 작품은 망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그 진흙덩이를 취하여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듣길 바랍니다. 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참, 몇 번이나 원점으로 돌아갔는고. 또 원점으로 돌아갔네. 하지만 때가 되면 토기장이가 가장 잘 아시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당신의 생활에서 역사 하실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당신을 도구로 만들고 계십니다.

Ephesians 3

Let's turn to the third chapter of Ephesians.
에베소서 3 장을 봅시다.

*For this cause [Paul said] I,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for you
Gentiles (3:1),*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3:1)*

It is interesting that Paul was actually a prisoner of Rome, but as far as he was concerned, he was a prisoner of Jesus Christ, that is the one he was really bound to. "A prisoner of Jesus Christ for you Gentiles." The reason why Paul was persecuted and the reason why Paul was in prison is because he was insisting that the Gentiles could be saved by their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this upset the Jews, who felt that the Gentiles could only be saved by becoming Jews.

이 부분은 바울이 실제 로마의 죄수였지만 그의 생각에는 자신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즉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자" 라고 하는것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와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을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은 오직 유대교에 입교하여야만 구원 받을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Thus, a Gentile could not be saved, only Jews could be saved and a Gentile had to become a Jew in order to be saved. So Paul's insistence that God is now offering salvation to the Gentiles so incurred the wrath of the Jews that they persecuted him or stirred up persecution everywhere he went. So that the imprisonments were the result of this basic teaching of Paul that you Gentiles can have salvation. So, "a prisoner of Jesus Christ for you Gentiles."

이리하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수 없었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은 구원 받기 위해 유대교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초래해서 그를 핍박하거나 그가 가는곳 마다 핍박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도 구원받을수 있다는 기본적인 가르침 때문에 투옥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가 된것입니다.

Paul said, "If I didn't preach this then the persecution would cease. They wouldn't have anything against me anymore." But Paul stood by that message of God's grace that had been given to him.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전파하지 아니하였다면 박해가 그쳤으리라.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대적할것이 없게 될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그의 입장을 지켰습니다.

If you have heard [he said] of the dispensation of the grace of God which is given to me for you (3: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가 말했습니다) (3:2):

Now, there are those who see seven dispensations. They see the dispensation of innocence, when God placed Adam in the Garden of Eden and God relating to man there in the garden in man's innocence. Then they see the second dispensation, (I forget what they call it), but it is from the time of Adam's sin unto the time of Noah, in which they see the third dispensation of the government of God which lasted until the time of the law, which they see the fourth dispensation of the law. And the fifth dispensation of Jesus here; the sixth dispensation, the dispensation of grace; the seventh dispensation, the millennial reign.

일곱 가지 경륜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순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것을 순수성의 경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륜은(무어라고 부르 는지 잊었지만) 아담의 죄가 들어올때 부터 노아의 때까지 이며, 세 번째 경륜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 율법 시대까지 였으며, 네 번째 경륜은 율법의 시대였고 다섯 번째 경륜은 예수께서 이땅에 오신 것이며, 여섯번째는 은혜의 시대, 일곱번째는 천년왕국입니다.

Paul is talking about the dispensation of grace, man has divided it up into those categories. I don't know that God has. I think that man does a lot of things that God doesn't necessarily endorse, even theologians.

We are living in an age in which God relates to Gentiles by His grace. It is a dispensation of grace given to us.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알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심지어 신학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인 우리를 은혜로 관계를 맺어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How that by revelation he made known unto me the mystery; (as I already had written about in few words (3: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3:3);

Now, in chapter 1 Paul speaks of this mystery of His will,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the earth, even in Him. This mystery that God has chosen that all things should be bound up in Jesus Christ; things which are in heaven, things which are on the earth. God has brought all things in subjection unto Him, will put all things in subjection.

Paul said, I wrote a little bit about this mystery already,

일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말할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하나님이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택하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으며 앞으로도 복종케 하실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비밀에 대해 조금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Whereby, when you read, you may have an understanding of my knowledge in the mystery of Christ,) which in other ages was not made known unto the sons of men, as it is now revealed unto his holy apostles and prophets by the Spirit (3:4-5);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3:4-5);

That is, this open door for the Gentiles to receive salvation is something that the Old Testament prophets did not foresee. This age of the church is something that was not seen by the Old Testament prophets. They felt that the coming of Christ would bring the immediate kingdom of God. They figured that the Messiah would usher in the kingdom age immediately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did not really see this age of grace, when God would be drawing from among the Gentiles the body of Christ.

말하자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수 있는 문이 열린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시대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을 바로 건설 하시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 당장 진입할것으로 파악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제로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실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They really didn't understand all that they saw or all that God revealed to them. They really wrote of things that they did not completely understand. But they wrote as the Holy Spirit inspired them. And thus, they themselves did not know the things that they were writing about or what their full significance was.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 하신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썼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자신도 그들이 기록하는것을 알지 못했거나 그것들의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Isaiah speaks of the coming Messiah, how that He will sit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order it and establish it in righteousness and in judgement from henceforth even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of Host shall perform this. And yet, Isaiah said that God's righteous servant would be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a man of sorrows, acquainted with grief,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다윗의 왕위에 앉아 질서를 잡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심판으로 세울것이며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 당하고 버린바 되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치 그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자 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 every one to our own way, and God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And how He would be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in His death. And so he wrote of these things not really understanding the apparent inconsistency of the things that he wrote.

그러나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쓴것의 분명한 모순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썼습니다.

Daniel, in prophesying the day that the Messiah would come, declared, and the Messiah will be cut off, and receive nothing for Himself, and the Jews will be dispersed.

다니엘은 그의 예언에서 메시아의 오실 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Yet, there did remain that mental attitude that the Messiah is going to set up His kingdom, and it was very prevalent even among the disciples. They were constantly looking for the immediacy of the kingdom of God. When Jesus, after His resurrection, gave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to come upon them in a few days, they said, "Lord, will this be the time when You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Is this it, Lord?" They were constantly looking for the kingdom to be established immediately.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정신적인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까지도 대단히 우세한 견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 지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후에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 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hey did not know that there was going to be this period of the dispensation of grace, where God would be reaching out to the Gentiles to draw out from the Gentiles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of Jesus Christ. Draw out, actually, from the world, because it was to include both Jews and Gentiles and

make them one. The wall that had existed between them is going to be broken down and they are all going to become one body in Christ.

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끌어 낼 은혜의 경륜의 시기가 있을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세상으로 부터 끌어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장벽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것입니다.

When Paul speaks of it as a mystery, he means not something that is like we think of mysteries today, difficult to solve. It is something that had not been revealed in the past, but God is now revealing and making known. So it is a new revelation from God. This place of the Gentiles in the body of Christ and how that God was going to offer freely unto the Gentiles the glorious promises of eternal life and of salvation and of a place in the kingdom of God.

바울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한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풀기 어려운 신비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셔서 알게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방인의 위치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에서의 위치에 대한 약속을 그저 주실것인가 하는것입니다.

Paul said, "I want to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understand my understanding of the mystery which in other ages was not made known, but it is know revealed by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and to the prophets. This is the mystery:"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세대에서는 알지 못했던 비밀에 대하여 내가 이해한것을 너희들도 이해할수 있도록 돕고자 이 글을 쓰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니라. 이것이 비밀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That the Gentiles should be fellow heirs, and of the same body, and partakers of the promise in Christ by the gospel (3:6):

The glorious mystery of God now revealed.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3:6):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You Gentiles can have salvation, can have the promise of eternal life, can have the hope of the kingdom of God. You become a partaker in the grace and in the goodness of God.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는자가 되었습니다.

Whereof [Paul said] I was made a minister, according the gift of the grace of God that was given to me by the effectual working of his power (3:7).

So God laid upon me the ministry of sharing this glorious mystery--God's grace to the Gentiles.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3:7).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비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Unto me, who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saints, is this grace given, that I should preach among the Gentiles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3:7-8);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8);

“What a privilege,” Paul said, “is given unto me the less of the least of all saints.” Paul's opinion of himself, this is the opinion of a man who has truly been called of God and really had a confirmation with Jesus Christ.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 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신에 관한 견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인을 받은 사람의 견해입니다.

When I see the way some people strut as they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my conclusion is that they really haven't had a personal confrontation with Him. If I have the attitude, "Lord, You are so lucky that You have me proclaiming Your truths. You don't know how fortunate You are, God. I could have been famous and I could have been great. I gave up fame and fortune. I am worth a lot to You, Lord." Those testimonies of what people have given up for Jesus Christ really don't move me. What I could have been doesn't really touch me.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기 양양하게 설교하는것을 보면 내 결론은 그들이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던가 하는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당신의 진리를 전하는 나 같은 사람을 가졌으니 아주 다행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행운이 있는지 모르십니다. 내가 유명해 질수도 있었고 위대하게 될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명예와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했다는 사람들의 간증들은 내게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 될수 있었다는것은 정말 나의 가슴속에 와 닿지 않는 말입니다.

Paul's attitude toward himself, "Wow, God has given me this glorious ministry, the lessor than the least of all of the saints. The privilege given that I should be able to share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impart them unto the Gentiles."

바울의 자신에 대한 태도는 이러합니다, "와아,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셨네.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특권 주셔서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Paul felt that because of his previous persecution of the church, his endeavor to waste it, that anything that God did for him was through grace and he was really always, I think, sort of haunted by the fact that he was so blind at one time that he was trying to destroy the church. He makes mention of this, "for I wasted the church of God." Here his attitude, less than the least of all of the saints. But God has chosen

바울은 그의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일, 즉 교회를 없애 버리려했던 그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신 모든것은 은혜로 말미암은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울은 한때 그가 눈이 가리워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항상 번민했던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여기에 나타난 그의 태도는 그가 모든 성도중에 지극히 작은자 보다 더 작은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that all men may see what is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s been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by Jesus Christ (3: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9):

Now, you notice that all that God has done for us is by Jesus Christ as we have been going through these first two chapters on into the third chapter. Anything and everything that God has done for you He has done in and through and by Jesus Christ. These glorious mysteries hid from the Old Testament prophets now revealed through the prophets and the apostles in the New Testament, these marvelous riches of Christ that are available to all men.

자,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것임을 앞의 1,2 장과 3 장의 앞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어떤 것들이나 모든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비밀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감취어졌던 것인데 이제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졌습니다.

To the intent that now unto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in heavenly places might be known by the church the manifold wisdom of God (3: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3:10)

You remember Peter writing of these things said, "Which things the angels even desire to look into." (I Peter 1:12). You see, angels are not omniscient as is God. They do not know the full purposes or the plan of God. I am sure that they have interesting sessions and discussions as they see the purposes of God being unfolded.

베드로가 이 것들에 관하여 쓰면서 말한것을 기억하시겠죠, "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벧전 1: 1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천사들은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내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알려질때 그들이 재미있는 회의와 토론을 할것입니다.

Now, the angels did have a better grasp of prophecy than did man. When God would reveal the things through the prophets, they did have a grasp of these things. But not a full understanding. It took the working out of the plan for them to come into a full understanding.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예언의 뜻을 더 잘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시하실때 천사들은 이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려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때 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Peter in writing of these things said, "We have the more sure word of prophecy" (II Peter 1:19). "He showed Himself alive by many infallible proofs" (Acts 1:3), but we have the more sure word of prophecy and so forth, which things the angels desired to look into. Paul said, "That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which are the angels, that they might know by what is happening in the church, the manifold wisdom of God."

베드로는 이 러한 것들에 관하여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벧후 1:19)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 습니다"(행 1:3),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정사나 권세들이나 천사들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했습니다.

I would imagine that it is a very shocking and awesome thing to the angels that God decided to come and indwell man. That God would actually come and dwell within man. This is that glorious mystery that God actually will indwell you by His Spirit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란안에 내주하시겠다고 결정하신것은 천사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 였으리라고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 오셔서 내주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실제로 당신안에 내주하시리라는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My body can becom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that Christ dwelling in me is my hope of glory. This marvelous mystery. The angels said, "Wow, can you believe that?" It is revealed, God didn't reveal it to them, except, as it took place within the church.

나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천사들도 "우와, 그걸 믿을수 있니?" 라고

말했을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그 일이 교회안에서 일어났을때 나타났습니다.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Jesus our Lord (3:11):

That was God's plan from the beginning.

In whom we have boldness and access with confidence by the faith of him (3:12).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3:11):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3:12).

In chapter 1 it says we have been accepted in the beloved. God accepts me. Now it says we have access unto God. That was, of course, something that was withheld even from the Jew. They did not have access to God. They came to God through the priest. He would enter into the presence of God for them.

일장에서 우리는 사랑 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갈수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에게서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 갈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 갔습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When God gave the law to Moses, He said, "Cordon off the mount. Don't let man come close, lest he be destroyed." Moses went up and communed with God. When the people saw the awesome phenomena of the presence of God, they fled, and they said to Mose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 "산을 차단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두려운 현상을 보았을때 그들은 도망하여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You go up and talk to Him and you come down and tell us what He said, but we don't want to get near. That is awesome the fire rolling around the ground, the thunder and all of these things. And you go up and we will listen to you, and we will take what you tell us that God says, but we don't want to approach that.”

“당신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에게 말씀 드리고 나서 내려와 그가 말씀 하신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요. 그러나 우리는 근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지면 주위를 도는 불이며 우뢰이고 또 이 모든것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이 올라 가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으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받아 드리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으리이다.”

And as God established the law, then it was the high priest who went into the Holy of Holies before God for the people and that was only once in a year, one day in a year. But now we have access to God. There is no veil any longer to hold you out.

그리고는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을때, 대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년에 한차례씩 하루동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당신을 가로 막지 않습니다.

It was extremely significant that at the crucifixion of Jesus the veil was rent or torn from top to the bottom and God was just now saying through Jesus Christ you can all come. You have access to God. In Hebrews it says, “that we may come boldly before the throne of grace to make our petitions known.” Through Jesus Christ we were once alienated from God and could not approach Him, and now have been brought close, been brought nigh, access to God. And then here again, boldness and access, as in Hebrews,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때 휘장이 찢어졌고 위에서 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수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의 구하는것을 알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그에게 나아갈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셨으며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에서 담대함과 나아 가는것에 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고 합니다.

That timidity that some people display, “Oh, I really don't think that I am worthy to come to God. I will just go to one of the saints and ask him to go to God for me,” is unscriptural and it's wrong. When God opens the door and says, "Come on in," it is wrong for you to hold back. We come boldly. We have access, boldness and access, confidence by the faith of Him.

어떤 소심한 사람들은 “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 가치가 없다. 나는 그저 한 성인에게 가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요구 하겠다” 라고 말하는 데 그것은 비 성경적이고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들어 오너라” 라고 하실때 당신이 억제하는것은 잘 못된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수 있습니다.

Wherefore [Paul said] I desire that you faint not at my tribulations for you, which is your glory (3: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3:13).

Paul had gone through so much to bring them this message. The prisoner, beaten, scourged, buffeted, stoned. “Don't faint at my tribulations, because it is all for your glory.”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돌로 맞았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For this cause I bow my knees unto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3:14),

이러하므로 내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3:14)

So Paul's prayer for them, the attitude in prayer, physical, of bowing his knee, but there are many attitudes for prayer physically. It isn't really the physical position that counts when I come to God; it is the position of my heart. “He that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that diligently seek Him” (Hebrews 11:6).

그래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신체적인 기도 자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신체적인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 올때 실제로 중요한것은 육체적인 자세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So the people who have a hang up, “you’re not really praying unless you are on your knees,” is not really a scriptural hang up, it is just their own hang up. The scripture talks about standing, lifting holy hands in prayer. David lying with his face in the dirt crying unto God. Many places they are lying prostrate before the Lord. So sitting, lying, kneeling, standing, that is not what counts, but what is the position of your heart as you come to God.

“네가 무릎을 꿇지 않는한 너는 진정한 기도를 하는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갖는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성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가 자신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서 하는것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누워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앉든지 눕든지 무릎을 꿇든지 혹은 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때 당신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I bow my knees unto the Father.” Prayer is unto the Father,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Whatsoever things you ask the Father, that will I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것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던지 내가 하는것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입니다.

Of whom the whole family in heaven and earth is named, that he would grant you [Paul’s prayer for them],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to be strengthened with might by his Spirit in the inner man (3:15–16);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3:15-16)

How we need strength in our inner man. Satan is constantly setting before us temptations. He is a powerful foe. I do not have the strength within myself to stand against him, I need God's strength by His Spirit in my inner man if I am to

stand before the power of the enemy. Paul prays that you might be strengthened in the inner man by His Spirit.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유혹 받을 만한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력한 적입니다. 내 안에는 그에게 맞설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강력한 원수 앞에 서야 한다면 나의 속사람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Secondly,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3:17);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3:17);

The word *dwell* in the Greek is to settle down and to make himself at home, that Christ might really be at home, be comfortable, be at ease. There are places where you go and you feel out of place the moment you are there. You feel uncomfortable, you wish you had not come, you are not in harmony with what is going on. Then there are other places where you go and you feel so comfortable, so at ease, so relaxed.

희랍어의 *계시다 (살다)*는 단어의 의미는 자리 잡다 (정주하다) 라는 것이며 그를 편안하게 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편하게 느끼시도록 하는것, 마음 편하게 하는것, 안심하는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그곳에 가자마자 잘 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곳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고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느끼며 그곳에 벌어지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곳에 가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이 풀리는 곳도 있습니다.

Now, “that Christ might be at home in your hearts” means that your heart might be so in tune and all with Him that as He dwells within your heart there is no strain, there is no embarrassment for Him.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편안하게 느끼신다” 는 말은 그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때 그분과 잘 맞아서 긴장할 일이 없고 그분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You remember how that Ezekiel, that interesting prophet, how God dealt with him in many strange ways, was taken by the Spirit to Jerusalem. There was this wall there and God said, "Dig a hole through the wall," and he dug a hole through the wall and crawled in.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다루신 재미 있는 선지자 에스겔을 성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데려 가신것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벽이 있었고 하나님이 "벽에 구멍을 뚫으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에 구멍을 뚫고 기어 들어 갔습니다.

And he looked and here was all kinds of pornography all over the walls. Ezekiel said, "That is horrible, filthy pornography. What's that all about?" God said, "I have allowed you to go within the minds of the leaders of Israel. These are the things that they are thinking, these are the things they are seeing."

그리고 그가 보았더니 온갖 음란한 그림들이 벽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끔찍합니다. 더럽고 음란한 그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관한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도록 허용하였었노라. 이것들이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며 보는것들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When Christ dwells within your heart and looks on the walls, is He at home, is He comfortable with what He sees? Or when He knocks on the door, do we say, "Wait a minute," and we go around and try to cover everything, or turn things around backwards?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시며 벽을 바라보실때 그 분이 보시는 것으로 마음이 편하실까요? 아니면 그 분이 문을 두드리 실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후 가서 모든것을 감추려고 할지 아니면 뒷쪽으로 돌려 놓을까요?

"That Christ may be at home in your hearts by faith;"

that you might be rooted and grounded in love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3:17),

Oh that we would experience more of that love of God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that it might really flow forth from our lives. Rooted and grounded in love.

오 하나님과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흘러 나오도록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That you may be able to comprehend with all saints what is the breadth, and the length, and the depth, and the height; and to know the love of Christ, which passes knowledge (3:18-19),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18-19),

Here is an interesting request, because how can you know something that passes knowledge? The word *know* is *ginosko*, which is know by experience.

여기에 재미있는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꼬 (ginosko)* 이며 그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Now his prayer: “God loves you so much, I pray that you might know the depths of God's love for you, the length of God's love, the height of God's love. If you could only fathom the depths, if you could only explore the heights, if you could only see the length, to the length to which God was willing to go to save you. The depths to which Jesus was willing to come in order to redeem you.

이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너희가 그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이까지 기꺼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이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오실 그 깊이를 말합니다.

The heights to which God intends to bring you. That He might seat you together with Christ in heavenly places and make you a joint heir with Christ of His eternal kingdom. Oh the heights of the glory that God has for you. If you could only know,” Paul said, “comprehend that which is beyond knowledge. Hey, you cannot know it, it is beyond knowledge.”

그 높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늘에 끌어 올려 당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그의 영원한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의 높이입니다. 만일 당신이 알기만 했더라면,”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것을 알라” 고 말했습니다. 그건 알수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것은 모릅니다.

The next request,

that you might be filled with the fullness of God (3:19).

그 다음 요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19).

Now, again, that is something that in the physical is impossible. That I could be filled with the fullness of God. The heavens of heavens cannot contain God. How much less me? That I might be filled with the fullness of God. Now, realizing that he has asked some pretty tough things, he says,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것으로 충만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모실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작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것으로 충만해 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대단히 어려운 것들을 요구한다는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말하기를,

Now un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3:20),

How many times I think that we limit God by our own limitations. We carry our own limitations over into the spiritual realm. We are prone to place things in categories: that is very easy, that is simple, no problem, oh that is pretty tough, that one is difficult. Hey, that is impossible. We are prone to carry these over to God, and it reflects even many times in our attitude of prayer, “Lord, this is a simple thing. You can handle this one. Lord, this is pretty tough. I really don't know. Forget it, Lord. It is impossible.”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기준으로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점을 영적인 영역에도 끌어 옵니다. 우리는 무엇이 든지 범주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다, 그것은 간단하다, 문제 없음, 어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어렵다. 여보게, 그것은 불가능 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잊어 버리세요, 주님.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We are prone to carry over unto God those human feelings that we have concerning situations. How many times God has done things that I thought were totally impossible, things that I had given up on. People that I had said, “Hey, no way.” Then what does God do? Turns around and saves them. I can't believe it.

우리는 상황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나 내가 포기했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서서 그들을 구원 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Jonathan,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his mind playing with an interesting thought. “I wonder if God wants to deliver the Philistines to Israel today. If God wants to deliver the Philistines to Israel today, He doesn't need a whole army. If God wants to do it, He could deliver them into the hands of one man just as easy as He could the whole army. I wonder if He wants to deliver them today?”

요나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재미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부치실지 궁금하군. 만약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이스라엘의 손에 부치시면 모든군대가 필요하진 않으시겠지?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군대에게 하시듯 단 한 사람의 손에도 그들을 부치실 수 있을거야.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부치실지 모르겠군.”

This crazy thought running through his brain, he can't get it out of his head. And so he wakes up his armor bearer and he says, “I'm having a crazy thought. You know, I was thinking, if God wants to deliver the Philistines to Israel He doesn't need the whole army, after all He is God. He could deliver the Philistines to Israel to just one man, just as easily as a whole army. Let's go over and see if God wants to deliver the Philistines this morning.”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자 그는 그의 병기 든자를 깨어 말하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내가 생각한 바로는 만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 손에 부치시면 하나님에겐 대 군이 필요한것이 아니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시거든. 하나님이 블레셋 군을 이스라엘, 대 군이 아닌 단 한사람에게 부치실수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손에 부치실런지 일어나서 가보자.”

I love it, let's see what God might want to do, let's venture out in faith. Who knows what God might want to do? He doesn't need a whole army. We measure things by our abilities. “Now un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믿음으로 모험하는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에게는 큰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우리의 능력으로 측정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 3:20).

We oftentimes are intimidated by certain diseases, by certain illnesses, because they have been diagnosed by man as incurable. Thus, we have a different prayer for Leukemia than we do earaches, or headaches. “Lord, he has got a headache, relieve him, Lord, help him to really be able to function today. Thank you, Lord.” No problem. If God doesn't come through, take an aspirin.

우리는 빈번히 어떠한 질병이나 병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것들이 불치 병으로 진단 되이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귀가 아프거나 치통이 있을때 기도하는것과는 달리 백혈병에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두통으로 앓고 있습니다. 고쳐 주세요. 주님, 오늘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지 않으면 아스피린을 드세요.

“Leukemia, No! Oh, God, help! God, oh Lord God of heaven.” Man leukemia, you have got to really pray for that. You have...it takes really getting worked up into that one. That's tough. Hey, it is no more difficult for God to heal leukemia than it is a common cold. God doesn't have these categories of difficult or easy or impossible. They don't exist with God. He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nd we need to remember this when we pray. We need in prayer to be freed from our human limitations and this idea of difficulty.

“백혈병, 안 되요, 하나님, 도와 주세요. 오 맵소사.” 아, 백혈병, 정말 기도 많이해야겠습니다. 백혈병에 걸렸으니 정말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건 어려운데. 여보시요, 하나님에겐 일반 감기나 백혈병이나 어려울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렵다, 쉽다, 또는 불가능하다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그런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때 기억해야 할것은 그분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때 인간의 한계나 어렵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합니다.

“Now un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God can provide a million dollars for you just as easy as He can provide five cents. He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you ask or think. Why do we limit Him? “Lord, I need a nickel.” So I start looking around the ground. It shouldn't be too hard to find a nickel. Flip the coin boxes in the telephones.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백만 달러를 주시는 것은 5 센트 주시는 것 만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능력 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주님, 5 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바닥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오전 짜리 하나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중 전화의 동전함 속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Paul as he prays, prays with that awareness, that confidence that God is able. We need to have that confidence when we pray.

바울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Un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by Christ Jesus throughout all ages, world without end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3:21)

This beautiful little benediction that he tacks onto his prayer. Glory in the church, by Christ Jesus throughout all ages, world without end, and so shall it be. So shall it be.

그는 그의 기도 끝에 아름다운 짙막한 축도를 부쳤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World without end, we will bring glory and praise unto God because of His grace towards us through Jesus Christ. In heaven we will be much the same

things we are doing on the earth, as we are just giving thanks unto God for His mercy and grace to us,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것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것과 같이 거의 같은 일을 할것입니다.

So many people are looking for heaven to bring so many radical changes in their lives. But you see, God wants to make those radical changes right now so that heaven will not be a shocking kind of a transition for you. God is working in us now.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사람들은 천국에서는 그들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충격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Those eternal things as He is preparing us for the eternal kingdom. They are not going to be as radical a change as you think. God wants it to be a smooth transition. It would be glorious to be in heaven for an hour or two before you realized you were there. To walk so close to the Lord, to live in such communion with Him, to walk so in His presence and in His love and all. Hey, wait a minute. Something is different here. Where am I? Wow!

Oh, God help us to so walk with Jesus in close communion.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 우리를 영원한것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것과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전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한 두시간 동안은 영광 스러울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걷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고 주님의 앞에서 그이 사랑을 받으며 걷고 하는 모든것이 영광 스러울것입니다. 이봐, 잠깐만. 여기에 뭔가 달라. 내가 어디에 있지? 와와.

오,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 주소서”

Ephesians 4

Now Paul begins the fourth chapter again with the reminder that he is a

prisoner of the Lord, and I beseech you, [I beg you, I implore you] that you walk worthy of the vocation wherewith you are called (4:1).

바울은 다시 그가 주 안에서 갇힌자임을 상기 시키면서 4 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4:1).

Now, notice this is the first mention now that Paul makes of your response to God. He has spent three chapters telling you what God has done for you, of what God has given to you, of what God has provided for you. He has spent three chapters unfolding the glorious mysteries of God's love and grace and goodness. How God has reached out to you, you Gentiles who were once alienated and far away, and He has brought you near. Now after spending the three chapters telling you all that God has done, now he turns around and he says, "Now you walk worthy."

이제,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것임을 유의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무려 세장이나 썼습니다. 그는 세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전에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가까이 이끌어 주신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일을 석장에 걸쳐 설명한후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고 말합니다.

One of the problems in the church is that we have been emphasizing the walk first. We have been trying to get people to walk before they even know how to sit. Paul gets us firmly seated in Christ in heavenly places and now he says, "Now walk. You learned how to sit, now walk." In a little while as we get to the sixth chapter, he is going to say, "Now stand."

교회의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가 먼저 행하라고 강조해온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확고히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이제 걸으라. 너희가 앓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걸으라” 고 합니다. 잠시 후에 6 장에 가면 그는 “이젠 서라” 고 말할것입니다.

And so as another author of Ephesians has divided it, he spent three chapters telling you of the wealth and of the riches you have in Christ. Now he is going to spend a couple of chapters telling you about the walk that you should have. And then he will spend the last chapter telling you about the warfare that you are in. So the wealth, the walk and the warfare of the believer. Ruth Paxson divides the book of Ephesians that way. Watchman Nee divides it in sit, walk, stand.

에베소서 of 다른 한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바울이 첫 세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가진 부요함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 두어 장에 걸쳐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말할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전쟁에 대하여 말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요함과 행함과 전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룯 팩슨 (Ruth Paxson) 은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엣치만 니 (Watchman Nee) 는 앓는것 (좌) 과 행하는것 (행) 과 서는것 (참) 으로 구분했습니다.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God's work for us is, first of all, mentioned before our response to God. So opposite to the religions which teach man to do his work in order that God might respond to him. If we are in that works-response, I work that God might respond syndrome, we will never have the full relationship with God that He desires to have, nor will we ever enjoy the riches that God wants to bestow upon us.

그러나 무엇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일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보다 먼저라는것을 주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응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와는 정 반대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반응의 관계에 있다면 내가 행동하여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실까 아닐까 하는 증세가 생기며 우리가 갖고 싶은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이루어 질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요함도 즐길수 없게 될것입니다.

Because our works are always going to be failing and feeble. It is God's work that matters, not mine. It is my response to God which is important, not trying to get God to respond to me. God has already initiated, and God is the initiator; man is the responder. So many times man seeks to reverse that in the

preaching, making man the initiator and God the responder. Such is not the case. Such is not the gospel. There is no gospel in that. The gospel is that God initiated: God so loved that He gave, and that man responds.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약하고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반응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에 대해 반응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신다고 꺼꾸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셨고 인간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I am responding to that constraining love. So any work that I try to do for God that does not come from a responsive base is unacceptable. Any work that I try to do to gain favor, any work that I try to do to gain merit, to gain points, to gain righteousness is of no avail. It is only that work that flows freely as I am responding to God and His grace and His goodness to me that has any real eternal merit or value. We need to get this correct theology or else we are going to really be missing out on all that God is wanting for us and wanting to do for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에게 대한 반응을 기초로 해서 오는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은총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나 점수를 얻기 위해서나 또는 의로워 지려고 하는 일은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자유롭게 흘러 나오는 그 일 만이 영원한 칭찬과 가치를 받게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는것이냐 우리를 위하여 하시려는것을 다 놓지게 됩니다.

You do not initiate the relationship with God. He has initiated it. You need to respond to it. You cannot make God love you more. He loves you supremely. You need to respond to it.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수 없습니다. 그 분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 하십니다. 당신도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합니다.

When I am responding to God then I am not really getting all puffed up in my works and boasting in them and going around and bragging about all that I have been doing for God.

내가 하나님 반응을 보일때 나는 내가 한일로 교만해 지지 않으며 뽐내지 아니 하고 두루 다니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All I am doing is responding to love that is...I just can't handle. Overwhelming love, I respond to it. So it isn't, "Oh, I have given so much for God or I have sacrificed so much for the Lord. You can't believe how much I have given to the Lord." No, no, no. The person who has the true relationship with God is going around saying, "You can't believe all that God has done for me. I can't believe His goodness. Listen, you will never believe what the Lord did for me this week."

내가 하는 모든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것이며 그것은 ...내가 감당 할수 없습니다. 나는 넘치는 사랑에 나는 반응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것을 희생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바쳤는지 믿지 못할 겁니다" 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돌아 다니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것을 당신이 믿지 못할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믿워지지 않아요. 들어 보세요, 주님이 입번주에 내게 행하신 일을 정말 못믿을거예요" 라고 합니다.

They are always talking about what God has done, and what I do is nothing, man. It is just a response to this glorious grace that I have received through Jesus Christ.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Respond now to God. Let your walk be in keeping with what you are. God has called you to be His child, that you might in the endless ages to come experience the richness of His grace and mercy and love towards you in Christ.

Now respond to that by living in a manner that is fitting that of a child of God. Live like a child of God.

Don't live like the devil, you did that long enough. Now start living like a child of God, which you are through Jesus Christ. Respond to it.

How am I to live?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십시오. 당신의 인격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자녀로 부르셨고, 닥아오는 끝이 없는 세대에 그의 은혜의 부요함과 자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자세로 삶으로서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마귀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당신이 한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반응을 보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With all lowliness and meekness (4:2),

I am to live as Jesus Christ.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4:2),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Do you remember when Jesus said, "Come unto Me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 for I am meek and lowly of heart"(Matthew 28-29)? Now how are we to walk?

In all lowliness and meekness (4:2),

예수님께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8-29).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Now, this is really the natural response to the real understanding of the grace of God for me, and my unworthiness of it.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의 무가치 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때 나타나는 진실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If I am doing my works trip, then involved in the works is the bragging and the boasting and the glorying of what I am and what I have done. But when I realize what God has done for me, what God is offering to me, this glorious grace of God of which I am so totally undeserving and unworthy, the affect that I have is that of lowliness and meekness.

내가 출장을 가게 되면 그때에 일에 종사하면서 나는 나의 직분이 무엇 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고 뽐내고 자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내게 주시는 것과 받을 자격도 가치도 전혀 없는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결과로 내가 가지게 되는것은 겸손해 지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As Paul said, "That God should choose me, less than the least of all of the saints to bestow this abundant glory that I should preach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Ephesians 3:8). That man who truly understands what God has done is humbled by what God has done. The man who has had a true confrontation with God is humbled by that confrontation. Walk with all lowliness and meekness.

바울이 말한것 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엡 3:8).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참으로 이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의해 겸손해 집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만남으로 겸손해 집니다. 겸손과 온유로 행하십시오.

Now I am thinking of a certain TV evangelist who seems to have purchased so much time on television. Some people have come up and asked me what my opinion of him is. Well, from what I have observed, which is not very much, because I have a hard time taking it, if I am commanded as a child of God to walk in lowliness and meekness, if I am commanded as a child of God to walk in love, then these are characteristics that I do not observe. So the whole ministry must come into question.

텔레비전 시간을 많이 산듯한 한 TV 전도자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내가 본 바로는, 받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리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특성을 그에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반드시 문제가 될것입니다.

I am to walk with all lowliness and meekness.

with long-suffering, forbearing one another in love (4:2);

나는 모든 겸손과 용유로 행하여야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2);

What a glorious way to walk.

Endeavoring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4:3).

행하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3)

I am not to be cursing all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he FCC and all of the ministers that don't go along with me. "Endeavoring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I should be constantly seeking the unity of the Spirit within the body of Christ.

모든 정부 관리들을 저주해서는 안되겠지만 FCC 와 다른 장관들도 내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는것을 항상 추구할것입니다.

Now it is sad to me that man has so divided the body of Christ and built his fences and in some cases block walls. "We are the people, everybody else is false and wrong, we have the truth." They build up these barriers and these walls around themselves.

그리스도의 몸안에서 서로 분열되어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거나 어떤 경우엔 벽을 쌓는 사람은 나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못되었고 틀렸어,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이 장벽을 쌓고 이 벽들이 그들 주변을 둘러했습니다.

A few months ago I received a letter where I was invited to speak at a certain denominational meeting. And I got a letter this week after I responded. I thought, "Well, that is interesting. I will accept that." And so I wrote a letter of acceptance, and I got a letter back this week from the minister who had invited me to speak and he said, "I am awfully sorry, but when I brought up your name, a lot of the ministers were afraid that some of our ministers might be influenced by you. And because you believed in the validity of the gifts of the Spirit, it

might draw some of them away. So they decided that they don't want you to speak.” Sad.

몇 달 전, 어떤 교단 회의에 와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초청하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답장을 보낸후 이번 주에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그거 재미있는 일이네, 받아 드려야지.” 그래서 받아드린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 주에 나를 초청하여 말씀해 달라고 초청했던 목사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꺼냈더니 몇 목사들이 당신의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령의 은사를 미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There is only one body, there is only one Spirit, there is only one hope of our calling; there is only one Lord, there is only one faith, there is only one baptism, there is only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through all, and in you all (4:4-6).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화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4-6).

There should be a unity in the body of Christ. And the thing I like about being non-denominational or inter-denominational is that it does give us a comfortable posture whereby we can accept and love and feel free to fellowship with anybody from any denomination who really believes in Jesus Christ. Now, there are some denominations that will not accept the baptism of another denomination.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 교파 혹은 초 교파를 좋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어느 교파의 누구든지 받아 드리고 사랑하고 교제 할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가질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의 침례를 받아 드리지 않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Some churches that will not accept the baptism of another church. “Oh, you were baptized by them. Well, you will have to be baptized again before we can receive you into membership.” There are some churches that have closed communion. When they pass the broken bread you can't take it unless you are an approved member of that church. Walls by which the body of Christ is divided.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 당신은 그들에게서 침례를 받았군요.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외부 인들에게는 성찬식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찬 예식의 떡을 건네 줄때 그 교회에서 허락을 받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 그것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런거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 놓는 벽들입니다.

“One baptism.” That is, we were all baptized unto Jesus Christ. We weren't baptized unto Paul, or Apollos, or Peter. We really weren't baptized a Baptist, or a Christian church, or a Methodist, or Catholic. We should have been baptized into Jesus Christ, not into a church. Because a church cannot save you. There is only one baptism, and that is the baptism into Jesus Christ. If you were baptized into a church, then I would encourage you to just be baptized into Jesus Christ. “One baptism, one faith, one Lord, one God and Father.”

“하나의 침례”란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받은것 을 말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베드로에게 받은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침례교나 그리스도 교회나 감리교나 카톨릭으로 침례 받은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침례 받은 것이지 교회에게 침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당신을 구원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난의 침례가 있으며 그것은 예수 에게로 침례 받는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로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에게로 침례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침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니요 주도 하나이며 하나님과 아버지도 하나 이니라.”

But to every one of us is given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Christ (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4:7).

I love this. What is the measure of grace? The gift of Jesus Christ. And every one of us is given a measure or given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Jesus Christ.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분량을 받았습니다.

Paul said, "If God spared not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much more then shall He not freely give us all things?"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You see, again, when I come to God for my needs, I think, “Oh, I don't know if God is willing to do this much for me.” Well, how much is God willing to do for me? He is willing to send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for me, now do you need more than that?

아시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나의 필요한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만큼해 주실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즐겨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도록 그의 독생자도 기꺼이 보내시기 까지 하셨습니다. 그 보다 더 많이 원하시는것이 무엇입니까?

So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Christ.

Wherefore he saith, When he ascended up on high, he led captivity captive, and gave gifts unto men. (Now he that ascended, what is it but that he also descended first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He that descended is the same also that ascended up far above all heavens, that he might fill all things.) (4:8-10)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른 은혜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속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4:8-10).

What is he talking about? “The one who has ascended is the same one who descended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and when He ascended far above all the heavens that He might fill all things.” They came to Jesus one day and they said, "Show us a sign." And Jesus said, "A wicked and an adulterou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but there will no sign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so must the Son of God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가 무엇에 관하여 마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셨던 그는 땅 아랫 곳으로 내려가셨던 자와 동일한 분입니다. 그가 모든 하늘 위에 높이 오르신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어느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이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When on the day of Pentecost the people were gathered and Peter stood up to preach to them, he identified his subject as Jesus of Nazareth. “A man who proved that He was from God because of the signs and the wonders that He did in the midst of you, who you,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counsel and foreknowledge of God, with your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hat He could be held by it. For the scripture said, ‘Thou will not leave my soul in hell, neither will you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And we testify unto you that God did not leave His soul in hell, but He has been raised again” (Acts 2:22-32).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을때 베드로가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며 그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라고 밝혔습니다. “너희도 아는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 준비 되었거늘 너희가 범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옵고 내게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 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 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 2:22-32).

Jesus, in Luke's gospel chapter 16, said,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who fared sumptuously every day. And there was also a poor man who was brought daily and laid at his gate, full of sores, and the dogs were licking his sores. And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into Abraham's bosom. More also the rich man died, and in hell he lifted up his eyes, because he was in torment. And he saw Abraham afar off, and Lazarus there being comforted. And he said, ‘Father Abraham, would you send Lazarus that he may take some water and touch my tongue with it, because I am tormented in this heat.’ But Abraham said. ‘Son,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had the good

things, and Lazarus the evil. Beside that, there is a gulf between us that is fixed, and it is impossible for those that are here to come over there or for those that are there to come over here.' He said, 'If that be the case, then I pray, please send Lazarus back that he might warn my brothers, lest they come to this horrible place.' Abraham said, 'They have the law and the prophets. If they will not believe the law and the prophets, neither would they believe even if one should come back from the dead.'"

누가복음 16 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테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테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Jesus tells us that prior to His death, Hades was separated into two compartments: in one compartment those who were being tormented, the unrighteous; in the other compartment those who were being comforted in Abraham's bosom. For we are told in Hebrews chapter 11, when it lists off these great men of faith in the Old Testament, that they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는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로서 고통을 받으며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 장을 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But they saw it afar off and they embraced it, and they claimed they were just strangers and pilgrims. But they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 because God has reserved some better thing for us that they apart from us could not come into the perfected state.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이방인이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으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분리되어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었습니다.

Now, Isaiah tells us that a part of the mission of Christ in chapter 61, to preach the gospel unto the poor, to bind the brokenhearted, and then also to set at liberty the captive and to open the prison doors to those that were bound. So that when the thief on the cross said, "Lord,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remember me," Jesus said,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이사야가 이사야서 61 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도적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When Jesus died, His Spirit went into Hades, but into that compartment where Abraham was comforting those who had died in faith. As they were awaiting the fullness of time when God would fulfill the promise of sending the Messiah. For they all died in faith, but they could not ascend into heaven because it was impossible that the blood of bulls and goats could put away their sins.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의 영이 음부에 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으나 천국에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숫 소나 염소의 피는 그들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All they did was foreshadow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whereby sins could be put away and man could have access on into heaven. So Jesus preached to those souls that were imprisoned, and on the third day when He arose again,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He opened the prison doors to those that were bound. He led them from their captivity, and the graves of many of the saints were opened, and they were seen walking in the streets of Jerusalem after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Matthew 27.

그들이 행한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며 인간이 하늘에 들어갈수 있게 되는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갇힌 영혼들에게 전파하셨으며 제 삼일에 그가 부활 했을때 포로된 자들을 인도 하셨습니다. 옥 문을 여시고 갇힌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포로된 자를 인도하셨으며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는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마 27).

So, "He who has ascended" is the one who, first of all, descended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In order to open the prison doors to those that were bound, in order to lead those who had by faith been waiting for the Messiah in order to lead them on into glory.

And He gave gifts unto men.

그래서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는 누구 보다 먼저 땅 아랫 곳에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옥 문을 열어 주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드을 인도하며 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식 위하여 땅 아랫곳에 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And to some he gave, apostles; and to some, prophets; and to some, evangelists; and to some, pastors and teachers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4:11);

So He anointed some men to be apostles. He anointed others to be prophets, others to be evangelists, others to be pastor-teachers.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사도가 되게 하려고, 다른 이들에게는 선지자나, 전도자 또는 목사나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Now what is the purpose then of the church? What is the purpose of these men that God has gifted? For years because of my seminary experiences and my exposure to Oswald J. Smith and his missionary conferences, and because of my denominational background, I thought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hurch was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그렇다면 교회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학교의 경험과 Oswald J. Smith 로 부터 배운것과 선교 대회와 내

교단적인 배경으로 나는 수 년간 교회의 주 목적은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 was always trying to preach evangelistic sermons in order that I might evangelize the world. Because, after all, that, I was taught, was the primary purpose of the church. As the result, the people in my congregations have been exposed to evangelistic preachi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Every week they were hearing messages on the importance of receiving Jesus Christ and being born again, the new life that you could have in Christ. Repent, turn your life over to Jesus, surrender your life to Him, and be saved.

나는 세상을 복음화 하려고 항상 전도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대로 그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인들은 전도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매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중생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새 생명의 중요성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당신의 삶을 예수께 맡겨라.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I would oftentimes have extremely powerful evangelistic messages that the Lord had laid on my heart. I mean, I would just have my heart burning with this message because it was so dynamic and powerful it would surely convert the hardest sinner. I would be so excited ready to deliver this powerful message and surely no sinner could resist.

나는 종종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지극히 능력있는 메시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 메시지로 불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역동적이고 강력하므로 틀림 없이 아주 강박한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놓을 것 같았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감격하게 되어 틀림 없이 아무 죄인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I would go to church and there wouldn't be a single sinner in the house. Oh, how frustrating. I would take my frustrations out on the people. If they would only have been witnessing this week as they should, they would have had some of their neighbors in church with them tonight. "You are a disgrace to God, you are a failure," and I'd begin to beat the sheep that were there. Jesus didn't say, "Peter, do you love Me? Beat my sheep," yet I was. Jesus said, "Do you love me? Feed my sheep." You see, I was so into evangelism that I never took the people beyond that level. I never brought them into the fullness in Christ.

내가 교회에 가면 거기에는 집안에 단 한 사람의 죄인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얼마나 좌절할 일입니까. 나는 그 좌절감을 사람들에게 풀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증거를 했더라면 그들의 이웃 사람들을 데려와서 오늘저녁 교회에 함께 있었을 텐데. "당신들은 하나님께 망신입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 있는 양떼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때리라" 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고 하셨습니다. 나는 전도에 폭 빠져서 그 이상의 수준에 이끌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끌지 못했습니다.

In Hebrews chapter 6, it says, "Therefore, setting aside these first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the repentance from dead works, the baptism, the laying on of hands, let's go on into maturity." I wasn't doing that with the people. Because I thought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hurch was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sn't that what they taught me in seminary?

히브리서 6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 갈찌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온 세계를 복음화 하는 것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아닙니까?

But then I came across this passage in Ephesians 4 and it transformed my life and my ministry. I found out God didn't call me to be an evangelist. I never felt that He did. I was uncomfortable trying to be an evangelist, but that was the mold that the denomination fit me into. I realized that God called pastor-teachers too and this was the area where I was very comfortable and I loved.

그러나 그때 나는 에베소서 4 장에서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과 목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는 결코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려고 애를 쓸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But the purpose of the church, the purpose of the pastor-teacher was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and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I had been tearing down the body of Christ. I had been beating the body of Christ. I had been driving them away. I should be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the pastor-teacher.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때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몰고 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사와 교사이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into the fully-matured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는 것과 아는 칼에 하나가 되어
론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
(4:13):

I had a whole new philosophy for the purpose of the church. It isn't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but it is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And so, I then began to focus my ministry on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loving the body of Christ, ministering to the body of Christ, strengthening the body of Christ, teaching the body of Christ the Word of God, feeding the body of Christ. As the result, as they began to mature and come into this maturity in Christ, their lives became a witness to the world around them and others came to know and came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And evangelism was the byproduct of a healthy body.

나는 교회의 목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먹이는 일의 사역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은 성숙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삶이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증거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와서 보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도는 건강한 몸의 부산물이었습니다.

That we no longer be like children, who are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of doctrine, by the sleight of men, and cunning craftiness, whereby they lie in wait to deceive (4: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4:14);

There has always been the curse of these weird doctrines that blow through the church. There are always those little sheep who will follow anybody ringing a bell. Not matured. They come with their starry eyes. "Oh, I heard the most wonderful thing the other day. We can all be perfect now in these bodies. Oh, bless God, I am perfect." Oh, help us, God. Children tossed to and fro with every wind of doctrine and slight of men, cunning craftiness. And boy, I mean they are there. What cunning craftiness. These letters that they send out on their computers, cunning craftiness. I mean, they are masters of deceit. They lie in wait to deceive.

그곳에는 교회를 통하여 불어오는 이상한 교리의 저주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곳엔 방울이 울리면 따라가는 그 성숙하지 못한 어린 양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은 반짝 반짝 빛나는 눈으로 와서 "오, 나는 그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는 이 몸으로 지금 완전하게 될 수 있어. 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 아이들은 교훈의 풍조와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으로 이리 저리 밀려 요동합니다. 맏소사, 그런데 그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간사한 계교입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로 찍어서 보내는 이 편지들, 얼마나 간사한 계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속이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4:15),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4:15)

That is how the truth should be taught and spoken, in love. Not pounding the truth into people, not ranting and raving,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배우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참된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고함 치지도 말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hat we may grow up into him in all things, [that grow, through the truth of God,] which is the head, even Christ: from whom the whole body is fitly joined together and compacted by that which every joint supplies, according to the effectual working in the measure of every part,

making increase of the body to the edifying [or building up] of itself in love (4:15-16).

범사에 그에게 까지 자랄자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4:15-16).

Christ the head, and all of us really fit together, joined by the Spirit, made a part of that body, the beautiful body of Christ functioning together, coordinated together by the Spirit coming into the fullness. But we look at the body of Christ today in the world, and it is spastic. No wonder the world isn't interested. You know, the church is so divided, divided over the dumbest things. It is only as we really come to that unity and love that the church will have a powerful witness before the world. Building up itself in love.

그리스도는 머리오 몸의 지체로 만들어진 우리는 모두 잘 맞추워져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함께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아름다운 몸이 되었으며 성령이 조정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십시오. 그것은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것이 이상할게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갈라졌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할때 교회는 세상에 능력 있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야합니다.

This I say therefore, and testify in the Lord, that you no longer walk as the Gentiles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 처럼 행하지말라 (4:17),

So we are told, first of all, walk in a way that is fitting as a child of God. Now we are told that we are not to walk as the Gentiles. And that word is used for the heathen. Who walk,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in the vanity of their mind, [or empty headed] because they have their understanding darkened, because they are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because of the blindness of their heart (4:17-18):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4:17-18).

Their hearts are blind, thus they are ignorant. Ignorant of the life of God that is available to man, and they are alienated then from God.

그들의 마음은 눈이 멀었으므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습니다.

They are past feeling and have given themselves over to lasciviousness, to work all uncleanness with greediness (4:19).

저희가 감각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You are not to walk as the Gentiles who walk in lasciviousness, in sexual impurity, working all uncleanness, akathartes, filthy, and greed is usually the problem behind it.

Today the real problems of the world you can trace back to greed. The greed of man, all of the social ills come back to the greed of man. The exploitation of people, all comes back to the greed, wanting for myself.

당신은 색욕으로 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모든 부정한 것 (희랍어의 akathartes)과 더러운 것을 행하며 배후에 모든 욕심이 가득찬 이방인 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짜 문제를 추적하면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탐욕 사회의 모든 병은 탐욕 다시 말하면 자신을 섬기기에 부족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But that is not what you have learned from Jesus Christ; If so be that you have heard him, and have been taught by him, as the truth is in Jesus (4:20-21):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4:20-21).

What did He teach?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He has taught that love should be the motivating factor behind our lives and behind our actions rather than greed being the motivating factor.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이나 행동의 동기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 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There are two powerful motivators in the world today that move men. You are moved by one of the two motivators. Men are either motivated by love, or they are motivated by greed.

오늘 날 이 세상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동기중의 하나에 의해 활동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동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욕심이 동기가 된것입니다.

The man apart from Christ is motivated by greed. You see the results in the world around us. The man who is in Christ is motivated by love and you see the effects within the church, wherever they are following the truth that is in Jesus. What a glorious thing to be around people motivated by love, motivated by the love of Christ. What they do they do in the name of Christ, what they do they do for Jesus Christ, for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사람은 탐욕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나타남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에 의해 움직이며 교회 안에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진리를 따르는것은 사랑의 동기에 의한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 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케 하기 때문입니다.

And thus, they are giving because they are motivated by love, whereas those that are motivated by greed are only interested in getting. Now, that is not the way you have learned from Christ, but you have learned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된 사람들은 주는 반면에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배운방법이 아니며 우리가 배운것은,

That you should put off concerning the former manner of life the old man, which is corrupt according to his deceitful lusts (4:22);

너희는 유희의 욕심일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4:22);

You are to put him off. Know ye not that the old man was crucified with Christ, that the body of sin should not reign as king over you any longer? Put off that old man, corrupted because of his deceitful lusts.

당신은 그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죄의 몸이 더 이상 너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함을 알지 못하느뇨?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여져가는 옛 사람을 벗으라.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that you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4:23-24).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잔리의 가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4:23-24).

This is the way I am to walk. After the new man, the new nature in Christ,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이 것이 내가 행하여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경건의 새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을 좇아서 행하여야 합니다.

Wherefore putting away lying, speak every man the truth with his neighbor: for we are members one of another. Now be angry, and sin not (4:25-26):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4:25-26):

There is an anger that is not sinful, that anger at sin, that anger at unrighteousness, that anger at evil, that anger at bigotry.

Jesus, when He came into the temple and saw the moneychangers there, saw the desecration of the house of God, saw the commercialism, was angry. And I think that He is equally angry with the commercialism today within Christianity.

죄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분내는 것이고 불의에 대한 것이며 악에 대한 것이고 완강한 반대에 대해 분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오셔서 돈 바뀔주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과 상업하는것을 보셨을때 그는 분을 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상업주의에 대해 똑같이 분을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He said, "My Father's house is to be called a house of prayer.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He drove them out, angry. Again, when He came in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and there was a man with a withered hand and the Pharisees watched to see what He was going to do, He said to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Stand forth." And He looked upon that Pharisee crowd with anger, because they would because of their narrow bigotry keep this man from receiving the work of God, the healing of his withered hand that day. He looked around upon them with anger. Anger because men through their traditions would hold back the work of God from other men because that is not the way we do it. That is not according to the bylaws of our denomination.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어야 하거늘 너희 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분을 내어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다시 주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며 바리새인들도 그가 무엇을 하려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주께서 노하셔서 바리새인드과 무리들을 둘러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좁은 완고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그의 마른 손을 고치시는 일을 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셨습니다. 주께서 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의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There is an anger that is not sinful. “Be angry and sin not. Let not the sun go down on your wrath.” Don't go to sleep at night holding a grudge. It is apt to destroy you during the evening hours.

죄가 되지 않는 분냄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원한을 품고 잠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는 동안 그것이 당신을 헤치기 쉽습니다.

don't let the sun go down upon your wrath; neither give place to the devil (4:26-27).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4:26-27).

Or for the devil's work in your life.

So many times we give place, we say, "I have a right," and we say, "Good, sit there. I have a right to be this way." Don't give place to the devil.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내겐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고 또 "좋아, 거기 앉아. 나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 주지 마세요.

Let him that stole steal no more: but rather let him labor, working with his hands the thing which is good, [Notice] that he might be able to give to him that has need (4:28).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4:28).

In other words, the motivation for working is not just to provide for my own needs, but that I might be able to give to someone else that has need. Let him that stole steal no more, but work with his own hands so he can give to the poor, so he has something to provide for their needs.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일을 할 동기는 오직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하며 그들에게 필요한것을 나누워 줄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Let no corrupt communication proceed out of your mouth, but that which is good to the use of edifying, that it may minister grace to the hearers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29).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that we need to really take to heart. There is a form of jesting many times even among believers that is not really proper. Filthy communication, jesting over sexual things, or filthy things. Let no corrupt communication proceed out of your mouth, but that which will build up

someone, not that which will tear down someone, not that which will destroy someone else.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합당치 않은 농담 같은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대화, 성적인 것에 대한 농담이나 더러운 것에 대한 농담 들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타락한 대화기 나오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대화가 나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하시키거나 파괴하는 대화가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Grieve not the Holy Spirit of God, whereby you are sealed unto the day of redemption (4:30).

하나님 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말라 그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4:30).

Again, back in chapter 2, He has sealed us with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 possession. Now don't grieve the Holy Spirit. How do I grieve the Holy Spirit? I grieve the Holy Spirit when filthy communication comes out of my mouth, for He is pure. He is holy. I grieve the Holy Spirit when I speak to someone in anger. When I sort of put myself on a pedestal to put others down. That isn'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t is to build others up. Grieve not the Holy Spirit of God whereby you were sealed.

다시 2 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그가 사신 물건의 구속까지 우리의 기업의 담보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그분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더러운 대화가 나올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분은 거룩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어 말할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하시키려고 나 자신을 추켜 올릴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 and clamor, and evil speaking, be put away from you, with all malice (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Now, these are the things that grieve the Spirit: bitterness, wrath, anger, clamor, evil speaking, malice.

On the positive,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쓴 뿌리, 분노, 분냄, 소동, 악한 말을 하는것, 악독.

긍정적으로 보면,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you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4:32).

There it is, be y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not hard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by what measure?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you. Remember now the lessons that Jesus taught on forgiveness.

거기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하며 불쌍히 여기며 냉혹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해야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을 용서 해주신것 처럼 해야합니다. 예수께서 용서에 대하여 주신 교훈을 기억 하십시오.

There was a certain man who had a servant who owed him sixteen million dollars and he called him in and said, "Pay me what you owe me." And he said, "Oh, I can't pay you. Give me a little time and I will try." This man went out and caught a fellow servant that owed him seventeen bucks, and he took him by the neck and he said, "Pay me what you owe me." He said, "I am sorry I can't right now. Give me a little time and I will pay you." He said, "No way, you have had it." He took him to court and had him thrown in the debtor's prison.

어떤 사람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은 16 만 달러를 그에게 빚졌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내게 진 빚을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주시면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17 달러를 빚진 하인인 친구를 찾아 그의 목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미안하지만 당장은 안돼. 시간을 좀 주면 노력해 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도 안돼. 너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라고 말하고는 그를 법정 에 데려가 빚진 사람들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Now the lord who had forgiven him the sixteen million dollar debt called him in and said, "How much did you owe me?" "Sixteen million dollars." "Didn't I just say I forgive you of the debt?" "Yes." "How is it that I hear that you got hold of a fellow servant that owed you seventeen bucks and you had him thrown in debtor's prison because of his debt?" He said, "That is not right."

그리고 나서 16 만 달러를 그에게 탕감해 준 주인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얼마를 빚졌었느냐?” “16 만 달러입니다.” “내가 방금 너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네가 너에게 17 달러를 빚진 하인 친구를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것이 어쩍이뇨? 그것은 옳지 않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You see, we are to forgive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us the seventeen million. Who are we to hold these small grudges or debts against each other?

보다시피, 그리스도 때문에 17 만 달러를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처럼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작은 원한이나 빚을 서로 붙들고 있는가?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you. This is one of the first scriptures my mother had me to memorize when I was a little boy. Planted in my heart when I was two years old. “Be y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you.”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때 내 어머니께서 내게 외우라고 주신 첫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두 살이었을때 그것을 내 마음에 심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When our little girl was about three she was in one of those moods that was insisting that we spank her. Though I was always reluctant to spank them, but it was one of those days when she kept pushing and pushing and pushing, until she gave you no alternative. I brought her in and I sat her down and said, "All right, that is it. I have had it. Now do you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I was going to quote to her Ephesians 6:1,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She said, "Yes, I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I said, "What does it say?" “Be ye kind one to another.” I said, "That will work this time but not again." Smart little kids.

내 작은 딸이 세살 이었을 때 그 애는 고집을 피어 매를 맞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다른 대안이 없을 때까지 그 아이는 강요하고, 강요하고, 또 강요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앓힌 후 “좋아, 그거야. 진력이 난다. 너는

성경이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에베소서 6 장 1 절을 인용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딸 아이가 “예,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도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뭐라고 하니?” 라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고 쓰여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하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아이죠?

Oh, what a verse to take and work on this week, to allow the Spirit to work in our hearts with just this verse,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us.” What beautiful exhortation.

오, 이번 주에 붙들고 노력하여 이 구절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 하시도록 해야할 구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권고입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and help us not to walk in a manner that becomes a son of God. That we might, oh God, put off the old man with his desires and his affections, and that we might put on that new man after Christ.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태도로 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는 그의 욕망과 정욕을 가졌던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Ephesians, chapter 5.

에베소서 5 장을 펴까요.

Be ye therefore followers of God, as dear children (5: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1)

Now, the *therefore* immediately points you back, back to the last verse of chapter 4 where we are exhorted to b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us. Paul's topic here is God's forgiveness as our example of forgiveness. "Be ye followers of God," or follow the example that God has established for us in forgiveness.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나온것을 가리키며 4 장의 마지막 절을 가리 킵니다. 그것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였습니다.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라” 또는 하나님이 용서에 대하여 이루워 놓으신 본을 받으십시오.

Really the Bible does have the keys to good mental health.

성경은 참으로 좋은 정신 건강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A very important thing for mental health is a forgiving spirit. If you are holding bitterness or animosity in your heart towards someone else, that bitterness is going to do you a lot more harm than it is them. It can just eat at you.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정신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이나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은 그 사람들 보다 당신을 더 많이 해칩니다.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The Bible constantly i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our forgiving and being forgiving. Just to have a forgiving spirit.

성경은 용서 하는것과 용서 받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When Jesus was giving to the disciples the model prayer, incorporated into that prayer was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sking for forgiveness, but also acknowledging the fact that I have received forgiveness or I must myself be forgiving.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실때 그 기도에 넣은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용서하고 있는가하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Forgive us and help me to be forgiving as we forgive others. There was only one petition of that prayer that Jesus emphasized at the close of the prayer, and that was the petition on forgiveness, He said, "For if you will not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against you, neither will your Father forgive you your trespasses."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강조하신 단 한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대한 청원 기도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Jesus taught so much on forgiveness, Peter one day felt he was getting the lesson and was looking for some extra strokes. He said, "Lord, how often should I forgive a brother the same offense? Seven times?" I am certain that Peter felt that he was really growing in grace in that he could conceive of forgiving a man the same offense seven times. Imagine his chagrin when Jesus answered him, "No, Peter. Seventy times seven." Four hundred and ninety?

예수께서 용서에 관하여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그 교훈을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좀 딸려고 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같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일곱번 까지 하오리까?” 내가 확신하기로는 베드로가 참으로 은혜에서 자라서 한 사람이 같은 죄를 일곱번 범하는 것도 용서해 줄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니야, 베드로야,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을때 베드로의 원통함을 상상해보십시오. 사백 칠십번이나 하라구요?

The Lord, I am certain, was demonstrating to Peter that forgiveness is not a matter of mathematics. Before you get to the four hundred and ninety, you would have forgotten the count. And you would just go on forgiving.

내가 확신하기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 주신것은 용서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490 번까지 헤아리기도 전에 숫자를 잊어 버릴것 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용서해주세요.

It isn't a matter of mathematics; it is a matter of the spirit. God wants us to have a forgiving spirit. Yes, you have been wronged. Yes, you have a right to be angry. Yes, you have a right to be upset over this whole situation. Go ahead, eat yourself up, or forgive and be freed from that.

용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화 낼 권리가 있습니다. 예, 당신은 모든 상황을 언짢게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에 파묻이든지 용서하고 풀든지 하십시오.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us. Be ye therefore, followers of God, as dear children.” So you see how it ties to the previous verse in the previous chapter. God is the example for us in forgiveness; we are to be followers of God who has forgiven us.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앞의 장에 있는 마지막 구절과 연결이 얼마나 잘되는지 보실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에서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And walk in love (5:2),

사랑 가운데 행하라 (5:2)

Now, as we've pointed out in the first three chapters of Ephesians, Paul has dealt with the spiritual blessings wherewith God has blessed us in Christ in heavenly places.

우리가 에베소서 첫 3 장에서 지적했듯이 바울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적 축복을 다루었습니다.

Having seated us together in Christ, made us heirs together with Him. And having spent three chapters telling you all that God has done for you, and all that God has promised to do for you, and all that God is planning to do for you, having thoroughly rehearsed the resources that God has made available to you, he finally starts to talk to you about your walk. Now unfortunately, we don't follow that same example in our preaching today. But we start immediately preaching to people how they ought to walk, how they ought to act, how they ought to respond.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것들, 당신을 위해 하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시기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 당신의 소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놓으신 자원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석장을 소모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당신의 행함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불행히도 우리는 오늘 설교하는 동일한 모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But the Bible doesn't do that until it lays first the foundation of God's love, God's grace, God's goodness, God's blessings, God's provisions, and now walk in love, because you have been so loved of God, so blessed of God, so taught of God to love.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행함의 기초를 놓을때 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시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

Walk in love, as Christ also has loved us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가운데 행하라 (5:2)

So forgiveness, God is the example. We are to forgive as God has forgiven us. Be ye followers of God. In walking in love, Jesus is our example, who loved us,

하나님은 용서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and gave himself for us (5:2)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5:2)

So that self-sacrificing love, that giving love. He has given Himself for us as

an offering and a sacrifice to God for a sweetsmelling savor (5:2).

그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며 사랑을 주는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5:2)

Now, in the beginning now to list some of the unloving things whereby men often relate to each other, it is interesting that he puts at the top of an unloving thing, fornication.

이제 시작부터 자주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닌 것들을 적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음행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We see how Satan has so deceived and distorted things, because the world equates fornication with love. In fact, they use the term "let's make love" when they are referring to the act of fornication quite often, calling it love making. But here in the scripture it is the prime example of something that is lacking in love. That is, lacking in true love.

세상이 음행을 사랑과 동일시 하기때문에 사탄이 속이고 꼭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상, 사람들이 음행을 할때 그들이 쓰는 용어는 “우리 사랑하자” 라는 말입니다. 음행을 사랑하는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그것은 사라이이 결핍된 대표적인 예 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사랑이 결핍된 것입니다.

A person who in entices someone else into the act of fornication is not really considering the other person, but only considering themselves and their own desire for some kind of fulfillment, emotional, sexual or otherwise.

They are not really considering the other person that they are leading them into a damning sin. Into one of those works of the flesh which Paul tells us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So it is a very unloving thing to lead a person into an action that is so destructive to that person's spiritual walk in life, which is total disobedience to the commands of God. So it is not really loving and considering the other person.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 감정적, 성적, 또는 다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에 빠져드는것이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그러한 행동으로 이끄는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며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에서 영적인 행함에 파괴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사랑하는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것도 아닙니다.

It is a very unloving act and it is only Satan's deception and lies that would cause a person to even think of that as an act of love. It is an act of lust. But true love is not really involved. If you really loved the person, you would be considerate of their conscience, of their feelings. You would not want to place them under that guilt that they would feel afterwards, that shame and all that they would experience as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라고 착각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이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정욕의 행위일뿐 참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했다면 당신은 그들의 양심이나 감정을 고려했어야 할것입니다. 그들이 그 관계의 결과로 경험할 수치와 모든것들을 느끼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기를 당신이 원치는 않을것입니다.

It is interesting that Paul would place that at the top of the list of an unloving act. Walk in love. The second is

바울은 사랑 없는 행위를 제일 먼저 말하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두 번째는

uncleanness (5:3),

더러운 것 (5:3)

Which, of course, is a sexual uncleanness or impurity.

물론, 성적 불결함 또는 불결입니다.

covetousness (5:3),

탐욕 (5:3)

Of course, that is at the heart of unloving actions. Self-love, covetous, but that isn't a real love or consideration for others.

물론 사랑 없는 행위의 근원은 자기 사랑과 탐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며 남을 배려하는것도 아닙니다.

let them not once be named among you (5:3),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5:3)

You are the children of God. Walk in love, not in these unloving ways.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사랑이 아닌 방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ither filthiness, nor [really] foolish talking, nor jesting, which are not convenient (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5:4)

Really, he is referring here to dirty jokes. It should never, never be done by a child of God, the passing on of a dirty story, because what you are doing is planting filth in that other person's mind, filth that they will not be able to get rid of. It is tragic, but I can remember dirty jokes that were told me when I was just a little kid.

바울은 여기서 더러운 농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더러운 이야기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고 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없앨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때 들은 더러운 농담을 아직도 기억할수 있습니다.

That filth was planted into my mind and I cannot get rid of it. It still lingers there. Oh, I don't think on it all of the time, thank God, but you know how the dumb mind works. Every once in a while one of those dirty little ditties

that I learned as a kid, some kind of a sight, sound, word will trigger a DNA molecule and it will pop that thing out of the file, flash it across my brain. And I think, "Oh God help me, that filth is still there."

그 더러운 농담은 내 마음에 심어졌고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가끔 가다가 내가 어릴때 들었던 그 더러운 생각이 어떤 모습이나 소리나 말을 통해서 DNA 분자를 건드릴때 파일에서 튀어나와서 나의 뇌를 통하여 비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세요. 그 더러운 생각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But what a shame to plant filth in someone else's mind like that. Filth that they can't get rid of, permanent stains. That is not loving, not loving at all. Rather than that kind of stuff,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더러운 것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짓입니다. 그 더러움은 지워버릴 수도 없는 영원한 오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짓을 하는것 보다 차라리 전혀 사랑하지 않는것이 낫습니다.

we should be giving thanks (5:4),

감사하는 말을 하라 (5:4)

Plant stuff in their minds that will edify, that will bless, that will be good, that will build them up.

그들의 마음에 덕을 쌓고, 축복 받고, 좋은 것들을 심어주세요. 그것들이 저희들을 세울것입니다.

For this you know (5:5),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5:5)

Now I hope you know it.

여러분들이 이젠 알기를 바랍니다.

no whoremonger, nor unclean person [sexually impure], nor covetous man, who is an idolater, has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5:5).

음행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Paul says, "Now you know this." The tragedy is that a lot of people don't know that. They think that they can get by with these things. They think that somehow God will smile at these things or God will excuse these things or pass over these things. But God is a righteous judge, and everything will be called into account that is not cover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바울은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 이러한 일에 미소 지으시거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지 않은 모든것을 회계하도록 부르실것입니다.

Let no man deceive you (5:6)

누구든지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5:6)

And unfortunately, so many men have deceived in these areas, but let them not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속이고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deceive you with vain words (5:6):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5:6)

As they get into their speculations and as they get into their rationale and into their philosophies,

그들 자신의 억측에 빠지고 그들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 빠지며 그들 자신의 철학에 빠지게 될때,

for because of these things comes the wrath of God up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5:6).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5:6).

In the early church they had a heresy that was known as Gnosticism. According to the Gnostic heresy, basically everything that was material was evil. The material world was not really created by God. God in the beginning sent forth emanations, and one of the emanations got so far from God that it wasn't related to God anymore, and this emanation created the material universe and thus, the whole material universe is just given over to evil. It's just evil and you can't do anything about it. Only the spiritual is pure.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라고 알려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가지 생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것이라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지을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물질세계를 창조했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악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악할 뿐이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이 순수합니다.

Therefore, they taught that Jesus was not in a real body of flesh, He was actually a phantom, just an appearance. When He would walk along the beach, there wouldn't be any footprints. They created all of these fanciful stories to deny that Jesus had come in a body, and so that is why John, to counteract this Gnostic heresy, said, "If any man denies that Jesus Christ came in the flesh, he is the antichrist."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실체에 계시는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령이었으며 겉으로 보이기만할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해변을 거닌다면 발자국이 남지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공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주주의를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것을 부인하면 그는 적그리스도라” 고 말했습니다.

Now, going along with this teaching that the material is all evil, they said, "Inasmuch as the material is given over to evil, it doesn't matter what you do with your body because it is all wiped out anyhow. It is just all evil.

이 가르침대로 하면 물질은 다 악한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이 악에 넘으셨으니 당신의 몸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상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은 다 악할 뿐입니다.

It is part of the material things, which is totally evil, so it doesn't count. God doesn't really count. It is what is in your spirit that counts. So you can go ahead and commit fornication and go ahead and do all of these things. It really doesn't matter, because you see, that is all a part of the material body and God is so disassociated with the material world that anything done in the material world doesn't really count in the spiritual realm." That was the teaching of the Gnostic's, and so Paul was saying, "Don't let any man deceive you with vain words."

몸은 물질의 일부이므로 완전히 악한것이고 그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 실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에 속한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음행도 하고 이 모든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상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물질로 된 몸의 일부이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행한 행위는 영적인 영역과 상관 없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 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고 말했습니다.

If you get into the Gnostic heresy there was a lot of rationale and plausibilities and all. But they were deceiving people with their vain words and telling them you can do what you want in your body, it really doesn't matter. It isn't wrong because the body is material and it is all going to be done away with. It is what is spiritual that only counts with God.

만일 당신이 영지주의에 들어가면 정당화 하는것이 많고 그럴듯한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육신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몸이 물질이라고 해서 틀린것이 아니라 모미 물질이니 그것은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기때문에 틀린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상관하신다고 합니다.

Don't be partakers with them (5:7).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며 (5:7).

Actually, he said, "Don't you realize that these are the very things that are going to bring the wrath of God on man?" These are the things for which God is going to judge the world. If you are guilty of doing these things then you will be judged with a guilty world.

바울은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죄악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You were one time in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5: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5:8);

Actually, “you were one time darkness,” not, “in darkness,” you were darkness. Now you are not in the light, you are the light. One time your life was darkness, now your life is light if Christ is dwelling in you.

실상 “당신은 한 때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 안” 이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두움 안에 있지 않고 당신이 빛입니다. 한때 당신은 어두움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시면 당신의 삶은 빛입니다.

(For the fruit of the Spirit is in all goodness and righteousness and truth;) Proving what is acceptable unto the Lord. And have no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rather reprove them (5:9-11).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5:9-11).

When Paul was writing to the Corinthians, he said, "What fellowship has light with darkness?" Now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Light and darkness are mutually exclusive. They cannot coexist.

When you turn on a light the darkness goes. But they don't coexist. They are not one. They are separate, mutually exclusive entities. So spiritually you cannot walk in darkness and walk in light.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때 그는 말하기를 “빛이 어둠과 어찌 같이 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은 상호 배타적이라 서로 공존 할 수 없습니다.

불을 켜는 때 어둠은 물러나며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아니며 분리되어 있고, 상호 배타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적으로 어둠과 빛 가운데 행할수 없습니다.

If a man says that he has fellowship with God, who is light, and he is walking in darkness, he lies; he is not telling the truth.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do have fellowship with God as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is continually cleansing us from all sin. So again, don't be deceived. If you are walking in darkness then you cannot have fellowship with God. So have no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rather reprove them.

만약 어떤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 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것입니다. 만약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어 가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과 사귀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십시오.

Now, we are to take more than just a passive attitude towards darkness. When someone comes and starts to tell a dirty story and it is obvious from the look in their eye and the sinister smile that it is going to be one of the dirty ones, stop them, reprove them, don't just listen and then smile politely and chuckle. Say, "That is filthy." There are some men whose minds are like racehorses; they run best on a dirt track. Don't let them pour out their filth on you.

우리는 어두움에 오직 수동적인 태도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더러운 얘기를 시작할때 그것이 더러운 이야기일것을 그들의 눈이나 불길한 미소를 짓는것을 보고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중단 시키고 책망하며 그냥 듣기만 하여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낄낄 웃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럽소” 라고 말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경주하는 말 같아서 비 포장도로에 잘 달립니다. 그들의 더러운 것을 당신에게 쏟아 붓지 못하게 하십시오.

Don't have any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reprove them, speak up, tell them that that is wrong, you don't appreciate it. That way you will keep them from coming back with more filth later.

어둠의 열매 없는 것과 사귀지 말고, 꾸짖으며, 할말을 해서 틀린 것과 당신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더러운 얘기를 하러 오지 않도록 막는것입니다.

For it is a shame even to speak of those things which are done of them in secret (5:12).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5:12).

A lot of times they want to come along and tell you the weekend that they just had and all of their exploits and all, and it is a shame to talk about those things.

많은 경우 그들이 찾아 와서 그들이 주말에 있었던 온갖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도 창피한 것들입니다.

But all things that are reprov'd are made manifest by the light: for whatsoever doth make manifest is light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5:13).

Jesus said, "I didn't come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Me might be saved. He that believeth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inasmuch as he has not believed o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light came into the world, but they would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And if they would come into the light their deeds would be manifested" (John 3:17-20). So they will not come to Christ because of their evil deeds. Christ is the light and they don't want to come into that light because it will reveal the truth about them. They love to stay in the darkness. They stay away from the light.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온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 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함이라” (요 3:17-20).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그빛이 사람들은 빛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들에 관한 사실을 다 들춰낼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빛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Wherefore he said, Awake thou that sleepest,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give you light (5:14).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부르짖습니다
(5:14).

To those who are sleeping in darkness, the call of the gospel. Arise from that death, that spiritual death, and Jesus Christ will give you spiritual life.

어두움에서 잠자는 자에게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See then that you walk circumspectly, not as fools, but as wise (5: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5:15),

So here we are told walk in love, in verse 8, walk as children of light, and here, walk circumspectly.

여기 8 절에서 사랑 으로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고 합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5:16).

How much time is wasted even by the most careful planner. In a sense, I consider all time that is not spent in spiritual development of some kind is really, in a sense, wasted time. I am not saying that I feel that a person should never do anything for just recreational purposes, I think you have to. But I think that even our recreation can be centered around a spiritual base. I think that God gave us all things to really enjoy. I think that God gave us the surf to enjoy.

아주 조심해서 계획을 하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영적 개발에 보내지 않은 시간은 실제로 낭비된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개인이 오락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락 시간을 가져야하죠. 그러나 우리의 오락 시간마저도 영적인 기초를 두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치는 파도를 즐기도록 주셨습니다.

I believe that God gave us the mountains to enjoy, the rivers, the streams. How can you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if you don't get a hook and go after them? But you know, when I am engaged in these recreational activities, when I am sitting out there waiting for a set to come, my heart is in the things of the Spirit.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도록 산과 강과 시냇 물도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낚시 바늘도 없고 쫓아 가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 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가 이러한 오락 활동을 할때 내가 고기 떼들이 몰려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은 영적인 일에 가 있습니다.

I look at the ocean, I look at the surf, I look at the beauty of God's creation and I am just there in fellowship with the Lord. In fact, I think that I enjoy it probably a lot more than a lot of those people because of the fact that I do have such neat times of fellowship with the Lord while I am there.

바다와 파도가 부딪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며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주님과 좋은 교제 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I like what Jim Elliot said concerning his going out for the wrestling team at Wheaton College when he won the national AAU championship in his weight division. He wrote home to his parents in Washington and said, "You will probably hear of certain honors that I have received recently in wrestling, the National AAU Championship, but I want you to know that it wasn't for this purpose that I went out for wrestling. My purpose in wrestling was to develop a stronger more coordinated body that I might offer to God for Him to use in whatever way He might see fit." The motive behind physical fitness. Do I want to walk down the street and have everybody say, "Wow, look at that build." Or am I seeking to give to God a more qualified instrument for Him to do His work through? Makes a big difference.

나는 짐 엘리어(Jim Elliot) 이 휘튼 대학 (Wheaton College) 레슬링 팀에 나가 자기의 체중 부문 에서 전국 AAU 선수권을 획득한것에 관하여 이야기 했던것을 좋아 합니다. 그는 워싱턴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최근에 레슬링에서 우승하여 전국 AAU 선수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우승하려는 목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레슬링을 하는 나의 목적은 내 몸을 조화를 이룬 튼튼한 몸을 개발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 하시도록 드리기 위한것 입니다." 그것이 신체를 단련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거리를 걸으면 모두 "와, 저 체구 좀 보렴" 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더 잘 갖추어진 도구로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한것입니까? 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5:16).

we waste so much.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5:16).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Wherefore be not unwise, but understanding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5:17)

So many people are confused as far as God's will for their lives. The purpose and the plan of God for their lif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혼동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They go on just sort of continuing wasting time. Still doing their own things, never really seeking God, never really searching for the will of God for their lives. God, why did You put me here? What do You have in mind for me? What work is it, Lord, that You want me to accomplish for You? Why have You placed me on this planet? God placed each of us here with a purpose.

그들은 시간 낭비하기를 계속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이 유성위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두셨습니다.

Paul the apostle in writing to the Philippians said, "I ha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by Jesus Christ." In other words, when the Lord stopped me on the road to Damascus, He had a definite plan for my life. I have not yet accomplished that for which God has planned for me. But I am on my way. I forget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I am pressing towards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Reaching for, pressing towards the mark.

Now that should be the story of every one of us. Pressing towards the purpose of God and fulfillment of that purpose of God and plan of God for my life. Redeeming the time, knowing what God wants me to do and being about my Father's business.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것을 아직 잡지 못하였노라.”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게 하셨을때 그분은 내 생애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것을 아직 성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의 달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야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알고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합니다.

Be not drunk with wine, in which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18)

And in the Greek it is present perfect tense, which would indicate a continual filling of the Spirit. "Be ye being filled," but that isn't good English grammar. But that is Greek. We don't have a present perfect tense in English as such.

Now these are two interesting things that he would couple together, and relate. Here is a man staggering down the straight, he has had too much wine, and Paul would equate that to a ma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Now they seem like opposite things.

희랍어로 성령 충만은 현재 완료형이며 계속하여 성령으로 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채워지다" 는 영어로는 썩 좋은 문법이 아닙니다마는 희랍어는 좋습니다. 영어에는 그런 현재 완료형의 시제가 없습니다.

여기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재미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바른 길을 비틀 거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보았습니다. 그두가지가 정 반대로 보입니다.

Be not drunk with wine, where 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18)

They are closer than a person would expect on the surface. What is a person searching for who turns to wine? The man who turns to alcohol, what is he seeking? What is he searching for? There is an emptiness deep inside.

I am trying to find something that will fill that void in my life. I am reaching out for something that will satisfy; I am looking, I am searching. Some people search in alcohol to find a peace, a contentment, a relaxation or whatever.

외부에서 기대 하는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술로 돌아 가는 사람이 무엇을 찾습니까? 알코홀로 돌아 가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가 찾는 것이 무엇 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허무한것 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생활에서 공허감을 메울 수 있는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시켜 줄만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홀에서 평안이나 만족이나 또는 위안이나 무엇이든지 찾습니다.

What does a person experience who is filled with the Spirit? A peace, a relaxation, a contentment, a fulfillment. The one man is looking in the wrong place; he is looking in a place where he will never discover it. The other man has come to the answer,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that void, spiritual void in my life is now complete and full and I am no longer searching and seeking after something to satisfy.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평안, 위안, 만족, 성취감 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응답을 받아야하며 영적으로 공허하든 나의 삶이 완전히 충만하게되어 더 이상 만족을 얻을 다른 어떤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I am satisfied through my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Spirit. Rather than being entirely separate things, there is a real tie-in behind the injunction,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ye continually filled with the Spirit."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만족합니다. 모든것에서 분리된 상태라기 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명령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연결입니다.

Speaking to yourselves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5:19)

When you sing for recreation, what do you sing about? When you are just unconsciously sort of humming a tune, what is it all about? I love to observe my grandchildren, when they are not aware even that Grandpa is watching and listening. I like to watch them at play. I like to watch their inventiveness and the interest that they take in different things.

당신이 오락 타령을 할때 무엇에 대하여 노래를 합니까? 당신이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할때 그것이 무엇에 대하여 말합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듣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놀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관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는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것을 보기를 좋아하며 다른 것들에서 그들이 갖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Oh, how I love it as they are going around the yard, riding the tricycle or engaged in some activity and they are singing about Jesus, singing about the Lord. I think, "Oh, how beautiful, how beautiful."

That should be true of all of us. Singing psalms, hymns, spiritual songs,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that it just be a part of the subconscious. I do it when I am not even aware of doing it. That will be the case if that is the kind of music you are listening to, but if you are listening to some of these other stations all of the time, who knows what you will be whistling about.

나는 그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마당을 맴돌거나 다른 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주님께 관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아름다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두 그래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의식없이 무슨 일을 할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듣고 있는 음악이 그런 종류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다른 방송국을 듣는 다면 당신이 무엇을 훗바람으로 불고있는지 모릅니다.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unto God an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5:20);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That's impossible to do unless I realize that all things are working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If I don't have that confidence, then I can't give thanks for all things.

I can't give thanks for all things if I don't fully believe that God loves me supremely, and that God is wiser than I. So that those things that God has allowed to come into my life, He has a wise plan and purpose, motivated by love, which caused Him to allow them to come to me. Thus, I can give thanks for all things, but if I don't realize that, I can't.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게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활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게 된것입니다. 이리하여 내가 범사에 감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모르면 범사에 감사할수 없습니다.

Because some things that happen to me on the surface look to be so adverse and so horrible that I'm prone to really cry out to God against these things. But if I know that God is in control of my life, that nothing can happen to me except the Father allow it to happen and that the Father loves me supremely so that all things that happen, happen for His purpose because He loves me, I love Him, and He has called me according to His purposes, then I can give thanks even for those things that I do not understand yet what the purpose is. That takes faith.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불행하고 끔찍하여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면, 즉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외에는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목적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적에 따라 나를 부르셨으니 아직 나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Submitting yourselves one to another in the fear of God (5:21).

그리스도는 경의하며 피차 복종이라 (5:21)

He has been talking about a lot of fleshly characteristics, covetousness and these other things. The characteristic of the flesh is actually selfishness or self-centeredness from which comes the covetousness and all these other things, the greed. All of it comes and stems from my self-centeredness and my selfishness. I want my way; I want people to yield to my desires. I want people to play by my rules.

I want them to yield to me. But here we are told that we are to submit one to another, yielding to each other. Now, the insistence on our own way is what brings all of the strife and all of the problems.

그는 육신적인 특징, 즉 탐욕과 이러한 다른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특성은 탐욕에서 오는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 과 그외의 여러가지와 욕심입니다. 그것들 전부가 다 자기 중심과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을 원하고, 사람들도 내 원하는 대로 양보하기를 원하고, 내 규칙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고 서로 양보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면 여러가지 투쟁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I remember when I was a kid there used to be along the highway these Burma shape signs.

I am not going to ask you how many remember that because I wouldn't date you back to my tintage, flash powder days. I remember as a kid reading one of those signs along the road between Los Angeles and Ventura up in the area of Thousand Oaks, when Gobles Lion Farm used to be out that way and that old dirigible they were building along side of the road.

내가 어렸을 때 도로를 따라 버마 모양의 표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철판 사진과 섬광분을 쓰던 나의 시대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릴때 Thousand Oaks 지역에서 Los Angeles 와 ventura 사이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며 그러한 표지판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Globes Lion Farm 이 저쪽 밖에 있었고 그들이 도로를 따라가며 그들이 짓고 있던 오래된 비행선이 그곳에 있었을 때입니다.

The sign said, "Famous last words, of lights that shine, if he doesn't dim his, I won't dim mine." I won't yield first, I won't give in; you have got to yield to me. That is the basis of so much striving and so much fighting. How much strife could be avoided if we would just submit to one another in love; yield the point.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치는 빛에 대한 유명한 마지막 말은 만일 그가 그의 빛을 어둡게 하지 않으면 나도 내 빛을 어둡게 하지않겠다.” 나는 먼저 양보도 하지않고 나도 포기 하지 않겠으니 당신이 내게 양보해야되요. 그것이 바로 투쟁과 싸움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하여 양보 하면 얼마나 많은 투쟁을 피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Wives, submit yourselves unto your own husbands, as unto the Lord. For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5:22-23),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5:22-23)

The word *head* meaning *authority* there.

머리라는 단어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even as Christ is [the authority or] the head of the church: and he is the savior of the body. Therefore as the church is subject unto Christ, so let the wives be subject to their own husbands in every thing (5:23-24).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3:23-24).

This is the one rule for marriage that God has given to the wife, only one. It should be simple enough for her to keep the one rule. Why would you suppose that God would make such a rule? Because God understands men. God knows that in man there is that male macho image. That somehow a man needs to feel that he is in control, that he is able, that he can handle the situation, that he is boss. I mean, that is just a part of the male ego. God, understanding the male ego and man's needs, gave to the wife the one rule by which her husband can feel that he is really the man of the house and in control and thus be very compatible and loving towards her.

이것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결혼을 위한 단 한가지의 규칙입니다. 그 한가지 규칙은 지키기에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을 만드셨는지 궁금하죠?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남자라는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남자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능력이 있다는 것과, 상황을 처리할수 있다는것과, 자기가 상관임을 알아야합니다.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자의 자존심을 아시고, 그의 필요한 것을 아시며 그가 그 집의 남자라는것을 느끼고 아내와 서로 용납 하며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So he gave the women one simple rule, which, if she would follow, would make her husband a very responsible, loving person, easy to get along with. God gave one rule to the husbands, just one. God knows we are prone to forget, so just one rule for each.

하나님은 여자에게 단 한가지 간단한 규칙을 주셨고 만일 아내가 그 규칙을 따르면 그녀의 남편을 책임감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 같이 지낼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도 간단한 단 한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규칙을 하나씩만 주셨습니다.

Husbands, love your wives, even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5:25);

Now, why would God command the husbands to love their wives so totally and supremely? Because God understands women. God understands the needs in women, and He understands that one of the greatest needs that a woman has is to feel the security that she is loved supremely by her husband.

왜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완전히 최고로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자들을 이해하십니다. 여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도 이해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음으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That there is no one else that can attract his eye, or attract his attention, that she is queen, and that she is loved supremely. She needs that. So God commanded the husbands to fulfill that need in the woman so that she could feel the security of her husband's love, knowing I am number one in his life.

그 어느 누구도 남편의 눈을 끌거나 그의 관심을 끌수 없고, 그녀가 여왕 이고,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내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줘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 안심하고 그녀가 남편의 인생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All marital problems stem out of the disobedience of these two rules. There are only two rules for a happy marriage; one for the husband, one for the wife. But marriages get in trouble because these rules are broken, and when they are broken they begin to compound. When the husband fails to show his wife that kind of love that Christ had for the church, and she begins to feel insecure, and, "I don't know if he really loves me or not," she then feels the necessity of beginning to protect herself, because, "I don't know if he is going to protect me or not."

모든 결혼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규칙을 불순종함으로써 생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오직 두 가지 규칙뿐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인해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거야 아닌가 모르겠어.” 그때부터 아내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날 보호해주려고 하는지 않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She begins to challenge the decisions that he makes. “Are you sure you are doing the right thing?” But as she begins to challenge the decisions that he makes, that upsets him because that means he is not the boss and supreme. “You ought to know...” And so as she begins to challenge his decision-making processes, he begins to feel that he is being challenged and, “I must now show that I am boss by becoming tough and hard and cold and unresponsive.” As he becomes tough and unresponsive, she gets all the more insecure, so she challenges him all the more. You know, “I don't know if this character really loves me or not.

그녀는 그의 결정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는것이 옳다고 확신해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결정에 도전할때 남편은 자신이 가장으로 대우를 안해 준다는 느낌을 주어 화를 내게 만듭니다. “당신은 알아야 할것이 있어...” 하면서 그의 결정 과정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그는 아내에게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거칠어지고 쌀쌀해지며 대꾸도 하지 않아서 내가 가장임을 보여줘야지.” 거칠고 대꾸도 하지않음에 따라 그녀는 훨씬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의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어.

I don't think what he is planning to do is that smart. If we lose everything he is probably going to walk out himself, because I am not really assured that he really loves me,” and so she is challenging, but this challenging has a reverse affect upon him, causing him to become cold and aloof and, “I will show you I am boss.” So the marriage is torn apart.

On the other hand, as the wife is submitting unto him and to his decisions, “Honey, I will just leave that with you, you are the one that takes care of that. I am just trusting you.” He gets the feeling, “Oh, this precious little doll. I don't know if I am doing right or not, but oh boy, she trusts me and all right.”

나는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아마 그는 스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어.” 그래서 그녀는 도전해 보지만 이 도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쌀쌀하고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 “내가 가장임을 네게 보여주마”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파산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과 그의 결정에 따를때, “여보, 당신에게 맡기니 알아서 처리하세요. 당신만 믿어요” 하면 남편은 “오, 이 사랑스러운 귀여운 인형,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를 믿어주니 잘 될거야”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And he begins to feel that, “Oh, you are a sweetheart, come here, Honey.” And he hugs her and, “You are just a doll, and I love you, Angel.” And he feels the freedom of expressing and showing his love to her. The more he expresses and shows that love to her, the more secure she feels. She doesn't feel that she has to challenge his decisions. “That was a dumb move, we will lose everything, but I still have him and he loves me, and after all, we can get by.

We have love.” She feels that security of love and thus she feels the freedom of submitting to him. And because she does submit, he feels that total freedom of expressing that love that he has for her. And it just gets gooder and gooder as we are following the rules.

그리고 그는 “오, 당신은 사랑스러워. 여보, 이리 오세요”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면서 “당신은 인형 같아. 천사, 사랑해요” 라고 사랑하는 감정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남편이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 할수록 아내는 더 안정감을 갖게되고 그의 결정에 도전할 마음도 없게 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것이야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그가 있고 그는 나를 사랑하니 결국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우린 서로 사랑해.” 아내는 그의 사랑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에게 복종 하고자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내가 복종하기 때문에 그가 아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따를때 그 관계는 더욱 더 좋아집니다.

But you see it has a way of compounding. You start going one way, and it starts building up to drive you farther and farther apart. And so if you find yourself way out here in your marriage, you know, where every decision is challenged, “Why are you wearing that shirt this morning? Are you sure you want to wear that tie? If I was you I would wear a different pair of shoes.” You know, you may even agree with what he wants to do, but still you are going to challenge it. “I think I will take you out for dinner tonight, Honey.” “Oh, I don't know if I want to go for dinner or not.” You challenge it, don't let him get by making a decision.

그러나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것을 아실것입니다. 당신이 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고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결혼에서 당신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이 아시다시피 모든 결정에 관습을 합니다. “왜 오늘 아침에 이런 넥타이를 메었어요? 정말 그 넥타이를 땄건가요? 내가 당신의 입장에 있다면 다른 신발을 신겠어.” 당신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잔소리 할것입니다. “여보, 저녁에 같이 나가서 식사할까 생각중이야.” “오, 따라 갈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잔소리 해서 당신 남편이 결정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지마세요.

Now, somewhere someone has to give. You have to break this routine that is driving you and tearing you apart. You have got to break the routine and someone has to give in. The husband has to begin to show more love to his wife. He has to cause her to really feel secure in that love. He has got to go ahead and just express his love, let her know that there is no one else and there will never be anyone else, that she is it for life, till death do us part, and he has no intention or desire for anybody else, she is it. As she begins to feel that security, then she will be able to be freer to allow him to do those things that he feels that he ought to do or wants to do.

이제 어느곳에서 누군가가 양보해야 합니다. 당신을 끌고가서 사이를 갈라 놓는 습관을 깨트려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 하십시오.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여 안정감을 갖게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의 사랑을 표현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며 죽음이 서로를 갈라 놓을때까지 다른 사람을 의도가 없으며 그 아내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하십시오. 아내가 그러한 사랑의 안정감을 느낄때 그가 마땅히 해야할일들이나 하고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버려둘것입니다.

And you can get the thing going the other direction until it becomes heaven on earth, as we are following now God's rules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basic need of the husband as a man, and the basic need of the wife as a woman.

God is so smart. He has it all set out. And He puts it so simply, rather than, "Here are the fifty-five rules for a happy marriage." He knows you'd forget them. So He gives you one, but even we have difficulty with the one, don't we? We forget so readily.

당신은 그 일의 방향을 지상의 천국이 될때까지 다른 방향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은 남자로서의 기본적인 필요와 아내는 여자로서의 기본적 필요를 고려 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규칙을 각자가 따를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민첩하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여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55 가지의 규칙이 있다" 라고 하시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잊어버릴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단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She ought to know I love her, I come home for dinner, after all." You know, there i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women, of course, that is why we are attracted to them. But I really don't think that you can tell your wife enough times that you love her. If when she first opens her eyes in the morning and you look over and you see her in bed, and you say, "Oh, Darling, you are beautiful. I love you."

"아내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것이 끝난후 저녁 식사하러 집에 옵니다." 여자들에게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충분히 자주 사랑한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눈을 떠면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는것을 보고 “오, 여보, 당신은 아름답군요. 사랑해요.”

Then as you are sitting across from her at the breakfast table and you just look into her eyes and say, "Sweetheart, I love you so much." Then as you kiss her goodbye and head off for work and you say, "I love you, Honey. See you later." Two or three times during the day you call up and she says, "Hi, what do you want?" "Oh, I just wanted to tell you, Honey, I love you, and I think you are great." Believe me, when you go to bed at night, you are going to hear the question, "Honey, do you love me?" Take a hint, fellows, they need assurance of love.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도 그녀의 눈을 보면서, “여보,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는 작별 키스를 하고, 직장에 가면서도 “사랑해요, 여보. 나중에 봐요.”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면, 그녀는 “웬 일이에요?” “오,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당신은 훌륭해요.” 믿으세요. 잠자리에 들때 그녀는 “여보, 날 사랑해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남자들이여, 그들에겐 사랑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차리세요.

Not just verbal. Love is demonstrated in its actions and love is demonstrated in its giving. Love your wives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Giving of yourself to her, showing your love in your giving yourself to her. The rules for a happy home.

말로만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하고 주는 것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당신 자신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당신 자신을 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규칙들입니다

Paul goes on and draws on this illustration of Christ and the church as an illustration, really, of the perfect marital kind of a relationship. He gave Himself for the church

That he might set it apart and cleans it with the washing of the water by the word, that he might present it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5:26-2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5:26-27)

You know, the wife who is smothered with love will just blossom forth so beautifully. As we blossom forth in the love of Jesus, the purpose is that He might present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당신도 알다시피 사랑으로 덮여진 부인은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꽃을 피울때, 그 목적은 주께서 자신을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without spot or blemish,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So ought men to love their wives as their own bodies. He that loves his wife [is really doing himself a favor, he] is loving himself (5:27-28).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5:27-28)

You are the one who is going to benefit from your showing your love to your wife.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임으로 유익하게 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And for this caus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shall be joined unto his wife, and they two shall become one flesh. It is a great mystery: but I am speaking [Paul said] concerning Christ and the church. Nevertheless, let every one of you in particular so love his wife even as himself; and the wife see that she reverence her husband (5:30-33).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5:30-33)

So relationships, submitting ourselves to one another, wives submitting to their husbands, husbands loving their wives supremely.

그래서 결혼의 관계는 피차 복종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Chapter 6

Now parent-child relationships,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1)

That “in the Lord” I think is important. If your parents are not godly and if your parents are demanding you to do things or requiring you to do things that are improper from a spiritual base, then I do not believe that obedience is required. But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주 안에서”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기초에서 볼때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There is the higher conscience to God, where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If what is being required of me would violate my conscience towards God, then that has to be the guiding standard of my life.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차원의 양심이 있으며 우리는 사람 보다는 하나님 께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킨다면, 내 삶의 기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ven in wives submitting to their husbands, again, there is the guiding standard of your conscience towards God. If your husband is requiring something that would affect your conscience before God, then I do not believe that you have to submit. Your husband isn't really loving you as Christ loved the church or he wouldn't require you to do that. So in all of these issues there is that higher authority of God in our lives and our conscience towards Him.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양심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어기는 것이라면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같이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삶과 그를 향한 우리의 양심에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So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6:2)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6:2)

Now, a lot of commandments.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that had a promise attached to it.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upon the earth."

많은 계명들 중에서 이것이 약속이 따르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That it might be well with you and your days long upon the earth. Now, you fathers,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wrath (6:3-4):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6:3-4):

I think one of the cruelest things that I have observed fathers doing sometimes is teasing their children to the point of distraction, getting a kick of the frenzied little child. Holding out a piece of candy or a cookie, and then as they are reaching out, pull it back.

나는 가끔 아버지가 자녀들을 조롱하여 마음이 혼란해져서 조그마한 아이가 열광적으로 되는것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잔인한 행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캔디나 과자를 보이고, 그들이 잡을 만하면 뒤로 빼는것입니다.

Then hold it out and pulling it back, and creating frustration until the child can't handle itself.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wrath, that is a cruel thing to do. It is cruel to derive humor or whatever from this kind of teasing of a child. It isn't right. It is mentally abusing the child, but some people get sort of a kick out of seeing a little child just scream in a frenzy by frustration, can't do anything about it.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wrath.

내밀었다가 잡아당기곤 하면서 아이가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게 하는 것 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놀리는 것을 재미로 삼는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정신적 학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I think that we can provoke our children to wrath by demanding unreasonable achievements from them. "After all, it is my child. They have got to be a genius. They are so smart; they are talking before anybody else. They are walking. My child just has to be super smart and special," and so we sometimes

are trying to push them beyond their capacities. Thus, that creates frustration. We need to be careful that we don't push them to the point of frustration.

우리는 아이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을 달성하라고 강요하여 그들을 노엽게 할수 있습니다. “결국 내 자녀야, 그들은 천재가 되어야 해. 그들은 아주 영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거든. 그들이 걸어 다니지. 내 아이들은 아주 영리하고 특별하게 되어야 해.”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자기의 재능 이상으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리하여 좌절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좌절하게 되기까지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wrath,

but bring them up in the nurture and the admonition of the Lord
(6:4).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6:4)

Teach them about God, teach them the things of God and the ways of God.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르치십시오.

Servants, [employees] be obedient to your bosses according to the flesh, with fear and trembling, and singleness of your heart, as unto Christ; not with eyeservice, as menpleasers; but as servant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the heart (6:5-6);

종들 (종업원들) 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며 눈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6:5-6);

We are told in the scriptures that whatso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to the glory of Christ, or do what you do as unto Christ. No matter what kind of a job I am doing, I am a witness for Jesus Christ, and therefore, I want to do it good for His sake, so that people will think well of Christianity because the job that I am doing is super special.

I am giving an extra effort. I am not complaining. I am going an extra mile. I am doing more than what is required of me. That my life might be a good witness for Jesus Christ.

누구에게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거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잘하기를 원하며 내가 하는 일을 너무나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도록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더 노력하며 맡은 일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We have many young people that have gone from Calvary Chapel on these kibbutz programs over in Israel, and they have left a good witness because of the way that they work without complaining, their good attitudes. Why? Because they go over and they are working as unto the Lord.

They have taken the right attitude with them. Doing their work as unto the Lord, and it leaves a powerful witness as these in the kibbutz observe their work. Some of the first groups that went over, those in the kibbutzim were determined to really break them. They gave them the dirtiest jobs around the kibbutz.

갈보리 채플에서 이스라엘 키부스 프로그램에 갔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하신 것처럼 불평하지 않고, 좋은 태도로 일하므로 아주 좋은 증인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주께 하듯 그들의 일을 하여 그들의 일하는것을 본 키부스에 유력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곳에 간 첫 그룹의 몇 사람들에게 그 곳 키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일들을 주어서 그들을 정말 그들의 사기를 꺾어 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Just pressed them all kinds of stuff, and yet, these kids would do it smiling and rejoicing and with good attitudes. And what they did was break down the kibbutznicks. They said, "Wow, can't believe the way these people respond and react." Why? Because I am doing it as unto the Lord.

There are a lot of times when we are required to do things that are galling to us. Sometimes the boss may ask you to do something that you say, "Hey, come on. I am above that." Sweep the floor.

온갖 일로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지만 이 아이들이 좋은 태도로 웃고 즐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키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것은 믿을수가 없네.” 왜 그런가요? 내가 마치 주께 하듯 하기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상사가 마루 청소를 하라고 하면 “여보세요, 나는 그 보다 더 높은 직위예요.” 라고 대꾸 할것입니다.

“Are you kidding?” I used to work for Alpha Beta markets. In my work for them I was called on to do just about everything. I was going around to the various stores, substituting for managers and all kinds of work. Anything that would come up they would call me to hotshot for them. Sometimes I would go into the store and it would be filthy and so the janitor wouldn't be there.

“농담하는 건가요?” 내가 알파-베타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메니저 대리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일들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나를 불러서 시켰습니다. 때로는 청소부도 너무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I would go ahead and clean the restrooms and sweep the floors. I thought, “If they want to pay me what they are paying me, I don't care what I do. I will sweep the floors or whatever.” I developed a reputation of a guy that will just go for it. Because I was doing it as unto the Lord and I figured they are paying for my time, and so I will do what they ask of me when I am here, without complaining or murmuring. That is exactly what we are told to do here. Do what you do as unto the Lord, not to please men but to please the Lord, as a good witness for Him.

나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바닥도 쓸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급하는 돈을 주는 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아. 바닥을 쓸든지 무슨 일이나 할거야.” 나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께 하듯 하였고 그들은 시간제로 내게 지불했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불평없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는것을 할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께 하듯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하십시오.

With good will doing service, as to the Lord, and not to men: knowing that whatsoever good thing any man does, the same shall he receive of the Lord, whether he be a slave or a free man (6:7-8).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로운 자나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니라 (6:7-8).

I am ultimately looking to the Lord for my rewards for my life and for my work.

결과적으로 나의 삶이나 나의 일에 대한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 봅니다.

And so, you masters [if you are in the position of an employer], do the same things unto them, forbearing threatening: knowing that your Master also is in heaven; neither is there respect of persons with him (6:9).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너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 (6:9).

In the early church when slavery was such a popular thing, it was quite interesting because many of those in the early church were slaves. Many of those in the early church were masters who had many slaves. The interesting thing was, is that here is a fellow that all week long is taking orders from his master and he goes to church and he is the elder in the church and his master is just one of the people in the church, and the whole order was reversed when they got to church. With God there is no respect of persons, we are all one before Him.

노예 제도가 유행했던 때 초대 교회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많은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한 주간 내내 그의 주인의 명령을 받다가 교회에 가면 그는 교회의 장로이고 그의 주인은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갈때엔 그 순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하나입니다.

Finally, brethren,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For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nd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Wherefore take unto you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Stand therefore (6:10-14),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지금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6:10-14).

So we now come to the final section of the book, the warfare of the believer. The first three chapters Paul dealt with the wealth of the believer. The next two and a half chapters Paul dealt with the walk of the believer. Now he deals with the warfare. Or, in the first three chapters he dealt with the position, seated with Christ. In the next two and a half chapters he dealt again with the walk, and now he deals with standing.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믿는 자의 전쟁에 왔습니다. 바울이 처음 세장에서 믿는 자들의 부를 다뤘습니다. 다음 두장 반에 걸쳐서 믿는 자의 행함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는 싸움을 다룹니다. 혹은 첫째 석장에 걸쳐 위치 죽 그리스도와 앉는것을 다루웠고 다음 두장 반에서는 다시 행함을 다루웠으며 이제 서는것을 다룹니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Know that you don't have the strength in yourself; it is the Lord who gives me strength. Apart from Him I can do nothing, bu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So Paul sees the Roman soldier dressing himself for war, and we as Christians are in a warfare.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당신 자신에게는 힘이 없음을 아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를 떠나서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전쟁을 위해 차려 입은 로마 병정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It is a spiritual warfare,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nd powers, which are spirit entities; they are captains and lieutenants of the demon ranks. They are called principalities, powers, authorities, dominions, and they have various rankings of evil spirits. That is where the real warfare lies, in the realm of the spirit, fighting these spiritual battles.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세와 능력과 권세와 주관자로 불리며 악령도 여러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 진정한 전쟁이 있으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And thus,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spiritual weapons. It is a spiritual battle. It cannot be fought with physical weapons. We must arm ourselves with spiritual weapons.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se principalities and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the spiritual wickedness in the high places. So you have to take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ight be able to stand in that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just stand.

영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물질적인 무기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능력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능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Therefore, as we arm ourself, the first bit of armament that we put on is the

truth (6:14),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무장할때 전수갑주의 제일 먼저 입어야 할것은,

진리 (6:14)

Because the enemy is always coming with his lies. Jesus said that the devil is the father of all lies. And he tries to lie to you about God, about the nature of God, about the character of God, about the attitude of God towards you. He tries to lie to you about God's attitude towards sin. "Oh, it really doesn't matter. You can get by with it. God will judge you. God will forgive," and so forth, and he presses the point of causing you to use the grace of God as a cloak for lasciviousness, deceiving yourself. The truth—it's important that I be armed with the truth.

적은 항상 거짓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려고 시도 합니다. 사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하여 당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오, 그건 실제로 문제될것 없어. 그냥 넘겨 버려도 돼. 하나님이 심판 하실때 용서해 주실거야" 등등, 그리고는 당신에게 압력을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행위나 스스로 속임의 핑계로 사용하게 하는 곳까지 밀고 갑니다. 진리 - 진리로 무장하는것은 중요한것입니다.

Secondly,

두번째로,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6:14);

의의 흉배 (6:14)

That commitment in my heart to do that which is right before God. I have got to have that as just a commitment of my life. I want to do the right thing. Not to observe the situation and then determine which way I will balance. But just have that determination that I am going to live a right kind of life. Righteousness.

하나님앞에 옳은것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서약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서약으로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상황을 관찰하다가 균형을 맞추어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 (의로움).

Righteousness actually constitutes the right actions towards those around me. And unrighteousness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toward my neighbor. Godliness is doing the right thing towards God.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Ungodliness is the wrong relationship with God. There is ungodliness,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unrighteousness, my relationship with man.

의는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옳은 행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불의는 내 이웃에 대하여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일을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입니다. 불 경건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Now he is talking here about righteousness. I have got to have that just as a basic foundati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 am going to do as best as God enables me the right thing. I want to live right.

이제 바울은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의 기초로 의의 흉배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Your feet sho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 (6: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6:15);

It is God's desire that we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and with Him. We live in a world that is filled with strife. We talked about marriage relationships, but how many homes are so filled with strife. The atmosphere is continually tense as we are failing to obey the scriptures in submitting one to another in love.

But we are trying to dominate over each other; we are trying to rule over each other, and there is no love involved. We get to arguing over the most ridiculous things and we won't give in. We won't yield the point, we will press our point, get the last word in, leave a sour taste. And yet, as the scripture says, "That yielding will pacify great offenses."

우리가 이웃과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팍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에 대하여 얘기 했습니다만 다투면서 사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서로 복종하라고 하지만 불순종 할때 분위기는 계속해서 더욱더 긴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할뿐 그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도 양보하지 않고 다툽니다.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끝내 쓸쓸한 마지막 말까지도 해버립니다. 성경은 “양보하는 것이 다툽을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ow many times in a tense situation where there is just the drawn sword and the clash taking place can the whole issue be diffused by just one person saying, "I think you are right. It is stupid to go on arguing like that. You are probably right." It just diffuses the whole thing. Suddenly the strife is gone. Why

do we find that so hard to do? To admit to being wrong, or to admit to the other person possibly being right. Even when we know they are wrong. Help us, Lord.

칼을 뽑고 충돌 하는 긴장 상태에서 한 사람이 나서서 “그래, 당신이 옳소. 바보같이 이렇게 다투네. 당신이 옳은것 같아요” 라고 말함으로 모든 것이 가라앉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진정되고 다툼도 돌연히 끝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피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것을 알때에라도 그러합니다. 주여, 도와 주소서.

Above all, taking the shield of faith (6:16),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6:16)

That faith and confidence in God is what is being talked about here.

wherewith ye shall be able to quench all the fiery darts of the wicked (6:16).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환전을 소멸하고 (6:16)

Satan is constantly attacking us. My faith in God, God's ability, God's power, God's working in me. I can stand against these attacks of the enemy.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끊임 없이 공격합니다. 나는 이러한 적의 대항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6:17),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6:17)

Thank God I have been saved through Jesus Christ from that tyranny of a life mastered by the flesh. I have been saved in order that I might walk in fellowship with God through the Spirit.

폭군 처럼 나의 삶을 지배하던 육에서 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된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And finally,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6:17):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6:17)

Not finally, but next,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s Word is a tremendous defense against sin. John said, "I write unto you young men, because you are strong,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wicked one, because His Word abides in you." The power of God's Word within my heart against sin, it is the greatest defense that I can have in this spiritual battle that I am in. God's Word hidden in my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방어책입니다. 요한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죄와 대항합니다. 그것은 내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었습니다.

And then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Praying (6:18)
기도하라 (6:18)

What a powerful spiritual weapon prayer is. In this spiritual warfare, prayer is often the deciding factor in the spiritual battle.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영적 전쟁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Praying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watching 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and for pray for me, [Paul says,] that utterance may be given unto me, that I may open my mouth boldly, to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6:18-19),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6:18-19)

Interesting that so often in the early church their prayer was for boldness and proclaiming the truth of God. The reason for that being the heavy persecution against those who were proclaiming the gospel. Imprisonment often, oftentimes killed.

There are some estimates that range as many as six million people were put to death for their faith in Christ in the first 270 years of the church's existence. Some six million people martyred. That is why, no doubt, they needed boldness, because my witness may cost me my life.

재미있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 빈번히 기도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삶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빈번히 투옥했고 또 죽임도 당했습니다.

교회가 생긴 후 처음 270 년 동안에 약 6 백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6 백만명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러한 이유로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야 했습니다. 나의 증거로 인하여 내가 죽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You can be intimidated by that kind of pressure into silence. In the early church after one of the first persecutions, when the disciples were beaten and told not to speak any mo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arned severely not to preach anymore, they came to their own company having been beaten, and they shared with them the experience that they had before the magistrates, and they said, "Let's pray that God might give us boldness to continue to speak the truth."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압력을 주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구타 당하고,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호되게 얻어맞은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와서 그들이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So they prayed and the place was shaken and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and they went forth boldly proclaiming the truth. Paul is praying, asking for prayers that God will give me boldness in utterance, opening my mouth boldly to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이 흔들렸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For which [he said] I am an ambassador in bonds (6:20);

이 일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6:20)

For which I have been placed in prison.

나는 형무소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and that I may speak boldly, as I ought to speak (6:20).

*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20)*

That I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is imprisonment, by the persecution, by the beatings, but that I will continue to speak boldly for Jesus Christ as I ought to speak.

I think so many times of our attitudes when someone has given us a dirty look or someone has put us down because we testified of Jesus. "Oh, are you one of those Jesus freaks?" We keep quiet.

나는 투옥이나 박해나 구타를 두려워 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담대히 전할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췌려 보거나 우리를 깎아 내릴때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당신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 중의 하나구먼" 하고 말할 때, 우리는 아무 대꾸도 안합니다.

We have been intimidated by someone's remark. Imagine what they went through in the early days. Here is Paul in prison because he has been proclaiming the gospel, and he is saying, "Please pray that God will give me boldness to speak as I ought to speak. That I won't be intimidated by the fact that I've been thrown in prison, that my life has been threatened, that Nero is going to take my head." What we need is the grit of those early apostles.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 합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그들이 당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할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담대함을 내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감옥에 가거나 내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네로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두려워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But that you may also know my affairs, and how I am doing, Tychicus, a beloved brother and faithful minister in the Lord, will make known to you all of these personal things about me; whom I have sent to you for the same purpose, that he might let you know our affairs, and that he might comfort your hearts. Peace be to the brethren, and love with faith, from God the Father and our Lord Jesus Christ (6:21-23).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코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도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 지어라 (6:21-23).

Peace and love, these glorious gifts of God. And then finally,

평화와 사랑, 이런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Grace be with all them that love our Lord Jesus Christ in sincerity. Amen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라. 아멘 (6:24).

Next week we go into the Philippians epistle. It is called the prison epistle, because Paul wrote it from prison. Now, if you had a friend thrown into prison with an indeterminate sentence, what kind of a letter would you expect to get from him?

It is interesting that the epistle of the Philippians is the most joyful epistle in the New Testament, in which he is continually urging them to rejoice in the Lord.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next week. You'll find it very rich, very blessed, very full.

다음 주에서 빌립보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친구가 무기 징역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어떤 편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흥미로운 것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끊임 없이 기뻐하라고 촉구하는 신약 성경의 가장 즐거운 서신입니다. 다음 주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그것이 아주 풍요롭고 복 되고 넘치는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Now may the Word of God abide in your hearts richly through faith, that you might comprehend the length, the breadth, the depth, the height of God's love for you. And that you might live in fellowship with God as light in a dark place, so may your life give forth of the beauty and the radiance of Jesus Christ that it might bring hope unto others. May God use you as His instrument this week. In Jesus' name.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살면서 당신의 생활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